

계간

ISSN 3022-0300

북한 지역연구

가을
2025

통권 제10호

이번호 주제: 황해북도 사리원시(沙里院市)

한국교회의 요람으로 황해도 지역교회와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

사리원의 역사와 공간구조

사리원 도시공간과 일상

평양과 군사분계선을 잇는 황북의 도심, 사리원시 공간구조

사리원 기행: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황해도 중심부

사리원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한위럼(William B. Hunt) 선교사의 재령선교와 한국 장로교회”

황해북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황해도 신천학살 사건의 진실

사리원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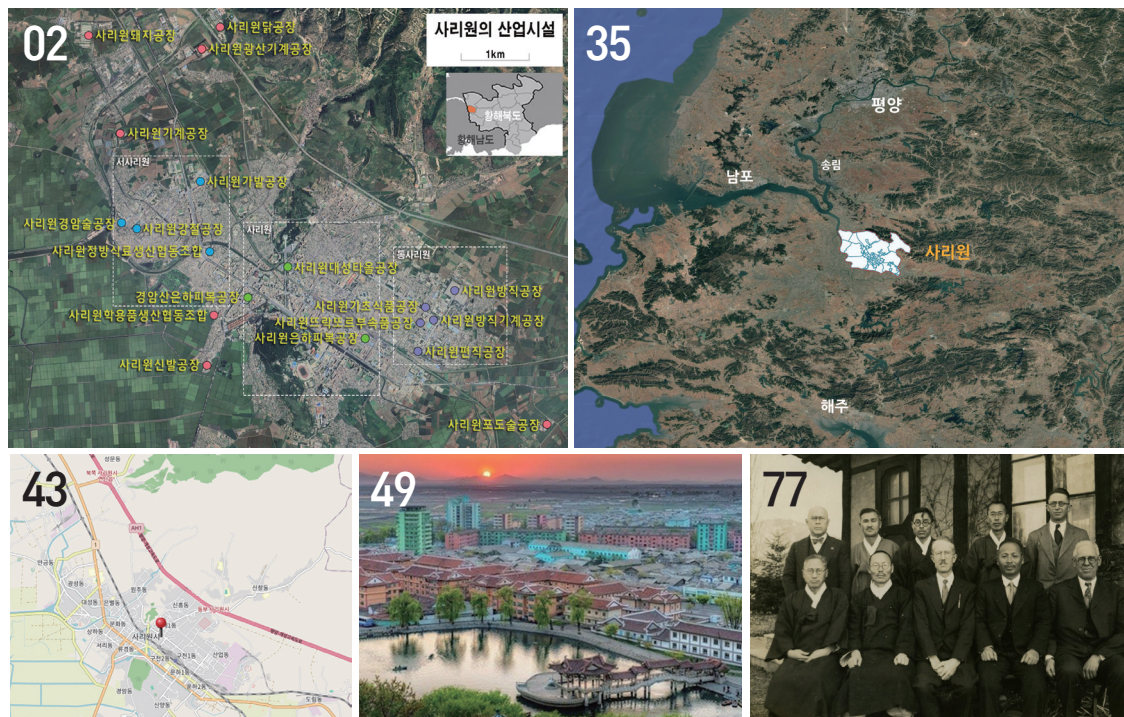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 선교회

2025 가을 통권 제10호

이번호 주제 : **황해북도 사리원시(沙里院市)**



- 02 권두언** - 한국교회의 요람으로 황해도 지역교회와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_ 김성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 21 컬럼 1** - 사리원의 역사와 공간구조
- 35 컬럼 2** - 사리원 도시공간과 일상_ 이시효 (영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
- 43 컬럼 3** - 평양과 군사분계선을 잇는 항복의 도심, 사리원시 공간구조_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소장/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 49 컬럼 4** - 사리원 기행: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황해도 중심부_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 대표)
- 53 컬럼 5** - 사리원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 77 컬럼 6** - “한위렴(William B. Hunt) 선교사의 재령선교와 한국 장로교회”_ 박응규 명예교수 (아신대학교/ACTS, 역사신학)



Cover Story

경암산에서 바라본 사리원 시내 전경
사리원 시내 중심에는 경암산(139m)이 솟아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경암산과 그 일대를 유원지로 개발하였으나 2005년 북한 정권은 그 자리에 민속공원을 조성했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량,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5년 10월 24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84 컬럼 7** - 황해북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_ 이한복 (정선교회 목사)
- 94 컬럼 8** - 황해도 신천학살 사건의 진실_ 한화룡 (백석대학교 은퇴교수)
- 100 사리원의 이모저모**_ 봉산탈춤
- 101 황해북도의 음식**_ 황해도 고수김치 / 참외장아찌 / 사리원 불고기
- 102 사리원의 사람사는 이야기**
- 114 언론에 비친 사리원**_ 북한, 사리원에서 미사일 실험 외
- 119 사리원의 각종 개발 소식**_ 사리원 트랙포르(트랙터) 부속품공장 준공 외

한국교회의 요람으로 황해도 지역교회와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황해도 지역에 최초로 성경이 전달되고(칼 귀츨라프, 1832년), 단기적이지만 선교사의 입성이 있었습니다(로버트 토마스, 1865년).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인 존 로스 목사의 선교 열매가 서상륜, 서경조 형제를 통해서 1883년 황해도 장연군 송천리의 솔내 혹은 소래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인 사무엘 모펏(마포삼열) 선교사가 1890년 한국에 파송되어서, 1893년부터 평양에 주재하면서 1892년 한국에 파송되어 1893년부터 모펏 선교사와 함께 북한의 서북 지역선교를 감당한 그래함 리(이길함) 선교사와 함께 평양 중심으로 황해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북 지역은 크게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과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펏이나 그래함 리 선교사가 황해도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 활동하기 전에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호러스 언더우드(원두우)가 서경조, 한치순 등과 함께 황해도 지역을 방문하여 순회 선교 활동을 하였고, 여러 곳에 교회와 기도 처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 소래교회와 교인들의 희생적인 믿음의 헌신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모펏 선교사와 전도인 한치순은 1893년에 봉산군(사리원시) 당포리에 교회를 세우고, 1894년에는 모동교회를 세웠습니다.

1906년에는 황해도 재령 지역에 선교기지를 설립하고, 재령을 중심으로 황해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선교 활동을 한 윌리엄 헌트(한위렴) 선교

사가 있습니다. 헌트 선교사는 1897년 평양에 파송되어서 어학과 한국 생활을 익히고, 평양 선교부의 선교 정책으로 황해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05년 아내와 아이들을 동반하고, 동료 선교사인 에드윈 쿤스(군예빈) 부부와 의료 선교사인 해리 화이팅(황호리) 부부를 동반하고, 한 달여 재령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부인이 여행의 열악한 환경과 과로에서 얻은 질병으로 소천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차남인 로이드가 또한 소천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헌트 선교사는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재령에서 1906년부터 1939년까지 신실하게 선교사역을 수행하였고, 황해도 전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령은 황해남도에 속한 지역이지만 재령강을 끼고 황해북도 지역과 바로 연결이 되는 전략적으로 황해도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중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는 1909년에 미감리회 선교부와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을 맺고, 황해도 지역에서 장연, 재령, 송화, 은율, 신천, 풍천(과일군), 안악, 곡산과 평산(황북) 지역 등으로 곡산과 평산을 제외한 모두가 현재의 황해남도 지역을 담당하였고, 감리회 선교부는 황해남도 지역으로 웅진, 강령, 해주(벽성군), 연안, 배천 군을 담당했고, 황해북도 지역으로 평산, 신계를 담당하였습니다. 황해도 지역에서 선교 분할협정을 맺기 전에 이미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황해북도의 봉산(사리원), 수안과 서흥 지역은 선교 지역 분할협정에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1883년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1945년 해방 이전까지 황해도 지역에 설립된 교회 수효는 약 670개 교회가 되고, 선교사와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학교 수효는 총 75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 약 3,0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20퍼센트가 넘는 비율입니다.

감리교회는 평양을 중심으로 1900년도부터 황해도 서흥, 신계, 수안 등지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고, 감리교회의 최초 한국 목사인 김창식이 1902년에 평양 선교부에서 신계 지역으로 파송되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서흥과 수안 지역에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양 선교부의 무어 선교사가 1923년에 사리원 감리교회를 세웠고, 1931년에는 사리원 지역이 평양 지방회 소속에서 독립하여 사리원 지방회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황해도 전역에서 감리교회의 수효는 약 140개가 되므로 500여 개의 장로교회의 35퍼센트의 비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12개의 성결교회와 1-2개의 동아기독교회(침례교회)와 10개 이내의 성공회, 구세군 교회가 있었습니다. 황해도 전역에서 장로교회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데는 영국, 네덜란드, 미국에서 기원이 된 개혁주의 신학에 뿌

리를 둔 청교도 신앙과 신학을 가진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신실한 자립정신을 가진 한국인 동역자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황해도 지역교회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일제 식민지 시기에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독립 정신을 가지고 애국 애족의 마음을 품고, 경건하고, 모범적인 목양 활동을 하다가 순교하거나 구금당한 교회 지도자들이 수십 명이 넘고, 해방 이후 북한에 진주한 구소련 스탈린의 공산 군대의 적화 시도에 목숨을 걸고, 항거하다가 순교한 교회 지도자가 거의 동일한 수효입니다. 황해도 지역교회의 신앙 유산은 한국교회의 세대를 이어 계속 계승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황해도 지역교회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런 유산이 북한의 그루터기 지하교회 신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까?

1. 청교도 신앙과 신학, 선교 사상과 방법을 가진 모범적인 선교사들의 헌신과 믿음의 토대 위에 황해도 선교가 수행되었습니다.

황해도 전 지역에서 장로교회의 비율이 약 75퍼센트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과 이유를 탐구하게 합니다. 북한의 서북 지역 황해도 선교지부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를 통해서 세워진 것은 1906년 재령 지역입니다. 그 이전까지 평양 선교부를 중심으로 황해도 선교를 주기적으로 시도한 것은 사무엘 모펫, 그래함 리, 윌리엄 스왈른(소안론)이었고, 가장 초기에는 언더우드와 소래교회 교인들, 전도인 서경조와 한치순 등이었습니다. 소래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인 존 로스 선교사의 중국 동북 지역에서 사역의 결실이었지만 소래교회를 세운 서상륜, 서경조 형제와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돌보고, 신앙교육을 시킨 것은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사무엘 모펫 선교사이고, 평양 주재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전도인 한치순은 황해도 재령의 신환포 지역 유지로서 사무엘 모펫과 그래함 리의 전도를 통해서 1898년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집을 교회로 헌납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와 같습니다. 한치순은 재령에 최소한 3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906년에 황해도 재령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세워졌는데 책임자는 윌리엄 헌트(한위렴)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에드윈 쿤스(군예빈) 부부 선교사, 해리 화이팅(황호리) 부부 의료선교사와 함께 재령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1908년에는 화이팅 부부 의료선교사를 통해 제중원 병원을 설립하고, 쿤스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황해도 전 지역에 약 60개의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서울에 주재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방법이나 평양 선교부를 통한 황해도 지역 선교 방법이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해도 재령 지역 선교부를 담당할 윌리엄 헌트 선교사의 선교 방법은 더욱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으며 온 가족을 동반한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선교 방법의 배경에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청교도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계승되고, 실천된 공동의 신앙 유산과 선교 방법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개인과 가정에서의 철저한 성경 공부와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신조 등을 체계 있게 교육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당시 청교도 지도자인 윌리엄 퍼킨스(황금사슬), 존 오옌(대소요리문답집), 리차드 백스터(개혁목사), 토마스 굿윈(믿음의 본질), 윌리엄 에임스(영국, 네덜란드, 신앙의 정수), 기스베르투스 푸티우스(네덜란드, 교회정치학, 경건훈련) 등에게서 발견합니다. 이들 청교도 지도자들의 사상의 핵심은 성경의 권위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신앙교육의 강조와 신앙과 실천의 유기적인 통합으로서 신앙과 도덕적 실천이 일치되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분들은 가정교육이나 일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 청교도 지도자는 공통으로 대위임령의 선교의 사명을 교회의 본질로 보았으며 타문화권 선교의 중요성을 논하고, 선교를 위한 전문적인 봉사기구를 설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영국과 네덜란드 청교도 지도자들의 사상과 삶의 영향력은 이분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국의 초기 정착자로서 청교도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발전이 됩니다. 윌리엄 에임스와 매사추세츠 초기 총독이었던 청교도 지도자인 윌리엄 윈스롭과의 친밀한 교제와 백스터와 쉘스의 후원을 받았던 존 엘리오프의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선교사역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뉴잉글랜드 지역과 미국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윌리엄 퍼킨스, 에임스, 오옌, 푸티우스의 저서가 신학교의 교과서로 가르쳐졌습니다.

초기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 지도자들은 영국과 네덜란드 청교도 지도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것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신학적으로 언약 사상을 교인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하는 일과 일반 문화 영역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Preparation Grace)”에 대한 확신 등입니다. 청교도 사상에 영향을 받은 신자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개인적인 삶이든지 공적인 삶이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 책임을 다하고, 언약적 삶을 통한 문화

변혁과 거룩한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방신학(연약신학)으로 발전이 되었고, 청교도 사상을 가진 장로교 신자들로 하여금 개인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개혁주의 신조와 신앙고백을 체계 있게 가르치는 일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과 세속에서의 삶이 유리되지 않고, 통합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선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인으로서 책임성 있는 선교적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사상이 “언덕 위에 교회와 도시” 개념으로 나타났고, 윈스롭의 “명백한 천명(Manifesto Destini)”이나 코튼 마터의 “그리스도에 의한 아메리카의 위대한 행적(Magnalia Christi Americana)”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 전통에 있어서 해외선교, 타문화권 선교의 중요한 신학적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계승한 영국의 “교회선교회(Church Missionary Society)”의 총무였던 헨리 벤과 미국 최초의 “해외선교부(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의 총무이었던 루푸스 앤더슨은 해외선교에 있어서 자급, 자치, 자전의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의 장로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각인이 되는 선교 원리였습니다.

18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청교도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시작이 된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이 일어났습니다. 에드워즈는 말년에 스톡브리지 지역에서 인디언 선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에드워즈의 대각성운동은 미국에서 일어난 제1차 복음주의 각성 운동의 시발점이었고, 초교파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이후 19세기 초에 미국의 대학가에서 일어난 기도와 성경 공부, 선교 운동의 제1차 복음주의 각성 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886년 드와이트 무디와 연관이 되어서 일어난 제2차 복음주의 각성 운동의 씨앗이었습니다. 무디는 평신도 전도자로서 청교도 신앙과 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나 그의 전도 방법은 즉각적인 회심을 촉구하는 대중화된 인위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디의 영향력은 미국과 영국에서 초교파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제1차 복음주의 각성 운동의 열매와 비슷하게 초교파적인 연합기구로서 “신학교 간의 연맹(Inter-seminary Alliance)”을 결성케 하여 국내외의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에 한국 땅에 파송을 받은 미북장로교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모펫, 윌리엄 스왈른(소안론), 윌리엄 베어드(배위량), 윌리엄 블레어(방위량), 그래함 리, 헌트(한위렴), 호러스 알렌(안련) 의료선교사 등은 모두 미국의 청교도 신앙과 사상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형적인 장로교회의 선교사들

이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에 소재한 매코믹 신학교(McCormic Theological Seminary) 출신으로 모펫, 그래함 리, 스왈른, 블레어 등이 있습니다. 매코믹 신학교의 신학 전통은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과 신학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각성 운동에 개방적이었고, 해외선교를 강조했습니다. 교수진을 보면 17-18세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되어서 미국에 정착되어 뿌리를 내린 청교도 신학 사상과 언약 신학과 신앙과 삶의 유기적 연합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청교도 사상에 뿌리를 내린 장로교회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주요 교수진으로 변증학 및 교의학을 가르친 윌리스 그린 크레이그 교수와 성경 신학을 가르친 앤드류 제노스 교수, 변증학과 선교학을 가르친 벤자민 루이스 홉슨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1939년까지 한국에 파송된 매코믹 신학교 출신의 미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수효는 모두 60여 명에 이릅니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으로 한국에 파송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는 북한의 황해도 재령 지역 선교 책임자였던 윌리엄 헌트 선교사와 20세기 초에 파송된 프랜시스 킨슬러(권세열), 월터 어도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다음 세대의 선교사 자녀로서 윌리엄 헌트의 아들인 부루스 헌트(한부선), 호러스 언더우드의 아들들은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사무엘 모펫 선교사의 아들인 사무엘 휴 마펫(마삼락) 선교사는 프린스턴을 1942년 졸업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1929년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존 그레샴 메이천 교수가 동료 교수인 오스왈드 엘리스, 코넬리우스 반틸 등과 함께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기까지 미국의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고수하는 대표적 신학교였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진을 보면 성경의 권위와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면서 성경 비평학과 다윈주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신약학과 교의학을 가르친 벤자민 워필드 교수가 있었고, 개혁주의 관점의 성경 신학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게르하르두스 보스 교수와 찰스 핫지와 그의 아들인 아치볼드 핫지의 신학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윤리학 및 변증학을 가르친 프랜시스 패튼이 있었습니다.

선교학 전담 교수는 없었으나 프린스턴 대학과 신학교 출신으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극동지역 담당 책임자였던 로버트 스피어가 이 시기에 오랫동안 선교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약 60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대표적인 저서로는 “선교 원리와 실천(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인간 바울에 관한 연구(Studies of the Man the Paul)”. “해외선교의 미완성된 임무(The Unfinished Task of Foreign Missions)” 등이 있습니다. 스피어는 제2차 북

음주의 각성 운동의 중요 학생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초교파적 연합 활동에 앞장을 섰으나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책임자로 젊은 나이에 임명이 되어서 46년 동안(1891-1937) 북장로교의 해외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선교 사상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시킨 전형적인 청교도 선교 사상이었고,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의 목표를 자급, 자치, 자전의 토착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교육과 의료 선교를 병행하는 총체적인 선교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토착교회 지도력을 세워서 원주민 교회 지도자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토착교회가 자급, 자치, 자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청교도 선교 사상일 뿐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선교 원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사상과 선교 방법이 1899년 한 달여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 북장로교 한국 주재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을 때 나타났으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공부하였던 하노버 대학교, 파크 대학교, 레익 포레스트 대학교 등은 미국 장로교회가 세운 교육 기관들이었으며 청교도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고, 드와이트 무디가 일으킨 제삼차 복음주의 각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교 지향적인 학교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졸업한 뉴브런즈윅 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는 미국에 정착한 네덜란드 개척교회가 세운 학교이었으며 영국, 네덜란드 청교도 전통이 강하고, 미국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각성 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선교를 강조하는 선교 지향적인 신학교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청교도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장로교의 대학과 신학교들이 거의 대개 미국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각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선교 지향적인 학교들이었습니다. 1886년 드와이트 무디로 인해 일어난 “학생 자원 선교 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과 “신학교 간의 연맹(ISA)” 등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해외선교의 대의를 가진 학생들이 다양한 연합 활동을 하였고, 함께 기도회를 가졌으며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선교사가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전통적인 청교도 사상에 뿌리를 둔 모든 선교 방법이 꽃을 피운 지역이 한국이었으며 그중에 황해도 지역이었습니다.

북한 서북 지역 선교 개척자가 되는 사무엘 모팻이나 황해도 재령 지역 선교부의 책임자였던 윌리엄 헌트나 성경의 권위에 기반을 둔 철저한 성경 공부와 장로교의 신학 정통을 나타내는 개혁주의 신앙고백과 신조, 대소요리문답 등을 처음부터 한국 교인들에게 교육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반과 성경학

교 등을 세워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황해 노회는 1915년 조선 예수교장로회 4차 총회 회의록 보고서에서 한 해 동안 황해도에서 239차의 사경회가 열렸으며 황해도 교인들의 약 32퍼센트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북한 서북 지역에서의 사경회는 종종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의한 “참된 부흥 운동(True Revival Movement)”과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스왈른, 그레함 리, 블레어 선교사 등이 순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경회를 인도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들 선교사는 모두 학생 시기에 복음주의 각성 운동을 경험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로서 찰스 핫지나 벤자민 워필드가 우려하는 잘못된 부흥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깊게 공부하는 사경회 문화를 교회 안에서 정착시키고, 참된 부흥을 통한 성령의 임재와 비상한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을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체험케 함으로 세상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사모하는 영적으로 권세 있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블레어나 스왈른, 한위럼 선교사의 아들인 부루스 헌트(한부선) 선교사가 그들의 자서전이나 “조선의 부흥”을 논하는 책을 저술하면서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경회는 황해도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성경 공부반과 성경학교 설립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령 지역에서 1910년 헌트 선교사를 통해 재령 성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1905년부터 시작이 된 성경 공부반이 발전되어서 수백 명이 모이는 가운데 성경학교가 세워지고, 1914년에는 여자 성경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파송이 된 미국 북장로교의 독신 여성 선교사로서 안나 매키(기아나), 캐더린 매쿰(윤가태) 등이 여성 성경학교에 헌신하였고, 거의 15년 동안 재령에 머무르면서 재령을 중심으로 황해도 전 지역을 순회하며 여성들을 위한 사경회와 성경 공부반을 조직했습니다. 매키 선교사는 1927년 평양 여자 성경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당시에 단일 성경학교로는 세계 최고의 규모였습니다.

황해도 재령 지역의 장로교 선교사의 선교 방법은 이미 언급했지만,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세워나가는 총체적인 선교사역이었습니다. 에드윈 쿤스 선교사는 재령에 헌트 선교사와 함께 명신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선교사의 학교 설립은 선교사가 주도하지 않고, 지역교회가 현지의 필요 때문에 세우도록 하였으며 교과과정과 학교 운영은 선교사가 도왔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지 교회가 학교 운영도 할 수 있게 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가 60여 개가 넘었습니다. 쿤스 선교사는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제

식민 당국의 신사참배 강요와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 관련 과목들을 못 가르치게 하자 이를 항거하다가 1941년 일제 식민 당국에 의해 미국 간첩 혐의로 거짓 모함을 받고,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서북 지역 특히 황해도 재령 선교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 활동은 북한이 공산화되고, 교회와 교인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굴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날도 신앙인으로 생존케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초 중엽에 제삼국에서 인편으로 북한의 서북 지역 장로교 뿌리 신자인 지하교회가 보내온 다양한 성경학교 교재와 성경 공부 주해서, 신학 관련 교재 등이 거의 100여 권이 됩니다. 여기에는 성경 잡지(Bible Magazine) 시리즈가 있고, 창세기, 고린도전후서, 신약주석, 고교회변증론, 요한행전, 성경요람, 주일학교교수법, 교회사기 등 다양한 성경 공부자료가 있고, 출판 시기는 1908년부터 1920년대 말까지입니다.

주목할 것은 황해 노회에서 추천한 김익두 목사의 설교집으로 “信仰의 路”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황해도 안악군 출신으로 과거에 낙방하고, 그 충격으로 부친이 돌아가시자 자포자기하고, 방탕하여 신천 시장을 중심으로 포악한 갯패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밑바닥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스왈론 선교사가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였는데 거기에 참석하여 “영생”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듣다가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이후 기도 생활에 전념하며 신약성경을 100독을 읽고, 재령읍 교회의 집사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크게 성장시키고, 1933년 신천 동부교회가 분립 개척되어 나가자, 교회 명칭이 신천 서부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성장하였는데 1920년에 조선장로교 총회의 9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사경회를 부흥 운동과 연관시켜서 활동하였는데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황해 노회장으로 있던 임택권 목사가 조사하고, 스왈론 선교사가 지원하는 “기적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린스턴 출신의 선교사들은 신학교 재학 중에 이런 기적의 은사는 사도 시대와 성경이 정경이 되므로 종결되었다는 “은사 중지론”의 신학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이런 신학적 전제는 선교 현장에서 원주민 교회 지도자인 김익두 목사의 사역 현장에 너무 많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의료선교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가운데 기적을 입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일부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칭의와 성화에 국한하는 제한된

신학 관점에 대한 패러다임 쉬프트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청교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선교 상황이나 복음이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전달이 될 때 교회공동체에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때론 기적의 은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개연성의 신학 이론 가운데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그의 목회 사역 기간에 약 2만 8천 번의 설교를 했으며,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와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와 죄의 회개를 특별하게 강조했습니다. 그의 감화를 통해서 200여 명이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위대한 전도자이며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조선기독교도 연맹의 총회장으로 추대되어 북한 공산정권에 이용을 당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산당의 어떤 회유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목회에 전념하다가 1950년 10월 13일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던 중에 퇴각하던 북한 군인들에 의해 사살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와 교인을 지키며, 목사로서 끝까지 교인들을 돌보다가 순교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대기근과 홍수가 일어나던 시기에 모두가 굶주림에 시달리며 북한 주민들이 아사에 직면할 때 할아버지의 순교를 새벽 기도회에서 잠자다가 지켜보았던 그의 친손자가 장성하여 중국의 친인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머무르며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교육을 받고서 북한으로 귀환하였는데 북한에서 신앙인으로 활동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그의 할아버지처럼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의 아내가 남편을 좇아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중국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북한으로 돌아가서 활동하다가 회령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용된 교인들과 비밀리에 암호를 정하고, 화장실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써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거리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전 세계 나라들의 교회와 교인들을 방문하여 북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온 가족을 거느리고, 제삼국을 통해서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심으로 약 30개국 이상의 나라들을 방문하여 현지 교회와 교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북한 교회와 교인을 증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서북 지역, 황해도에 뿌려진 참된 복음의 씨앗은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준동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위에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교회 출신으로 한

국 전쟁 중에 남한으로 와서 한국 장로교회의 총회장으로 활동하였던 분이 거의 7~8명이 됩니다. 황해도 지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미 큰 나무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한 것입니다.

2. 황해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 없다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 한국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들의 저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저서로서 윌리엄 블레어의 “한국에서의 황금(Gold in Korea)”이 있고, 제임스 게일(기일) 선교사의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Korean Sketches)”과 호러스 언더우드의 “한국의 부름: 정치, 사회, 종교적 측면에서(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 등의 저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일제 강점기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섭리적으로 부르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선교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령에 자신의 집에서 신환포 교회를 세운 한치순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평양에 갔다가 우연히 사무엘 모팻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평양에 머무르면서 한 달여를 모팻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팻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헌트 선교사가 재령에 선교부를 설치할 때 한치순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가 이미 많은 교회를 개척, 설립하지 않았다면 선교부 설치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었습니다. 한치순은 전도인으로 헌신하여 재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안악군, 봉산군 등에 9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모팻 선교사와 함께 재령강을 끼고, 인접한 봉산군 당포리에 가서 순회 전도 활동을 할 때 오봉서 부부에게 전도하여 이 부부를 통해서 1893년에 당포리 교회를 세우고, 1894년에는 오늘의 사리원시 미곡동 지역을 모팻과 함께 방문하여 지역 유지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모동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동교회가 사리원 지역교회의 모판이 되어서 사리원읍 교회를 1894년에 세웠는데 1914년 사리원 북부교회가 나뉘고, 이후 계속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므로

사리원 동부(1922), 남부(1940)교회로 나뉘므로 사리원읍 교회는 사리원 서부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리원 지역에서의 교회 설립은 모팻 선교사와 재령의 전도인 한치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헌트가 세운 재령 성경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후에 평양신학교로 편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재령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재령읍 교회의 정찬유 장로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해도 재령 지역의 갑부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재령 사람 송정신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재령읍 교회당 건물을 세우는 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06년에 그는 3만 원의 건축헌금을 했는데 지금 시세로 약 60억 원이 넘는 헌금 액수였습니다. 당시 북장로교 선교 현장에서 원주민 교인이 이런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건축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당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일본에 사람을 보내어 공부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당 건물을 지었습니다. 약 1,000명 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본당 구조와 2층은 일본에서 수입되어 들어온 7가지 색깔의 채색을 입힌 특수 유리로서 교회를 장식하였습니다. 교회당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십자가를 형상화했습니다. 1922년에 재령읍 교회에서 재령 서부교회가 분립되어 나가게 될 때 재령읍 교회는 재령 동부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재령 동부교회는 황해도 재령 지역뿐 아니라 황해도 지역선교의 중심 기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령 성경학교가 재령 동부교회에서 설립이 되었고, 명신 학교를 세우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섭리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정찬유 장로의 헌신과 희생적 섬김은 황해도뿐만 아니라 서북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명신 학교는 평양의 숭실, 선천의 신성 학교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의 서북 지역 교육 선교사역에 귀중한 열매였습니다.

오늘의 황해북도 수안군 지역에 1896년에 두대동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안군 대정리 두대동에 살고 있던 김수봉, 김수규 형제가 서울에 여행 왔다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회심하게 되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전도하여 두대동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894~5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을 피해서 한석진과 최치량이 수안군 강진동으로 피난을 왔는데 이들의 전도로 수안군의 두 번째 교회인 강진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모팻, 그래함 리 선교사가 순회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 수안군 전역에 여러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황해북도 곡산군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무능리 교회입니다. 무능리에 거주하는 조문백, 이태겸, 이치겸, 김해득 등이 조선인 전도인에게 전도 책

자를 받게 되고, 이것이 올바른 진리의 길인지 알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전도 책자를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베뢰아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수소문하여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일 년여 머무르면서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고향 무능리에 돌아가서 열심히 전도하여 무능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무능리 교회를 발판으로 언더우드, 서경조 등이 순회 선교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곡산읍 교회, 화천리 교회 등을 계속해서 세울 수가 있었고, 교회는 곡산군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제1호 목사로서 김창식은 황해도 수안군 생금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어린이들의 눈알과 간을 약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빼 간다는 소문을 듣고, 의분이 충천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프랭클린 올링거(무림길)의 가정에서 고용인이 되어서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올링거 선교사 부부의 인격과 언행과 모든 경건한 행실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 알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김창식은 윌리엄 홀 감리교 의료선교사 부부와 함께 평양에 정착하여 남산현 교회를 세우고, 광성 학교를 세우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1901년 5월 14일 한국 최초의 목사로 장립 받았습니다. 이후에 감리교 평양 선교부에서 1902년 김창식 목사를 황해도 신계(황북)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는 신계를 중심으로 주변 서흥과 수안에 순회 전도 활동을 함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서흥의 두무골 교회, 봉산군의 사리원교회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1939년 감리교의 통계 수치를 보면 사리원에 1개의 교회, 봉산군에 4개의 교회, 수안군에 4개의 교회와 서흥군에 8개의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황해도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는 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여행하는 도중에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장기간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자 마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헌납한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므로 아무리 갑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현 시세로 60억 원이 넘는 건축현금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참된 신자만이 결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 책자를 받고, 이것이 진리의 길인지를 알기 위해서 친한 친구와 함께 수개월의 기간을 탐독하며 연구하고, 보다 확실한 진리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서울에 있는 선교

사에게 찾아가서 일 년여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현대 교인에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진리 탐구에 대한 간절함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예비하신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성령의 예비적 은총이었고,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 구원 사역의 은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김창식 목사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잘못된 소문에 기반하여 오해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찾아왔고, 순수한 마음에 진리를 발견하자 주저 없이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황해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북한 선교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북한 내에서 “제일차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와 혼란과 국가 질서가 거의 붕괴하는 일이 없었다면 김익두 목사의 친손자와 그의 부인이 중국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중국의 문이 열리고, 국가 교회 체제라도 교인들이 정해진 규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면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절망적 상황이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선교 일꾼들에게 종종 체험됩니다. 북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 항상 있었고,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청교도 선교 사상은 일반 문화 영역으로서 보통 은총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칼뱅이 일군의 선교사 팀(13명)을 브라질 리오 네 자로 근교 인디언 원주민 마을 지역으로 보냈을 때 식인풍습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제네바 선교팀이 동료 위그노 총독에게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한 사람 레비 전도사가 인디언 마을로 숨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권선징악의 원시적 윤리 체계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형벌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비가 이런 원주민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인디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항 없이 이해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짧은 기간이지만 체험하였습니다. 개혁주의 선교 사상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뿐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선교사들

이 종종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기니 깊은 정글 지역에서 식인풍습과 배반의 문화로 악명이 높았던 사위(Sawi) 종족을 복음화 한 돈 리차드슨 선교사 부부도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을 발견하고 나서 ”화해의 아이(Peace Child)“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2000년대에 황해도 지역의 정부 기관의 책임자로 있었던 분이 공무로 제삼국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삼국에서 친인척을 만나고 나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같은 공간에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가 오고 갔고, 그는 조선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쌀독이 비어 있는데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선교 초기에 황해도 지역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3. 황해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복음주의 선교 사상과 초교파적 ”복음주의 각성 운동“의 시혜자로서 뜨거운 구령의 열정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과 대위임령의 선교 명령을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공통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들은 유럽 대륙에서 계승된 청교도 선교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겠다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들은 유럽 웨슬레이안의 전통을 가지고, 개인의 성결을 강조하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자원을 총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으로서 선교 사명에 순종한다는 헌신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감리교회 내에서 개인의 성결을 더욱 강조하며 전도와 선교를 중시하는 성결교회가 몇 갈래로 탄생했는데 그중에 동양선교회 성결교에 속한 선교사들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의 신학을 가지고 한국인들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지상 대명령을 성취함에 현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침례교회의 해외선교는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 공식적으로 19세기 초에 시작이 되었는데 한국에 정착한 침례교회는 독립 선교사로 온 말콤 펜윅을 통해서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한국 개신교회의 선교 활동은 선교사들의 후원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1912년 이전까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하와이, 시베리아, 중국 동북 만주 지역, 일본 등에 흩어진 동족 한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디아스포라 선교를 수행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장로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했는데 만주에 주재한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를 통해 한국에 성경 보급하는 문서선교를 시작했기에 이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첫 신자로서 서상륜,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서간도 지역에서 문서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이에 정착한 한국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요청하자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1903년에 홍승한 전도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의 선교가 의미 있는 것은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1907년에 결성이 되자 독노회를 통해서 당시 타문화권 선교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를 파송한 것과 1909년에는 시베리아와 동경에 디아스포라 한국인과 유학생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선교사로서 최관홀 목사와 한석진 목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세워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이렇게 해외 거주 한국인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리교회도 이 시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와이 이민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인 전도인들을 파송하고, 장로교회와 동일하게 북만주, 몽고, 일본, 시베리아 등지에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김일성이 중국 길림시의 육문 중학교를 다닐 때 공산 청년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적발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아버지 친구이며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손정도 목사가 길림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사실을 그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가 1912년에 시베리아로 한국인 디아스포라 동족 선교를 위해 파송이 되었는데 후에 만주 지역으로 옮겨서 활동했습니다. 침례교회는 말콤 펜윅 선교사가 순회 전도팀을 만들어서 원산을 선교 본부로 하여 장로교와 감리교와 다르게 선교지 분할협정과 상관이 없는 변방 지역 개척 선교를 수행했고,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까지 디아스포라 한국인 선교를 광범위하게 시작했습니다. 성결교회는 김상준, 정빈 두 청년이 일본 동경에 가서 동양선교회 창설자가 되는 카우만(Charles E. Cowman)과 길보른(Ernest A. Kilbourne)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선교사가 세운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졸업한 이후 한국으로 와서 서울에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후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서학원을 세운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서

울에 세워진 성서학원 출신 전도사들이 자발적으로 침례교회와 비슷하게 국내의 미개척, 변경 지역을 찾아서 순회 전도, 축호 전도, 장막 전도와 각종 사경회, 기도회 등을 통해서 성결교회를 확산시켰습니다. 해외선교는 다른 교회보다 다소 늦었는데 1925년 만주 용정에 한국인 동족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이원근 전도사를 파송한 것과 이후 만주 전역에 전도사들이 파송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1927년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동양선교회 성결교회가 일본의 한국인 동족을 위한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동경 성서학원 출신들을 일본에서 활동하게 했습니다.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때 총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타문화권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총회 선교부에 속해서 총회가 중국에 타문화권 선교를 시작하도록 한 배후에 윌리엄 헌트(한위렴) 선교사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인 선교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황해도 재령 지역에서 성경학교를 운영하면서 자급, 자치, 자전의 토착교회 설립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시행하는 것뿐 아니라 황해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학생들을 교육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그로 하여금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하여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지 동료 북장로교 현지 선교사들과 의논했고, 총회에서 타문화권 해외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하자 황해도 재령 선교 본부가 있는 지역에서 재령읍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박태로 목사를 첫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고, 신천 지역에서 목회하던 김영훈 목사를 선교사로 헌신케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사병순 목사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 모두가 북한의 서북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타문화권 해외선교사가 모두 황해도와 서북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이 기반이 된 청교도 사상과 실천의 교육과 선교 훈련을 받고, 복음주의 각성 운동의 학생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대위임령의 선교 사명에 충실하며, 교회공동체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록 초창기이지만 한국교회도 해외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학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타문화권 해외선교가 한국교회가 조직 교회로 성장하자마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이 북한의 서북 지역 특히 황해도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하에서 신앙 활동을 해야 하는 그루터기

북한 신자이지만, 초기의 청교도인들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순교의 순례길을 걷는 중에 미국에 정착하여 세계 선교에 앞장을 섰듯이, 다시 한번 북한의 그루터기 지하교회 지도자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북한의 서북 지역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선교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십시오. 전 세계가 장미 복음화된 종족과 종족그룹과 언어와 방언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선교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은 지금도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을 성경 다음으로 애독하며 순례의 길이 승리의 길로 전환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 황해도 지역 그루터기 교회공동체와 신자들이 남한 교회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만으로 밀파되어 활동하던 북한의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부부장을 역임했던 박병엽(신평길로도 불림)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어 전향한 이후에 황해도 지역 지하교회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1950년대 말에 재령 지역에서 송목사로 알려진 분이 재령 주변 안악, 신천 지역에 200여 개의 소단위 조직을 만들고, 전체 구성원이 5,000여 명 되었다는 것입니다. 송목사와 핵심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고, 신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지만 전체 구성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일성의 지시로 전국적인 지하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소탕 명령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의 비밀경찰인 보위부가 밀정을 잠입시켜서 적발한 차덕순 자매의 “하나님 왕국 조직 사건”은 황해도 과일군(해방 전 풍천군)을 중심으로 안악, 신천, 사리원, 함흥, 청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지하교회 조직의 중심은 황해도 재령, 사리원, 안악 지역의 그루터기 신자들이었습니다. 500여 명이 체포되고, 차덕순 자매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거의 처형당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김정일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고, 이후 특별 지시를 내려서 전국적으로 지하교회와 교인들을 소탕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안전부와 보위부 요원들에게 지하에 숨어 있는 교회와 교인을 적발하고, 소탕하는 교육을 하며 중국이나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모든 기독교 선교 활동에 대한 단속, 적발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90년대 말에 제삼국에서 차덕순 자매와 교류하고 있었던 북한의 함경도 지역 교인들을 통해서 차덕순 자매의 순교 소식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지하교회는 보위부가 위장하여

사리원의 역사와 공간구조

사리원의 역사

사리원과 그 주변에서는 선사시대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주로 사리원 외곽에 위치한 지탑리와 송신리를 비롯하여 사리원-봉산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원시사회부터 사리원과 봉산 지역에는 군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인 4세기 초반 사리원 주변에 휴류산성(鵠鷄山城)이 축조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지역에서 고구려의 고분군이 발견되는 등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도 발전된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중심도시인 평양과 개성 사이에 위치하여 성종 14년(995년)에는 방어사(防禦使)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방어사가 폐지되었다가 충렬왕 11년(1285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사리원은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를 거치며 휴남군, 서암군, 황주군 등에 속했고 조선초 1413년부터는 봉산군에 속하게 되었다. 원래 명칭은 사리(沙里)였고 ‘원(院)’은 조선시대, 교통의 요지에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을 위해 세운 숙박시설을 의미했다.

사리원이 속했던 봉산군은 조선시대 10대 간선로 중 가장 중요한 도로인 의주대로가 지나던 곳이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평양과 개성을 오갈 때 지금의 연탄군과 봉산군의 경계에 있는 자비령(慈悲嶺)을 넘어야 했다. 그러나 자비령에서 호환(虎患)이 자주 발생하여 조선시대부터는 자비령 길을 폐쇄하고 현재의 사리원 정방산 동쪽에 있는 동선령(洞仙嶺)을 지나는 길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동선령 남동쪽에 위치한 사리(沙里)의 교통이 발달하여 역원이 설치됨과 동시에 황해도 육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5세기 중엽 사리원이 속한 봉산군의 인구는 총 1,564호 6,200명으로 황해도에서 해주 평산 다음으로 큰 도시로 성장한다.¹⁾

1)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지리지2』 (서울: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2025) p. 207.

지하교회로 잠입하게 하는 밀정에 대한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식별하며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2018년도에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 씨는 북한에 숨어 있는 지하교회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90년도 중엽에 일어났던 차덕순 자매의 순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북한 당국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건 내막을 각색하여 “종교 미신은 반역의 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며 지하교회와 교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갖은 시도를 합니다.

최근 제삼국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다시 한번 황해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제삼국과 관련하여 지하에 숨어서 활동하던 교인들이 적발되고, 처형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십 명이 적발되고 수십 명이 처형되고, 수백 명의 가족 식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확실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전달해 온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 교인들이 적발되었을 때 신앙을 부인하고, 북한 정권에 충성 맹세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되어 온 소식은 한 사람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장렬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1950년도에 재령 지역에서 순교했던 진학철 목사의 절규 어린 기도가 지금도 황해도 교인들에게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재령 성경학교 출신으로서 1932년도에 27회 평양신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는 단포, 계동, 장연, 단장리, 유포 교회에서 시무했습니다. 그가 북한 공산 군대에 의해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드려진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도 동족입니다. 저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황해도에 있는 교회와 교인은 지상에 보이지 않지만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각자들에게서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육신의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사꾼처럼 가장 값비싼 하늘나라의 진주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금으로 단련되어서 진학철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모든 증오와 악의보다 강하고, 강합니다. 이것이 황해도 지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저희 남한에 있는 교회와 교인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며 도전입니다. 🙏



사리원의 북쪽에 위치한 정방산성(사진: 평화문제연구소)

1905년 11월 일본에 의해 개통된 경의선이 사리원 시내를 지나게 되며 사리원은 더욱 발전한다. 1911년 8월 1일 매일신보는 “사리원의 유망(有望)”이라는 기사를 통해 사리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기사에 의하면 당시 사리원의 인구는 일본인 152호 451명, 조선인 1,300호 8,126명으로 총 8,577명을 기록했다. 이때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경작지 1,600여 정보(町步), 흥업회사

는 600여 정보를 경작하여 상당한 이익을 내었다. 1912년 12월부터 사리원은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봉산읍에 있던 봉산군청이 사리원으로 이전하며 사리, 사원리를 비롯한 현재의 사리원 시내 지역이 봉산군 사원면으로 승격한다. 1929년에는 사원면이 사리원면으로 개칭된다. 1936년에는 해주선(사리원-해주), 1937년에는 장연선(사리원-장연)이 개통되며 황해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1939년에는 사리원읍으로 승격하였다. 일제강점기 말 사리원읍은 12개의 리와 25개의 구로 확장되었으며 인구도 5만 명이 넘게 되었다.

황해도는 평야가 발달하여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철도 교통이 발달하며 사리원은 황해도의 농산물이 모이는 집산지가 됨과 동시에 제분업을 비롯한 식품 가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기구 공업, 견직 산업, 곡물을 활용한 목축업 등도 함께 발달했다. 동시에 시장도 발달하여 일제강점기 사리원읍을 서리에 있는 양돈시장과 북리의 우시장도 활성화되었다.

해방 후 1947년 사리원읍이 봉산군에서 분리되어 시로 승격했다. 6.25가 끝난 후 북한은 사리원

복구를 위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때 사리원을 문화도시로 재건할 것을 천명하여 경암산 기슭의 시 중심부에 광장을 설치하고 광장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개발했다. 1954년에 발표된 사리원 도시발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 중심부의 광장은 경암산 쪽 기슭에 자리 잡게 되며, 시 영역의 발전방향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기성시가지를 복구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며, 구천리 및 백원리도 새로운 시가지로 발전될 것을 예견한다. ...도시는 3층 건물을 주로 하여 설립될 것으로 시 중심부에서는 도시구성

상 4층 건물까지가 예견되었다.

- 시내 도처에는 문화휴식공원, 정원, 가원, 유보도 등이 설비되며, 일체 소음과 먼지를 도시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거주지역과 산업지구 간에는 보호녹지를 설정하게 되며 도시 주위를 광범위 녹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2)

1954년 10월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함경도가 함경남도와 북도로 분리될 때 사리원은 황해북도의 도소재지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사리원을 수식하는 말로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도시이자 웅장하고 화려한 문화도시”라는 말이 등장하여 자주 쓰이게 된다.

조선노동당 창건 20주년인 1968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강건을 기리기 위해 사리원시에 강건의 동상을 세우고 운하2동에서 북사동에 이르는 강건거리를 조성하였다. 강건은 6.25 당시 북한의 총참모장으로 1950년 9월 8일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북한이 칭송하는 빨치산 영웅들의 기념사업은 주로 그들의 고향에서 이루어지지만 강건의 고향은 북한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상북도 상주이다. 이런 관계로 북한은 강건이 거주했던 사리원에 강건을 기념하는 지명, 기관을 만들어 그를 칭송하고 있다. 사리원 시내에는 강건거리를 중심으로 강건대학과 강건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강건거리에 위치한 강건 약학대학. 조선노동당 창건 20주년인 1968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강건을 기리기 위해 사리원시에 강건의 동상을 세우고 운하2동에서 북사동에 이르는 강건거리를 조성하였다.(사진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교통과 지리

사리원시는 황해북도의 도소재지로 황해북도의 서부에 위치하여 시의 북부는 황주군, 북동부는 연탄군, 동부는 봉산군, 남부는 봉산군과 맞닿아 있으며, 서부는 재령강을 사이에 두고 황해남도의 재령군, 안악군과 마주보고 있다. 도시의 서쪽에는 재령강 본류가 흐른다.

사리원은 지명에 붙은 원(院)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대부터 이미 황해도 교통의 요지였다. 사리원에는 서울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³⁾과 사리원-해주

2) 박세훈 외,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서울: 국토연구원, 2016) pp. 107, 108.

3) 1948년 북한은 철도 노선의 명칭을 평양을 중심으로 개칭한다. 이때부터 북한에서 경의선은 평의선으로, 경부선은 평부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사리원청년역, 사리원에는 서울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과 사리원-해주를 연결하는 황해청년선이 지난다.

를 연결하는 황해청년선이 지난다. 사리원청년역에서 평양역까지는 8개 역을 지나며 개성방향으로 평산역에서는 청년이천선(황해북도 평산 - 강원도 세포)이 분기하며 세포에서 강원선으로 갈아타면 원산에 닿는다. 황해청년선은 1936년 해주선이라는 이름으로 개통하였다. 이 노선은 황해도를 종단하는 간선철도로 사리원에서 출발하여 송산, 은파, 하성을 거쳐 해주청년역, 해주항역에 닿는다. 평양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북쪽으로 향하는 관문

이 순천이라면 남쪽으로 향하는 관문은 사리원이다. 평양에서 황해도와 강원도로 향하는 대부분의 열차가 사리원을 지난다. 그러나 이 중 경의선과 황해청년선을 제외한 나머지 철도 노선들은 철길 노후화와 전력 사정으로 1990년대부터 운행이 거의 중단되었다. 사리원청년역은 곡산군, 신계군, 연산군을 비롯한 황해북도 곡창지대의 쌀과 옥수수, 고구마 등이 많이 집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

강원도와 황해도의 남부는 접경지역으로 일반 주민의 통행이 제한된 구역이 많다. 또한 접경지역의 철도 노선은 함북선, 자강선, 평북선, 황남선 등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사리원에서 환승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최대의 시장으로 알려진 평성시장의 물류가 강원도나 황해도 남부로 향할 때는 사리원에서의 환승·환적을 거치게 된다.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시기 사리원은 개성공단 상품의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여 사리원에서 개성공단 상품 및 남한 상품이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개성공단의 물건은 공식 시장이 아닌 개인집과 창고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리원은 평양-개성 고속도로의 중간지점, 평양의 남쪽 60km 지점에 위치하여 평양까지 차로 1시간이면 당도한다. 신의주-평양-서울-목포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의 중앙에 있으며 평양, 개성과 고속도로, 국도로 동시에 연결되어 평양까지 국도로는 2시간이 걸린다. 사리원-해주, 사리원-신천 간에도 포장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 도로는 일제강점기에 들어 크게 개발되었는데, 당시 자료에는 1911년 조선총독부가 5만 5천원을 투자하여 사리원으로부터 재령에 이르는 5리 4정의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전한다.⁴⁾

사리원 시내의 버스터미널에는 주요 행선지와 거리, 그에 따른 운임이 적힌 요금표와 ‘황해북도인민위원회 려객버스주차장’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

4) 매일신보, 1911년 8월 1일



사리원의 주요 시설

다. 명칭으로 인해 인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 이 버스는 개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소위 ‘씨비차’이다. 업자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지불하고 있다. 버스요금의 실제 금액은 요금표에 적힌 것과는 별개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입석과 좌석이 있으며, 좌석별로도 가격이 차등하여 매겨져 있다. 씨비차의 장점은 여행증 없이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동 간 10호 초소를 지날 때면 승객의 여행증을 검열하지만, 차량 사업주들은 통행증이 없는 인원의 통과를 책임진다. 만일 승객이 초소에 걸려 이동을 못하게 되면 이는 업주의 평판에 영향을 미쳐, 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진다.

사리원에는 대동강의 지류인 재령강으로부터 연결되는 운하가 있다. 운하는 일제가 황해도 곡창지대의 쌀을 운송하기 위해 1930년대 봉산, 서흥, 린산, 은파에 걸쳐있는 황해도 최대의 호수인 서흥호로부터 물줄기를 끌어 건설하였다. 본래 운하는 재령강을 통해 대동강, 서해까지 연결되도록 계획되었으나 이는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지금은 저수지

사리원의 주요시설, 북한에서 발행한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사리원 시내의 운하, 본래 운하는 재령강을 통해 대동강, 서해까지 연결되도록 계획되었으나 이는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지금은 저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리원 시내 서북쪽에 위치한 길성포에서 뱃길로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리까지는 20km, 안악군 굴산리까지는 33km, 신천군 석당리까지는 40km, 송림향까지 37km, 남포항 50km, 평양 80km의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는 주로 남포까지의 노선이 주를 이루는데, 길성포에서 남포까지 6시간이 걸린다.

길성포항은 사리원시 서쪽 립석천과 매상천이 합류하는 대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이 포구는 밀물 때 재령강을 통해 대동강을 오가는 작은 포구였다. 1942년 홍수로 둑이 터져 부두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 해방 후 수리되었으며, 1954년에 구불구불한 물길을 곧게 펴고 포구 하류의 강바닥을 파내고 강가에 둑을 쌓아 길성포 항구를 다시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길성포에서 재령에 이르는 구간은 마치 운하와 같이 직선화되었다. 1986년 남포에 서해갑문이 설치되며 대동강과 연계된 하천들의 수위가 늘어나는데 이때부터 재령강은 안정적인 유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 시기 길성포항은 대규모 증축을 거쳐 포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사리원의 명승지



정방산에서 가장 유명한 시설은 성불사이다. 성불사는 고려 창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도선대사가 898년 창건, 1374년 나옹이 중건한 사찰이다. (사진 출처: 뉴스1)

사리원 시내에서 북쪽으로 10km 황주군과의 경계에 있는 정방산은 산마루가 서로 잇달아 정방형을 이루고 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정방산은 해발 481m로 높지는 않지만 재령벌판 가운데 있어 두드러진다. 산에는 12km의 정방산성이 축조되어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은 여러 차례 교시를 통하여 정방산을 유원지로 꾸릴 것을 지시하였다. 정방산유원지는 정방산의 기암절벽과 폭포, 역사 유적인 정방산성, 성불사 등을 포괄한다. 당국은 정방산유원지에 휴식터, 찻집, 낚시터, 정각 등을 꾸려 놓았다.

정방산에서 가장 유명한 시설은 성불사이다. 성불사는 고려 창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도선대사가 898년 창건, 1374년 나옹이 중건한 사찰이다. 성불사에는 여섯 채의 건물과 절 중앙의 5층 석탑이 있다. 그 중 웅진전에는 불교의 도를 깨우쳤다고 하는 500명의 모습을 표현한 오백나한상이 있으며 성불사 5층탑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급 279호로 지정되었다. 성불사를 중심으로 정방산의 상부는 김일성의 별장으로 쓰였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은 정방산성 앞까지만 갈 수 있던 것이 김일성 사후 정방산성 윗부분도 일반인에게도 공

개되었다. 성불사에는 스님이 상주하여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방문할 때 불공을 드리는 등의 종교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성불사에서 종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리원의 명물로 시내 중심의 경암산에는 광개토대왕릉비, 고인돌, 첨성대, 단군릉 등 역사적 건축물들을 복제해 놓은 민속공원이 있다. 민속공원의 호수에는 거북선 조형물이 떠다니고 있으며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사리원 민속공원은 김정일이 주장한 조선식 공원과 역사교양마당이 결합된 대규모 공원이다. 2005년 4월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에 맞추어 개장한 이후 2007년 11월 2차로 준공되었다. 민속거리는 남쪽으로 경암산을, 동쪽 길 건너는 사리원역과 북쪽으로 김부자 동상이 있는 혁명사적지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시내 중심가 경암호 호숫가에 위치한다. 민속공원의 정문 앞 민속놀이마당은 북한 매체에서 음력설마다 설 풍경을 취재하는 장소가 되었다. 대외적으로도 황해북도의 명물로 자리 잡아 북한 대사관이 있는 친선국가 외빈들이 주로 참관하였다. 2008년 12월, 사리원 민속거리를 시찰하던 김정일은 평양 대성산 기슭에도 여기를 본보기 삼아 민속공원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해외에서 북한을 찾은 방문객은 평양 혹은 남포의 용강온탕원에서 신천으로 가는 길에 사리원을 들르게 된다. 사리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사리원 3·8 호텔에 머무르게 된다. 3·8 호텔은 2000년대 초반 현대그룹과 북한 당국과의 협력으로 지어졌으며 한국의 에이스침대에서 지원한 가구로 꾸려져 있다. 에이스침대의 안유수 회장은 사리원 출신 실형민으로 남북교류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3·8호텔에 가구를 기증하는 한편 2007년에는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사리원에이스침대가구를 세우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사리원의 산업

사리원은 넓은 평야지대, 풍부한 물자원, 편리한 교통 등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경지는 시 전체면적의 45%이며 이 중 논이 40.5%, 채소밭이 35.4%, 과수밭이 21.5%를 차지한다. 특히 사리원은 포도가 유명한데 1950년 문을 연 사리원과수농장은 12km²의 면적에 포도를 위주로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재배한다. 사리원의 남서쪽 상고동, 소양동, 대양동 일대는 광활한



사리원시내 민속거리에서 바라본 경암산(사진 출처: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공식 블로그)



3·8 호텔은 2000년대 초반 현대그룹과의 협력으로 지어졌으며 한국의 에이스침대에서 지원한 가구로 꾸려져 있다. (사진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포도밭이 펼쳐져 있어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 매년 여름 사리원에서는 어느 집
에서나 포도를 쉽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리원에서는 포도와 함께 대규모
미나리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리원의 서쪽에 위치한 재령평야는 황주, 봉산, 사리원, 재령, 신천, 안악에
걸쳐 있는 북한 최대의 평야이다. 재령평야는 ‘나무리벌’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먹고, 입고, 쓰고도 남는다는 뜻의 ‘남으리’가 변형된 말이다. 조선시대 문
서에는 한자를 음차하여 남물리평(南勿里坪)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사리원미
곡협동농장은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협동농장,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청산리
협동농장과 더불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현지 지도 치적으로 조
명되는 협동농장이다. 2003년에 김정일은 “우리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라는 문헌을 제시하고 알곡 800만 톤 생산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를 위해 각 분야 과학자들이 동원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7년에
는 강성 제1호로 불리는 새로운 벼 종자가 미곡협동농장에서 시험 재배되었다
고 보도한다. 그 결과, 정보당 10톤 900kg의 소출을 냈다는 소식이 전하여졌
다.⁵⁾ 황해도에는 재령의 나무리벌로 대표되는 수많은 평야지대가 있음에도 유
난히 미곡벌의 사리원미곡협동조합에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리원미곡협동조합의 책임자가 백두혈통 가문과 관련되
었다는 소문이 있다. 사리원에는 닭공장도 유명한데 사리원 김일성, 김정일이
사리원을 방문할 때마다 미곡협동조합과 닭공장은 꼭 방문하며 두 기관은 북
한의 언론에도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기업소가되었다.



사리원 방직공장(사진 출처: 뉴
스1)

1917년 일본의 미쓰이산업이 조선에서의 목화재
배, 매매, 면사방직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
방직주식회사는 1925년 이후 부산, 대구, 사리원,
남포, 원주, 춘천 등에 공장을 설립했다. 그 중에서
도 사리원 공장은 교통이 발달한 곳에 위치한 대형
공장으로 사리원제사(製絲)공장으로 불리었다. 해
방 후 1945년 9월 사리원방직공장으로 이름을 바
뀌어 1970년부터 방직공정이 조업되었고, 1974년
4월부터 직포, 염색 공정들이 조업되기 시작한다.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5월1일공장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은 사리원방직공장,
5월방직공장 등으로 부르고 있다. 사리원방직공장은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자
주 등장하는데, 2022년 9월 “쉬는 시간에도 ‘당 사상’ 선전하는 북한 사리원

방직공장”, 2023년 1월 “또 하루 혁신적 성과를 이
룬 사리원방직공장 종업원들”, 2024년 10월 “서로
돕고 이끄는 사리원방직공장 노동자들” 등 매년 수
차례씩 노동신문에 근황이 보도된다. 최근에는 사
리원방직공장에서 첫 2년분 계획 완수자가 배출되
었으며, 20여 명이 연간 계획 완수자 대열에 들어
섰다는 보도가 있었다.⁶⁾

사리원에서는 방직공장과 연관된 산업들도 발전
하여 편직공장, 견직공장, 직물공장, 타월공장 등이
있다. 그중 사리원 대성타월공장은 주로 면 혼방계열의 타월 천과 어린이용 포
단, 목욕용 가운 등을 생산한다. 대성타월공장의 타월은 북한 전역에서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사리원 출신 탈북민들에 따르면 1970년대 한 재일교포가 기
증한 일제 기계로 공장이 꾸러져서 품질이 좋다고 전해진다. 사리원의 피복공
장으로는 경암산피복공장, 사리원운하피복공장 등이 있다.



사리원 타월공장(사진 출처: 뉴
스1)

사리원의 시장

북한의 시장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
관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
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시장
에 대한 관리는 편법을 통하거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
도시의 대표시장들을 보면, 1980년대에 이미 활성화되어 관리사무실도 존재
하였으나, 시장의 운영과 관리가 과연 어떠한 법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모호하다. 그러던 것이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와 2003년 시장을 공식화한
내각지시 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양성화되었다. 이후로 상업관리국에서
‘시장관리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장의 명칭은 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고 “시장표준설계” 규정에 따라 건설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시장사용료
(장세)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은 상업성, 재정성의 판단과 함께 도 인민위원
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되었다. 200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발표된 “재정성
지시 제30호”에는 종합시장의 장세가 명시되어 있다. 곡물 100원, 채소(남새)

5) 강채연, 『북한도시이해』 (서울: 바른북스, 2025)p. 47.

6) ‘北 방직공장, 2년분 연간계획완수자 잇따라 배출,’ 서울평양뉴스, 2025. 06. 21 (검색일: 2025. 07. 29)



사리원의 주요 산업시설, 북한
에서 발행된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80원, 의복 120원, 해산물 200원, 전자기기 250원, 고기류 250원 등이다.⁷⁾ 그러나 이를 최근 실제 장세 현황과 비교해보면 2009년 화폐개혁을 고려하더라도 10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각 도시 시장의 장세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사리원은 순천, 해주, 라선, 혜산과 함께 2등급 도시로 분류된다. 2등급 도시의 장세는 하루 기준, 2017년에 북한 돈 1,000 - 3,000원이던 것이 코로나 통제가 막바지에 이르던 2022년 9-12월에는 1,700-5,5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⁸⁾

사리원에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시장이 선경시장, 원주시장, 구천시장, 산업시장, 대성시장의 5개 시장이 있다. 이 중 선경시장은 2020년 기존의 선경동 중심부에서 남쪽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존 2,827km²와 유사한 규모인 2,325m²로 조성되었다. 선경시장의 특징은 기존 시장부지 내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기존 소규모 사업소 자리를 개조하여 새로 시장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렇듯 시장을 확장하지 못하고 개조한 이유는 기존 시장의 위치가 단층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어 시장의 확장이나 이용이 불편하며 이전된 부지 외에 중심부의 유희부지가 없는 점이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⁹⁾

원주동에 위치한 원주시장은 철산동 북쪽의 원주동에 위치한 3,171㎡의 작은 시장으로 2019년에 조성되었다. 원주동이 인구밀도는 높지만 반해 인근 시장과는 접근성이 낮아(선경시장 1.3km, 대성시장 1.6km 구천시장 1.6km, 산업시장은 3km)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리원의 교육기관¹⁰⁾

사리원에는 국가의 농업과 교육, 의학 등 주요 기술, 산업 분야의 대학들이 위치해 있다. 중앙급 대학이자, 북한의 대표적인 농업 전문 기관인 계응상대학은 사리원농업대학으로 설립되었으나 1990년 북한의 저명한 농학자이자 유전학자인 계응상의 이름을 따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북한 내 최고 농업 교

7)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50-53.

8)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p. 64, 65.

9)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 110.

10) NKCCC 제공



보리 종자선별기를 개발한 계응상대학 연구진(서울평양뉴스 2021.11.04)

육 기관으로 꼽히는 원산농업종합대학과 함께 북한의 농업 기술 발전을 이끄는 양대산맥으로 평가된다. 농업과 함께 축산, 잠학, 수의학, 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계응상 박사의 주요 연구 분야였던 누에 유전학 및 품종개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계응상대학 교수들은 황해북도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제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을 교육하는 이동

강의를 진행한다. 북한의 언론에 따르면 계응상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낮에는 일손을 거두고, 밤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만든 그림과, 도구, 교재를 이용해 실용적인 강의를 해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¹¹⁾ 또한 제작원가가 낮으면서, 종전보다 효율이 좋은 농기계와, 복합비료 등 농업의 과학화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한다.¹²⁾

사리원교원대학은 사리원에 위치한 또 하나의 중앙급 대학으로, 황해북도 내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유치원의 교양원과 소학교(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이후 재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22년 태양절을 맞아 새롭게 리모델링되었는데 북한 언론의 선전에 의하면 이는 미래의 교원들이 최신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다른 지역 교원대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본보기학교’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것이며 이 학교는 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교원대학 (조선 중앙통신 2022년 4월)

험 실습실과 전자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 현대적인 교육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¹³⁾ 북한은 최근 경제, 과학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인재 양성을 독려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범 교육기관들을 잘 꾸리고 사범교육을 강화하는 데 인재 강국, 사회주의 교육 강국 건설의 지름길이 있다”고 말하며 교원들의 자질과 실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사리원강건대학은 의학, 약학, 고려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71년 사리원의학대학으로 발족되었으나 1990

년 강건대학으로 개칭하였다. 전통적인 고려의학(한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여 연구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북한 언론에 의하면 고려약(한약)을 이용해 암 치료 연구, 생산에서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항생제 농도측정 종이’를 개발해 자체적으로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¹⁴⁾ 북한에서 전통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여겨졌다. 북한 정권은 의사를 “인민들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영예로운 혁명가”로 규정하며 엘리트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 의과대학 입학 경쟁률 역시 높은 편이며, 간부 자녀나 의료 부문 관계자 자녀들이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원칙적으로 무상치료제를 표방하지만, 1990년 경제난 이후 의료 자원과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실질적 의료 서비스는 크게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충분한 보수를 받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고 전해진다.

위에 언급한 대학 외에도 사리원에는 사리원공업대학, 사리원지질대학, 리계순제1사범대학 등이 위치해 있다.



사리원 강건대학



사리원의 주요 대학 (NKCC 제공)

11) 북 계응상농업대학 이동강의 확대..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2002.01.30 <https://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98>

12) 계응상대학, 종자선별기-복합비료 개발.. SPN 서울평양뉴스 2021.11.04.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52>

13) 사리원 교원대 준공... ‘현대화된 환경으로 인재 양성’ 뉴스1 2022.04.16 <https://www.news1.kr/nk/society/4649883>

14) 북한 “항생제최소역군농도 측정 종이 개발” 평양 노동신문, 뉴스1 2024.08.12 <https://nk.news1.kr/photos/view/6820582>

나가며

사리원은 오래전부터 황해도 봉산군의 중심부를 이루는 지역이었다. 조선중기 이후 평양과 서울을 잇는 정방산 고갯길이 개발되며 사리원은 봉산군만이 아닌 황해도 북부의 중심지가 되었다. 1905년 경의선 개통으로 도시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여 1947년 봉산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리원시로 독립하였으며, 1954년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 황해북도의 도소재지가 된 도시이다.

사리원은 내륙지방이지만 오래전부터 수로로 남포, 평양과 연결되어 발전하여 황해도 곡창지대의 곡식과 풍요로운 과일의 집산지 역할을 감당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활성화시기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들어 온 각종 물품의 도매 시장 역할을 감당한 도시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방인 황해도의 중심지이자 남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사리원은 남과 북의 분단으로 서울-평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상실했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도로·철도 체계는 사리원을 북한 남부와 동부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접경지역으로 구분되는 황해도 남부와 강원도 남부를 비롯하여 개성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리원을 거치게 된 것이다. 사리원은 황해도와 강원도 그리고 평안도 남부뿐 아니라 함경도 동부 해안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할 때 사리원은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평화문제연구소,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0, 황해북도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4)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지리지2』 (서울: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2025)

안택수, 『1911-1945년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사리원』 (서울: 위더스북, 2016)

박세훈 외,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서울: 국토연구원, 2016)

컬럼 2

사리원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호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

들어가며

황해북도의 도청소재지 사리원은 30.8만 인구의¹⁾ 교통의 요충지이자 농산물의 집산지, 방직산업으로 유명하다.²⁾ ‘원(院)’의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역참이 소재한 교통의 중심지였으며,³⁾ 1905년 경의선이, 1994년 개성-평양 고속도로가 사리원 북쪽으로 개통되었다. 사리원은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를 연결하고, 북한의 주요한 도시들이 북쪽으로는 송림과 평양, 남포가, 남쪽으로는 해주, 개성이 위치해 있다 (〈그림 1〉 참조). 분단 이후에도 사리원은 오히려 교통의 중심지로 더욱 부각되었다. 강원도와 개성은 북한의 주 군사요충지로 일반주민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함북선, 자강선, 평북선, 황남선과 직선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사리원을 통하여 갈아타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최대 도매시장인 평성시장 물품은 사리원을 경유해 황해북도, 강원도로 이동되며, 반대로 원산을 통해 반입된 일본 상품,

〈그림 1〉 사리원시의 위치



출처: 필자 작성.

1) DPRK. (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2) 양진태. (2007). “황해북도의 도청소재지, 사리원시.” 월간북한 2007년 2월호.

3) 조선시대 사리원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봉산탈춤은 사리원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조만호. (2008). “봉산탈춤 1936년 사리원 공연 채록자료 연구.” 반교여문연구 제24호. 211-263쪽.)

황해남북도 일대의 쌀, 고구마, 과일 등 농산품도 사리원을 경유해 평성, 함경남북도로 유통된다.⁴⁾ 평양-개성 고속도로 경유지인 사리원은 개성공단 운영의 수혜 도시로 개성공단의 물품들이 사리원 시장에서 집결된다. 개성은 남한과 인접한 군사지역으로 철저히 통제된 도시로 평양보다도 엄격하게 출입이 제한된다.⁵⁾ 따라서 개성에 들어가지 못한 외지 상인들과 개성에서 공단 물품을 입수한 개성 상인들은 사리원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 공단에서 나오는 초코파이, 미원, 소고기 조미료를 비롯한 식료품, 치약, 칫솔, 신발, 옷가지, 이불, 원단, 밥가마(밥솥), 숟가락, 의약품 등 남측에서 넘어오는 물자는 모두 사리원 시장으로 빠져나와 전국으로 퍼져간다. 상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원단과 생고무 등 원료도 사리원 시장으로 유입되는데, 공단 산업 쓰레기는 개성시장에서 한 트럭 가격이 1,500~2,000달러였던 것이 사리원 시장에서는 2,000~3,000달러에 거래 되었다. 사리원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개성공단 원단 자투리는 평성, 강선시장에서 도매에 팔려 갓난아이 옷, 여름 티셔츠 등으로 팔리며 ‘개성공단 자재로 만든 것’이라며 판매됐다. 이 제품들은 중국 상품보다 우월하고 가격도 높아 중산층 주민들이 선호한다. 개성공단 운영은 사리원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사리원 시장을 통해 개성공단의 영향력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⁶⁾

필자가 기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사리원시 인구는 1940년 3만 5천 명에서, 1972년 13만 6천 명, 1986년 27만 1천 명, 2008년에는 30만 8천 명으로 증가했다. 인구수가 가장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이다. 이 시기는 김일성이 갑산파를 숙청하고 일당 독재와 유일사상을 선포하고(1967년)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발표한(1974년) 기간이기도 하다. 홍민 외(2023)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리원시 내 시장은 2016년 이후 선경동 선경시장(2,827㎡)이 사라져 2022년 기준 구천1동 구천시장(6,003㎡), 산업동 산업시장(11,179㎡), 대성동 대성시장(7,351㎡) 세 곳이 있다.⁷⁾

4) 강은주. (2015). “남북교통의 요지, 사리원 시장.” 월간북한 2015년 8월호.

5) 이시호. (2024). “개성공단 운영이 개성시 공간과 일상에 미친 영향 분석: 위성자료와 심층인터뷰 혼합연구.” 공간과사회 제34권 2호, 109~141쪽.

6) 강은주. (2015). 위의 글. 114쪽.

7) 홍민, 차문석, 김혁. (2023).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통일연구원 보고서.

〈표 1〉 사리원시 인구 증가 추이(1940 ~ 2008년, 단위 천명, *증가율)

	1940	1967		1972		1982		1986		1991		2008	
	인구수	인구수	1940~1967*	인구수	1967~1972*	인구수	1972~1982*	인구수	1982~1986*	인구수	1986~1991*	인구수	1991~2008*
평양	286	827	4.0%	1,118	6.2%	1976	5.9%	2,274	3.6%	2,586	2.6%	3,255	1.4%
사리원	35	85	3.3%	136	9.9%	210	4.4%	271	6.6%	288	1.2%	308	0.4%

출처: 이시호. “남북한 도시발전의 특징”, In: 『통일을 대비한 북한도시 개발 구상』. 보문당. 2024. 51쪽. 내용 부분 수정.

사리원은 황해도 교통의 중심지로 주요한 도시 중 하나이지만 도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술지의 경우 1930년대 사리원 봉산탈춤 자료 연구가 거의 유일하고 일부 월간지나 잡지 등에 동향 정도가 소개되는 정도이다. 이는 내륙 중소도시인 사리원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으며, 북한의 남쪽 황해북도 지역은 정보의 부재, 국경까지의 거리 등으로 이탈주민 숫자가 매우 적기(1.4%) 때문이다.⁸⁾ 이에 필자는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현장 접근도 어려운 사리원 연구를 위해 위성자료(remote sensing data) 추출과 사리원 출신 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도시 공간과 일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를 위한 자료 준비

필자는 도시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사리원시 행정구역 187.91km² 전체를 53개 ‘동’ 단위로 분리해 위성자료를 추출했다.⁹⁾ ‘동’ 단위 지리정보는 무료 제공 프로그램인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 벡터 형식의 디지털 자료(shape file)로 생성 및 분석했다.

사리원의 53개로 분할된 지역에 대해 인구수, 건물 밀도, 야간 조도(불빛) 위성 자료를 추출했다. 인구수와 건물 밀도는 GHSL Data,¹⁰⁾ 야간 조도에 VIIRS Data¹¹⁾를 추출했다. 자료를 추출 후 ‘동’별 밀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밀도 지도를 분석했다. 이후 사리원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남한으로 온 이탈주민 3명(A: 50대 초 장사, B: 50대 말 장사, C: 70대 사무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사리원의 도시공간 위성자료 분석 내용에 대한 교차검토와 도시 공간 변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8)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전체 북한 이탈주민 33,952명 중 황해북도 출신 이탈주민은 471명으로 전체의 1.4%에 그친다.

9) 행정구역상 사리원시는 31개 9리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황해북도』 2004. (사)평화문제연구소). 사리원시 동별 행정구역 구분 정보는 도엽번호를 가진 1:5000 종이 지도를 포함해 정확한 자료가 없다. 이에 연구자는 기존 자료와 위성영상을 고려하여 ‘동’을 구분했다.

10) <https://data.jrc.ec.europa.eu/dataset/2ff68a52-5b5b-4a22-8f40-c41da8332c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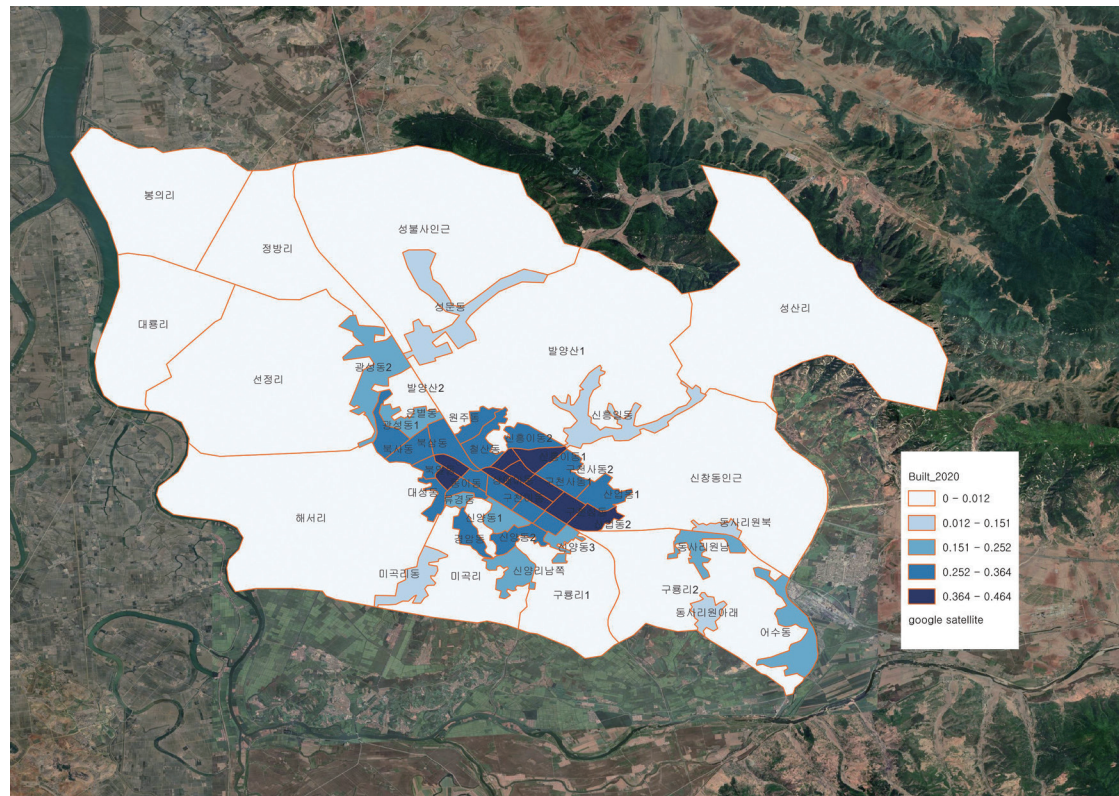
11) <https://eogdata.mines.edu/products/vnl/#monthly>

사리원 ‘동’별 도시공간의 특성

위성자료를 분석 결과 사리원 도시공간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그림 2>와 같이 사리원시 ‘동’별 건물밀도 결과 사리원청년역(중심역) 북쪽 도심 구천일동, 구천삼동, 구천사동, 상매이동과 산업동 인근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었다. 이곳은 동쪽으로 사리원 방직공장 등 산업지대가, 남쪽으로 기차역이, 서쪽으로 김일성 동상이 있는 도심의 중심이다. 그 외에도 사리원 도심 서쪽 문화동과 선경동도 건물밀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곳은 사리원 영화관, 체육공원, 옷가게, 식당 등이 밀집된 곳이다. 사리원청년역 남쪽인 구천이동, 운하일동, 운하이동은 중간 정도 건물밀도를 보였다. 도시 외곽으로 나갈수록 건물밀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건물밀도 차이는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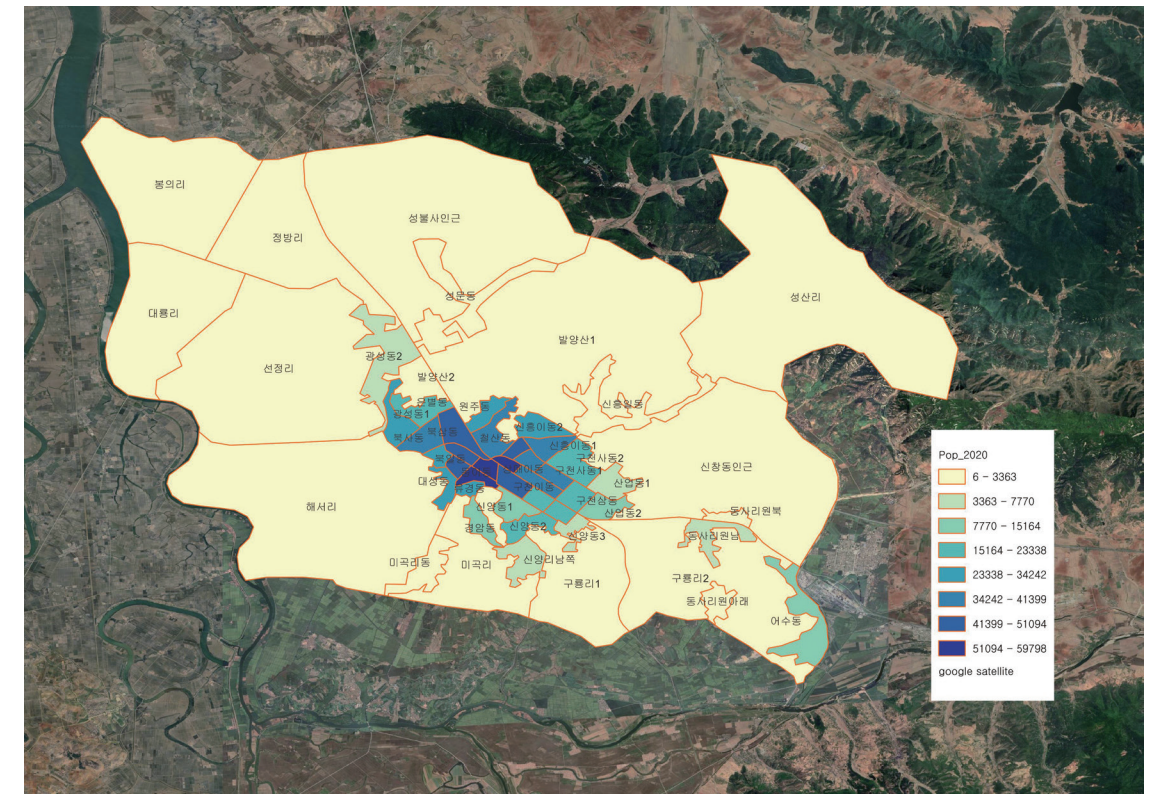
사리원시 인구수는 2008년 기준 30만 8천 명이다. ‘동’별 인구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수 위성자료를 추출했다. <그림 3>과 같이 분석결과 사리원시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상매이동, 정성동, 류경동이다. 이 지역은 여러

<그림 2> 사리원 ‘동’별 건물밀도 분포 (2020년 기준)



출처: 필자 작성

<그림 3> 사리원시 ‘동’별 인구 분포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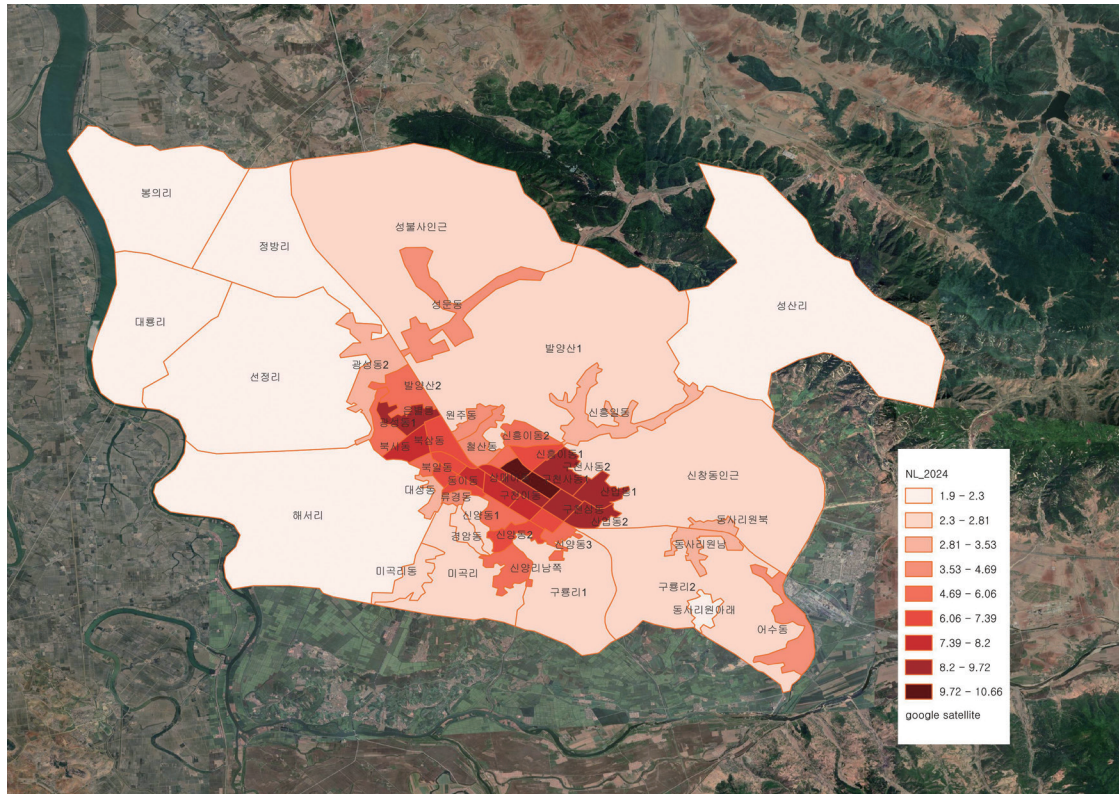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하천과 도로가 만나는 지역이자 황해북도 예술극장,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경인호와 민속거리가 있는 위치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나갈수록 인구밀도는 줄어든다. 방직공장과 노동자 주거지가 있는 산업동과 구천삼동의 경우 건물밀도는 높았지만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리원시 53개 동별 야간조도는 EOG(Earth Observation Group)에서 제공하는 VIIRS(resolution 463.83m) 자료를 추출했다. 야간조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 북한 연구에서도 경제활동과 야간시간 활동, 빈곤 지역연구에 사용된다.¹²⁾ 사리원의 도시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야간조도 밀도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대체적으로 건물밀도, 인구수와 유사하게 도심지역 밀도가 높지만 도시 외곽에도 밤 불빛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야간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사리원청년역 북쪽 구

12) Lee, Si-Hyo., Suh, Moon-Gi., Kim, Sung-Bae and Baek, Myeongsook. (2024). Urban poverty patterns in Pyongyang (North Korea): A deep-learning-based spatial analysis. Cities 151. <https://doi.org/10.1016/j.cities.2024.105109>

〈그림 4〉사리원 ‘동’별 야간조도 밀도 (2024년 기준)



출처: 필자 작성

천사동과 상매일동과 그 주변 지역이다. 이곳은 산업단지와 노동자 주거지가 밀집된 곳이다. 건물밀도와 인구밀도 대비 야간조도가 높게 나타난 곳은 도심 약간 외곽(서북쪽)의 광성동과 대성동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는 2014년 이후 건설된 사리원 교원대학교와 사리원 제1중고등학교, 탁아소가 위치한 곳이다.

사리원 공간과 일상의 변화

구체적인 도시공간 격차와 환경, 주민 일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리원 출신 이탈주민 3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사리원에서 권력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신양동 인근으로 이곳은 황해북도 당 시설들과 광장, 사리원 체육관과 잔디 구장, 3월8일호텔이 위치한 곳이다. 이에 비해 시장도입 이후 ‘돈주’ 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문화동, 북일동, 류경동 일대이다. 이 지역은 경암호 인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최근 지은 아파트들이 있으며, 도심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다.

“북일동 정도가 노른자라고 그래요. 거기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거든요. 여기가 옛날 시장 자리거든요. 거기가 극장이 있어요. 예 술극장 거기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조금 사는 동네로 보거든요. (A와 인터뷰)”

반면 도시 저소득층이 사는 곳은 도시 외곽 광성동, 철산동, 원주동, 만금동, 경암동 등이다. 이곳은 도심과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 ‘땅집(단층 슬레이트집)’이 밀집되어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메뚜기 시장 등에서 장사를 통해 하루하루 근근이 먹고사는 사람들(B)”이다.

사리원 도시의 변화는 시장도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사리원은 ‘고난의 행군(식량난)’이 북한 북쪽 도시보다 늦게 진행되었다(북쪽은 1994년부터 기근이 시작되었지만 사리원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심각한 기근을 겪었다. A, B, C). 하지만 시장의 도입은 도시 분위기를 바꾸었다. 예를 들어 구천일동, 구천삼동, 구천사동은 산업동의 사리원5월방직공장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층 거주지역이었다. 하지만 도매까지 취급하는 큰 규모의 구천동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경제적 상황은 향상되어 중상층 계층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시장 인근은 창고업, 외부인 상인을 위한 숙박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B, C).

“(산업동 옆) 구천 1동, 2동, 3동, 4동까지 있어요. 근데 그쪽은 시장이 생겨서 그래도 생활이 괜찮아졌어요. (B와 인터뷰)”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도시 건설은 도심 중심 ‘땅집’을 일부 허물고 아파트

〈그림 5〉사리원 도심 서북쪽 광성동 신축건물 (좌 2014년, 우 2024년 위성사진)



를 짓거나, 도시 외곽 농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B, C).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림 5>를 보면 사리원 도심 서북쪽 관성동 외곽은 2014년 농지였으나, 2015년 공사가 진행되어 2024년에는 사리원 제1초급중학교, 제1고급중학교, 사리원 교대, 탁아소 등이 건립되었다.

나가며

사리원시는 개성과 평양의 중간 기착지로, 평성-해주-강원도 물류의 유통 중심지로 주요한 도시이다. 배급 시기 사리원은 남쪽 내륙도시로 당에 순응하는 고지식한 도시였으나, 심각한 기근과 시장 도입 이후 사리원 주민들의 생각은 자본주의에 많이 깨이게 되었다. 통일 시기 사리원은 물류와 남북한 주민들이 교류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진 사리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북한 여러 도시와 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남북 사람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

컬럼 3

평양과 군사분계선을 잇는 황북의 도심, 사리원시 공간구조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소장/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황해북도는 남쪽으로 개성과 군사분계선을 잇고 있으며, 북쪽으로 수도 평양과 인접해 있다. 황해북도 내 세 개의 시 행정 지역(개성시, 송림시, 사리원시) 가운데서, 평양으로부터 불과 32Km 떨어진 사리원시는 황해북도 소재지로 도 행정지역 내 주요 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다.

1. 사리원시 주요 기관 및 시설

사리원시는 황해북도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 재령강을 경계로 도시의 서쪽 지역만이 황해남도 재령군 그리고 안악군과 인접해 있고, 나머지 지역은 황해북도 내 행정 지역들과 인접해 있다. 사리원시는 지형상, 넓은 재령평야에 전개되어 있고, 시의 서쪽 가운데는 해발 140m의 경암산이, 그리고 시가지의 남쪽 변두리에는 해발 150m의 미아산이 솟아있다. 또한 사리원시의 서쪽 지역은 나무리벌과 잇닿아 있다.

사리원시는 구역단위 행정지역이 없으며 31개의 동(洞)과 9개 리(里)행정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리원 청년역을 기준으로 시의 동쪽지역에는 구천 1동과 3동, 4동 등이 있으며 구천 1동과 2동 그리고 운하 1동 일대에는 사리원 청년역이 있다. 사리원시 동쪽지역에는 산업동이, 동북쪽 지역에는 신흥동과 신

창동이 있으며 동남쪽 맨끝에는 도림동이 있다. 또한 서쪽지역에는 상하동과 대성동 등이 있다. 대성동에는 길성포항이 있으며 항구의 물길을 따라 화물선들이 남포쪽으로 출항한다. 서북쪽 맨 끝에는 광성동을 지나 만금동이 자리잡고 있다.

사리원시 9개의 리 행정지역은 대룡리, 구룡리, 봉의리, 선정리, 해서리, 미곡리 등이다. 주로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안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리원시에는 동사리원역과 사리원 청년역이 있다. 동사리원역 주변에는 황해북도 곡산공장과 약간의 산업시설 그리고 농경지들이 있다. 사리원시 나아가 황해북도를 대표하는 인공지물이 사리원 청년역 일대에 전개되어 있다. 청년역 뒤편의 상매동에는 황해북도 양곡정미소와 상매동 시장이 있다. 시장의 건너편에는 도안의 사회안전(치안)인력을 양성하는 황해북도 정치학교가 있다. 정치학교 왼쪽에는 5월 방직공장으로 불리는 북한에서 손꼽히는 사리원방직공장이 있으며 도로 맞은편에는 황해북도 외국어학원이 있다. 사리원 청년역 앞편의 인근에는 대학교들이 있다. 구천 2동에는 리계순사리원제1사범대학이, 운하 1동에는 사리원교원대학이, 사리원 시내를 가로지르는 운하 건너편에는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과 사리원제2사범대학이 있다. 사리원 청년역 뒤편 오른쪽에는 있는 상매동 가까이에는 황해북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있으며, 동상으로 올라가는 화강석 계단의 왼쪽

에는 황해북도 혁명사적관이 있다. 또한 동상의 오른쪽 부근에는 황해북도 제1고급중학교와 황해북도 예술전문학교, 황해북도 애육원이 마주하고 있다.

사리원시 신양동에는 사리원청년경기장과 황해북도 당위원회 그리고 인민위원회가 있다.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앞 도로의 왼쪽에서 조금 가느라면 경암호까지 2차선의 100여 미터 남짓한 민속 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민속 거리의 왼쪽에는 민속촌이 있다. 민속거리 건너편에는 황해북도에서 가장 큰 사리원 백화점이 있다. 4층으로 된 사리원 백화점은 경암산 자연공원과 가까워 대표적인 쇼핑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사리원 백화점에서 평양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사리원 가무극장이 있으며 그 곁에 사리원시 안전국이 있다.

사리원청년경기장은 사리원시 체육관과 잇달아 있으며 경기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3월 8일 호텔이 있다. 호텔의 길 건너편에는 황해북도 유아원이 황해북도 인민병원(강건사리원의학대학교 병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2. 사리원시 주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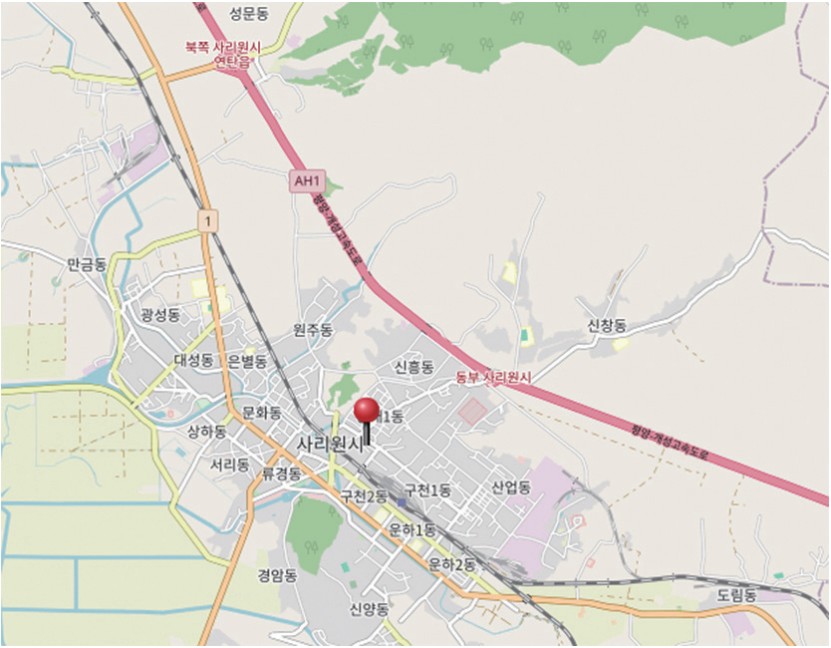
사리원시는 농업과 공업이 결합된 ‘농공복합’ 도시이다. 이 지역에는 황해북도의 지역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시설들이 있다.

대표적인 산업시설로 부지면적 28만 Km²에 1천명의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동에 있는 사리원방직공장을 들 수 있다.¹⁾ 이 공장은 도안의 주민생활에 필요한 의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생산시설로, 솜 생산(방적)으로부터 시작하여 방사(실뽀기), 방직(천짜기), 염색(물들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갖춘 종합적인 섬유생산기지이다. 사리원방직공장과 인접한 곳에 있는 사리원 기계공장은 방직공장의 운용에 필요한 설비들을 생산 보장하는 한편, 황해북도 안의 대상 설비생산을 맡고 있다. 사리원곡산공장은 동사리원역에서 멀지 않은 동림동에 있다. 이 공장은 옥수수,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밀을 원료로 하여 농마, 물엿, 간장, 된장, 기름 등 기초식품 관련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식품 원자재는 도안의 군 행정지역 식료공장들에 공급되고 있다. 성매동 근처에 있는 사리원타올공장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수건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황해도 내에서 타올생산 능력이 가장 큰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사리원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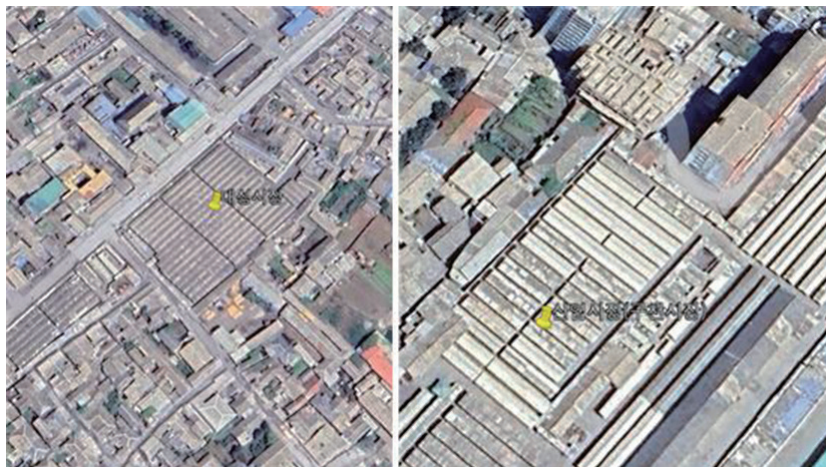
황해도 일대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대부분은 사리원시에 있는 사리원청년역을 경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통상 이점으로 하여 사리원

1) KDB산업은행, 『2015 북한의 산업』 (서울: 나모기획, 2015) 643쪽.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행정구역정보관 : 황해북도

시에 위치한 산업시장, 대성시장, 상매시장 등 5개의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 지역의 산업시장은 옛 구천시장으로 불리는 곳으로 사리원시 동남쪽 산업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1,179㎡로 사리원시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²⁾ 주로 도매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성시장은 사리원시 서쪽 대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7,351㎡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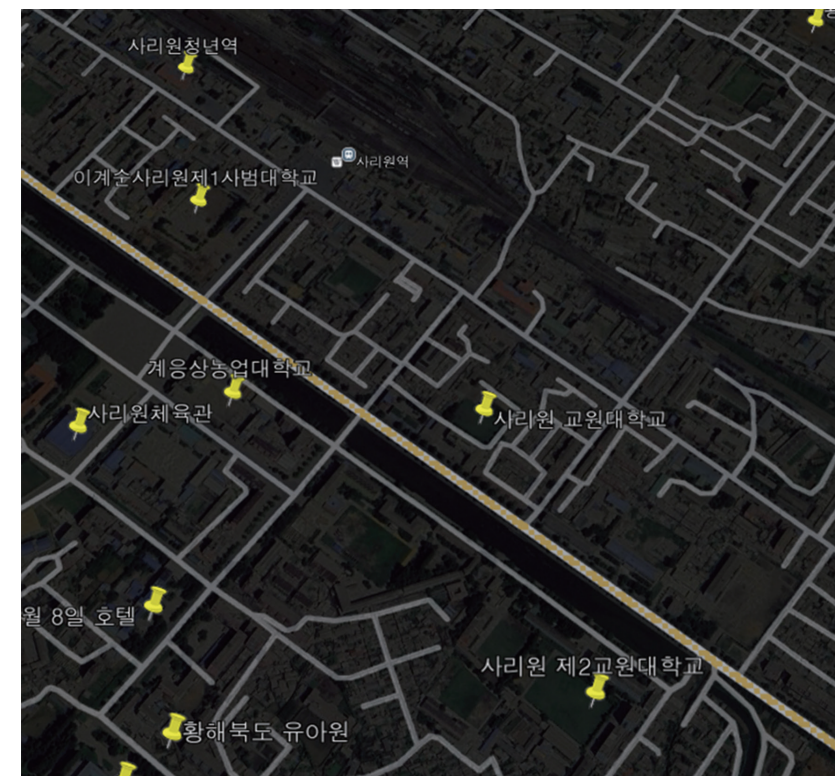
선한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공급한다.

사리원시의 주요 시장들은 농산물이 북한 전 지역으로 유통되게 할 뿐 아니라 도 내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도시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고, 도시 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이 농촌지역에 공급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지역의 식량 안보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직결되어 도시와 농촌 간 경제적 연계를 견고히 하고 있다.

4. 사리원시 주요 교육시설

사리원시는 황해북도 지역에서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이 밀집한 지역이기도 하다. 사리원 시내에는 강건사리원의학대학, 사리원고려약학대학, 리계순제1사범대학, 계응상농업대학, 사리원지질대학 등 중앙 및 지방대학이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건사리원의학대학은 전문 치료와 도 행정 단위 의료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양성 기지이다. 리계순제1사범대학을 비롯한 사범대학들은 지역의 중등 및 고등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사와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2) 홍민『차문석』김혁, 『2022 북한공식시장 현황』, KINU 연구총서 22-28, 145쪽.



있다. 계응상농업대학은 도의 농업발전에 필요한 농업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황해북도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북사동에 있는 사리원지질대학은 황해지역 일대의 지질학 및 광물자원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이다. 이 지역에는 중등교육기관을 대표하는 황해북도 제1고급중학교가 있으며, 도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보내는 중간 허브의 역할을 한다.

5. 사리원시 주요 문화시설

사리원시는 지방 도시 중에서도 비교적 잘 구축된 문화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사리원시 문화회관을 들 수 있다. 1970년에 건립된 이 3층 건물은 오른쪽으로 사리원 운하가 지나고, 왼쪽으로는 경암호와 접하여 주민들의 종합적인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의 지시로 2007년에 완공되었으며 한국식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복원한 사리원 '민속촌'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평양과 개성을 잇는 관광 노선의 중간 지점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리원 기행: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황해도 중심부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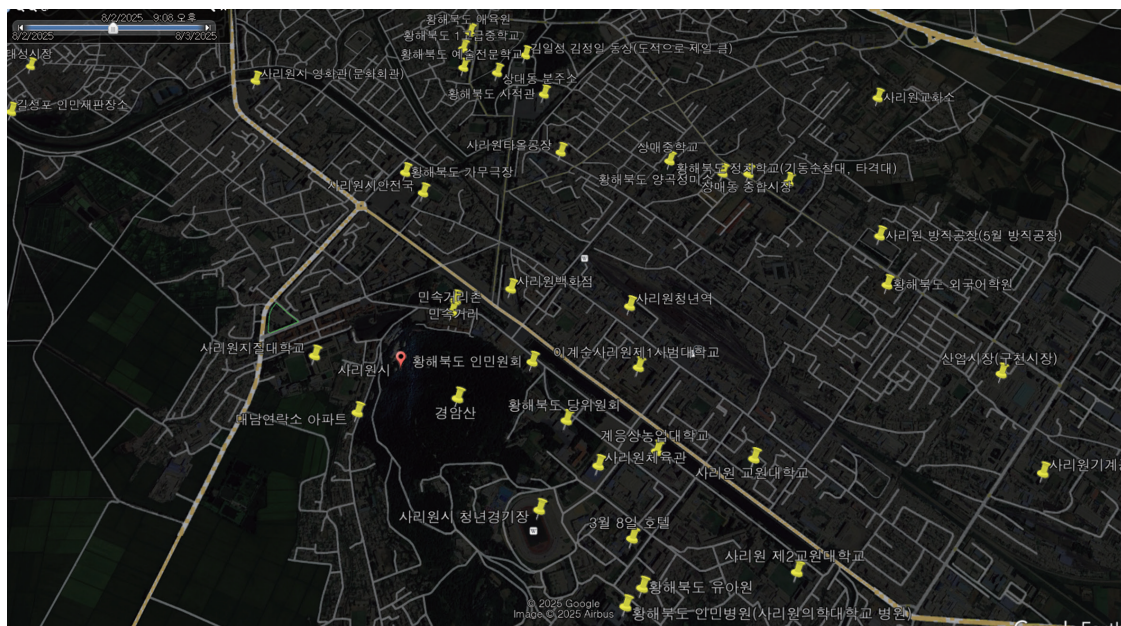
문화와 교육의 도시

사리원은 단순한 행정구역을 넘어, 활기찬 문화 예술의 생명력이 깃든 도시다. 특히,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해학이 담긴 봉산탈춤의 발상지라는 사실은 사리원의 예술적 위상을 확고히 한다. 예부터 매년 단오가 되면 경암루 아래 넓은 마당에서 흥겨운 장단에 맞춰 탈춤 한마당이 펼쳐졌다고 전해진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다. 봉산탈춤은 단순히 과거의 놀이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북한의 주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곧 사리원이 지닌 문화적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문화의 꽃을 피운 사리원은 '교육 도시'라는 또 다른 명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 곳곳에는 농과대학을 비롯해 다양한 고등교육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북한 최고의 농업 연구기관인 사리원농사시험장은 이 지역이 단순한 상업 중심지를 넘어, 농업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임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도 계응상대학(桂應相大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대학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해 북한 과학계의 최고위



경암루에서 바라본 사리원 민속거리와 시내



데 편리하게 꾸려진 곳이다. 민속거리에는 황해북도 일대의 역사자료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사리원역사박물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전통 공예, 민속 공연, 역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스포츠 및 여가 시설로는 2016년 재건축되어 약 2만 2천 명을 수용하는 '사리원청년경기장'이 있다. 축구 경기,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능한다. 또한 2009년도에 준공된 1천 명을 수용하는 황해북도 가무극장과 2020년도에 준공된 사리원 청년야외극장도 있다. 경암산 일대에는 1928년 일제가 지정하여 운영해 온³⁾ '경암산 자연공원'이 있다. 광복 전에는 일본인들과 부자들의 유흥지였지만, 광복 이후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개건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암산 자연공원에는 약수터, 인공폭포, 사리원 동물이 있다. 경암산의 북쪽 기슭에는 조선시대에 건축되었고 한국전쟁 시기 파괴된 것을 북한이 복원한 경암루가 있다. 국보 제145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암루는 경암산의 자연 경치를 둘러볼 수 있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리원시를 내려다 볼 수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3) 영시기의 우표이야기. "일제강점기 사리원 우편국 풍경인" <https://blog.naver.com/jyoungsik/223505288124> (검색일: 2025년 8월 2일)



북한체신성이 계응상 박사를 기념하여 만든 우표, 계응상은 북한과학원원사 겸 농학연구소장, 최고인민회의 기대의원, 북한 농업성 농업과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사진 출처: 북한우표광장 블로그)

직에 올랐던 농학자 계응상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는 당시 소련의 주류 농업 이론인 리센코주의에 맞서 고전유전학을 옹호하는 등 과학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이처럼 사리원은 풍요로운 문화적 유산과 함께 지혜와 학문을 갈고 닦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사리원 불고기: 맛과 기억의 연결고리

사리원은 주변의 기름진 평야와 들녘에서 나는 풍부하는 식재료 덕에 예부터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살아있는 문화다. 그중에서도 불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손꼽히지만, 지역마다 그 특색이 뚜렷하게 나뉜다. 사리원 불고기는 평양, 송도원 불고기와 더불어 북한의 3대 불고기로 명성을 떨칠 만큼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남한 불고기가 흔히 간장과 설탕으로 만든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에 재워 맛을 낸다면, 사리원 불고기는 이와 확연히 다른 조리법을 사용한다. 과일즙을 사용해 재우는 대신, 고기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즉, 양념에 미리 재워두지 않고 구우면서 양념을 더해 고기 자체의 풍미를 온전히 살려낸다. 덕분에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품이며,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과 육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사리원 불고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그 맛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에게 사리원 불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맛이자,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다. 이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사리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식당을 열었고, 그렇게 시작된 사리원 불고기는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사리원 불고기는 단순한 북한의 향토 음식을 넘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의 깊은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기억이 담긴 역사 그 자체다. 한 그릇의 불고기 속에는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실향민들의 애환과 이야기가 녹아 있

다. 이 맛은 단순히 허끝에 머무는 즐거움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저항의 역사를 품은 구월산

사리원 인근에 우뚝 솟은 구월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뽐내는 명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산은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시대의 아픔과 끊임없는 저항의 역사를 깊이 간직하고 있다. 겹겹이 쌓인 능선과 험준한 봉우리마다 불의에 맞섰던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서려 있다. 구월산은 단순히 자연경관을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증언과 같다.

구월산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다. 조선시대에는 탐관오리의 폭정에 맞서 싸웠던 임궽정, 장길산과 같은 의적들이 관군의 추격을 피해 활동하던 은신처이자 무대였다. 험준한 산세는 그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고, 민중의 삶을 짓누르던 불의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향한 염원을 품은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무장투쟁이 벌어지던 거점이기도 했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무기를 보관하고 군사 훈련을 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가 구월산 곳곳에 남아있다. 6.25 전쟁 시기에는 공산 세력에 맞선 유격대들의 거점이 되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처럼 구월산은 외부의 위협과 폭압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저항했던 이들의 공간이 되어주었다.

구월산은 과거의 역사를 단순히 되새기는 것을 넘어, 미래의 가치를 조명하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불의에 맞섰던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상처 입은 역사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아픔을 통해 현재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월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진정한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사리원은 단순한 북한의 도시를 넘어,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장소다. 봉산탈춤의 발상지로서 예부터 이어져 온 예술혼을 간직하고 있



구월산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민중 저항의 상징이던 것이 6.25전쟁 시기에는 반공 유격대의 거점이 되었다.



으며, 계응상대학을 통해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리원 불고기에는 실향민들의 애절한 기억이 담겨 있어 단순히 맛을 넘어선 정서를 느끼게 한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구월산이 지닌 저항의 역사다. 임꺽정부터 독립운동가, 6.25 유격대에 이르기까지, 이 산은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을 상징한다. 사리원은 이처럼 여러 겹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과거의 아픔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 사리원은 북한의 도시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컬럼 5

사리원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며

황해도는 예로부터 호남지방과 더불어 한반도 양대 곡창지대를 이루었으며, 고려시대 이후 한반도 역사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는 개성, 서울, 평양의 중간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을 누린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황해도는 평안도와 함께 묶여 서북지방이라 불렸다. 서북지방은 조선시대 내내 관직의 등용에 제약을 받는 등의 차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홍경래의난 이후 서북지방에 대한 조정의 경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서북인들은 과거에 급제하여도 실제 벼슬에 오르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 중기 이후 지식인들 중 과거 시험에 집착하지 않고 일종의 ‘독서계급’을 형성하여 사상적으로 진취적인 성향을 갖게 된 이들이 많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립적 중산층을 형성하게 된다. 학자들은 천주교와 개신교 전래 초기 각각 서북지방에서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지식인들의 사상적 진취성과 더불어 자립적 중산층의 형성을 들고 있다.¹⁾

미국 북장로회의 황해도 개척

황해도는 조선 최초의 개신교회가 설립된 곳이다. 의주 출신으로 1879년 중국 심양에서 세례를 받은 서상륜에 의해 서간도, 평안도, 황해도 지방에 성경이 반포되었으며 1883년 황해도 장연에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소래교회는 한국교회 초기 신앙공동체로서 성장하며 1887년에는 세례교인이 11명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1898년 기준 해주와 소래를 중심으로 하는 황해도 서

1) 신광철, 황해도 지역 교회의 역사, 13



1883년 마펏(위)과 그래함(아래)은 전도인 한치순과 함께 재령의 신환포를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했으며, 1894년에 마펏과 한치순은 봉산군에 모동교회를 설립했다.

부 지역에 42개의 예배 처소와 14개의 예배당이 있었고, 세례교인 600명, 학습 교인 350명 이상의 교세로 성장했다.²⁾ 소래교회가 위치한 장연은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선교사들이 주재하며 조선 선교 초기 거점의 역할을 감당했다. 1890년대 이후 내한선교사들의 수가 증가하며 서울, 원산,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지부가 발전하게 되었고 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에 있어, (장연을 제외한)황해도 선교는 평양과 서울선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 선교부는 해주를 중심으로, 평양 선교부는 안악을 중심으로 황해도의 선교사역에 착수했다.

사리원-재령을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의 사무엘 마펏(Samuel A. Moffett, 마포삼열)과 그래함(Graham Lee, 이길함) 선교사이다. 1883년 마펏과 그래함은 전도인 한치순과 함께 재령의 신환포를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했으며, 1894년에 마펏과 한치순은 봉산군에 모동교회를 설립했다. 황해도 지역의 전도인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한 인물은 한치순이다. 그는 재령군 신환포 출생으로 마펏 선교사와 이길함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인이 된 후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였다. 이 교회는 이후 신환포교회로 발전하였으며 한치순은 이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된다. 한치순 장로는 신환포와 모동교회 이외에도 상거동교회(1893, 재령군 북울면 북지리), 강촌교회(1893, 재령군 북울면 강촌리), 덕산교회(1893, 안악군 은흥면 학산리) 등을 개척하였다.³⁾

1898년 봄에는 리, 마펏, 스왈른(Willaim L. Swallen, 소안련), 헌트(William Hunt, 한위렴) 등이 황해도의 여러 지역을 개척하였다. 1898년 봄에는 리와 마펏이 6개 마을을 방문하여 성인 300명에게 세례를 주고 1천 명에게 학습을 주었다. 평양의 선교사들은 재령 혹은 안악에 두 명의 선교사가 한 번에 한 달에서 네 달 동안 편히 쉴 수 있는 휴양소 마련을 위해 700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안악과 은율에 이를 위한 집들을 구입하였으나 휴양소 건립이 지연됨으로 인해 이 집을 여러 해 후에 팔 수밖에 없었다.⁴⁾

황해도는 개신교 전래 이전에 천주교가 전파되어 왕성하던 지역이다. 1901년 황해도의 천주교인의 수는 2만 명에 달했다. 개신교의 황해도 전래 초기, 황해도 전역에서 다수 천주교인들에 의한 개신교 구타, 갈취, 협박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헌트 선교사는 이러한 사건의 수습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냈다. 재령에서도 천주교인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건물 구입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방해

하는 일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재령 선교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해도 북부에 대한 선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1903년 재령 내 개신교 집단은 단 20개에 불과했다.

장로교 선교사와 조사들에 의해 해주를 중심으로 황해도 남부지역에도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1897년 존슨에 의해 미감리회의 황해도 선교가 착수되었다. 1904-06년 장로교의 황해도선교부가 재령에 개척되고, 비슷한 시기 감리회의 선교본부가 해주에 자리를 잡으며 황해도 교회는 북부의 장로회 강세 구역과 남부의 감리교 강세 구역으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 황해남도과 황해북도는 재령강과 예성강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상 황해도는 중부에 가로놓인 멸약산맥과 언진산맥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문화적, 지리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자연스레 황해도의 북쪽은 장로교, 남쪽은 감리교가 발달하였다. 그럼에도 해주와 평산 등 황해도 남부 지역에도 장로교회가 있었으며 신천, 봉산, 서흥에도 소수의 감리교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미감리회와 북장로교는 황해도 이외에도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등의 지역에서 선교지가 중첩된 지역이 다수 존재했다. 이에 양 교단은 선교지 중첩을 막고 선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905년부터 본격적인 선교지 조정 협상을 시작한다. 오랜 협상 끝에 1909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양측의 대표가 서울 청년회관에 모여 선교구역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양 교단이 이미 자리를 잡은 서울, 평양, 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첩 구역에 대해 기존의 교세를 근거로 하여 구역을 나눴다. 당시의 협상 결과를 미 감리회의 신학월보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황해도는 웅진과 강령과 해주와 백천과 신계 지경이며 평산과 봉산과 서흥은 철로 동편으로 부속하게 하고 수안은 절반을 속하게 하였으며 나머지는 장로교에 속하게 하였다. 평남은 양덕과 함종과 삼화요 성천강은 삼분의 일이요 개천과 순천과 강서는 절반으로 하고 은산은 삼분의 일이요 용강은 벌써 교회 설립하던 대로 하게 하고 평양지경을 사분의 일이요 강동은 벌써 전도하던 대로 하고 맹산은 절반을 속하게 하고 나머지는 장로교에 속하게 하며 평북은 영변, 태천, 운산이요 나머지는 장로교에 속하게 하였다.⁵⁾

2)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884-1934』 p. 218

3) 차재명, 조선장로회사기, 68.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884-1934』 p. 222에서는 한치림이 1895년 세례를 받고 1896년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고 전한다.

4)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884-1934』 p. 219

5) 신학월보,를 김진형, 『초기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87-1910』 p. 139.에서 재인용.

표 황해도의 교계예양 (선교지 분할)

북장로회	미감리회
곡산, 황주, 은율, 문화, 장연, 신천, 송화, 풍천, 안악, 재령, 평산, 봉산 일부, 수안 일부, 서흥 일부	웅진, 강녕, 해주, 연안, 배천, 평산, 신계, 봉산 일부, 수안 일부, 서흥 일부

당시 황해도 지역 선교지 예양은 장로교 측의 상당한 양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장로교는 43개에 이르는 교회와 공동체, 460여 명의 세례교인, 2,000여 명의 신자를 감리교에 넘겼으며, 감리교는 200여 명의 신자만이 장로교로 이관되었다.⁶⁾ 이 중 현재 황해북도 지역에 위치한 봉산(현재의 사리원)을 포함, 수안, 서흥은 장로교와 감리교 모두의 선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장로교와 감리교 모두 선교를 이어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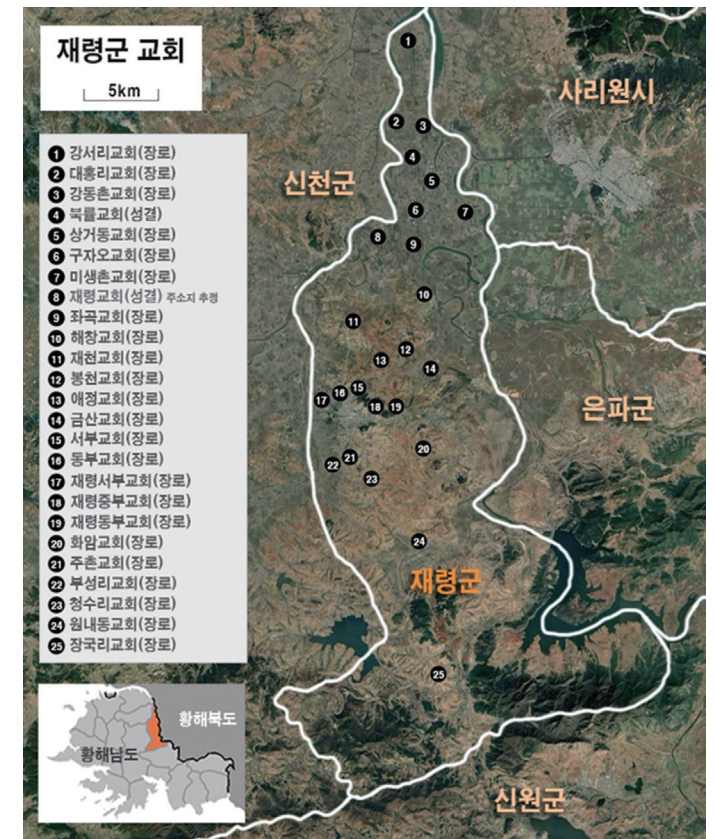
장로교의 재령선교지부(황해도 북부를 담당) 설립과 교회의 성장

미국북장로회는 1906년 5월 1일 재령에 선교지부를 개설했다. 앞서 언급하였듯 북장로교의 황해도 사역은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황해도 선교기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평양 선교부는 안악을 선호한 반면 서울 측에서는 황해도의 도 소재지인 해주를 선호했다. 양측은 협의를 거쳐 1904년 해주와 안악의 중간에 위치한 재령에 선교기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재령은 인구 5,000여 명의 상업 도시로 안악이나 해주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두 도시의 중간에 위치하였고 이후 철도 노선의 연계가 점쳐지는 도시였다. 1905년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선교기지로 재령을 선택한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①재령은 지리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 중앙에 있었고, ②인구도 많았고, ③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교회가 발전하고 있었다. ④재령의 교통은 바다로부터 3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남포로부터 화물을 들여오고 평양으로부터 석탄을 들여올 수가 있었다. ⑤마지막 이유는 재령의 환경이 건강에 유익한 것이었다.⁷⁾

상술했다시피 1903년까지 재령의 기독교 집단은 20개소, 재령읍에서 기독교 신앙고백을 하는 인원은 3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령에 선교부 개설의 논의가 시작되고 선교사들의 방문이 잦아진 1904년부터 재령의 교회는 급속

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선교부가 설치되기 1년 전인 1905년 재령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 지방의 성경공부반은 64개로 증가하였고 같은 해 김창일이 재령교회 최초의 구역장이 되었다. 1906년 12월 12일부터 22일에는 성인 남자 성경공부반이 개설되어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906년 북장로교 선교회 보고서에 따르면, 4명의 한국인 조사와 1명의 권서인이 이 사역을 도왔는데, 조사 3인의 월급을 지역교회에서 감당했다.

1906년 재령에 장로교 선교부가 설치될 당시 황해도 지방에는 황해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미 100여 개의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신자는 5,0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이 수는 1907년 약 7,000명으로 증가했다. 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교사들은 1906년 1천 명이 수용 가능한 예배당을 건축한다. 건축 비용 중 선교사들이 모은 150달러 이외의 전액은 조선인들이 부담하였다. 1907년 재령교회의 주일예배에는 매주 1천 명가량이 참석하였고 1908년에는 두 명의 장로를 장립하여 조직교회가 되었다. 1909년 9월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 박사가 인도한 주일예배에는 2,800명이 참석을 했다. 헌트 선교사는 재령교회 설립시부터 담임을 맡았고 1911년 박태로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박목사에게 담임 목회자의 자리를 물려줬다. 1907년부터 1914년까지 재령선교부(황해도 북부 전체를 관할)에 설립된 교회는 20개에 달한다.⁸⁾ 재령 시내의 두 번째 교회는 1919년 10월 재령교회로부터 분립되었다. 이 교회의 한국인 교역자는 임택원 목사로 1922년 안수를 받았다. 서부교회는 1922년 1,200명이 앉을 수 있는 2층의 예배당을 지었고 1934년 당시 1,2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일제강점기 중반, 재령은 조선에서 가장 큰 부흥을 맞은 지역 중 하나이다. 당시 재령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천도



차재명, 양전백 외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 (서울: 기독교 역사연구소, 2000-2002);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6)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884-1934』 p. 227.

7)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884-1934』 pp. 221, 222.

8) 신광철, 황해도 지역 교회의 역사, 16.

교에서 발행하던 월간지 「개벽」(開闢) 1925년 6월 호에 실린 “황해도 답사기”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재령이야말로 기독교 천하이다. 읍촌을 무론(毋論)하고 재령에서 기독교만 제하고 보면 별로 보잘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종교 방면은 물론 교육도 기독교, 상업도 기독교, 농업도 기독교, 고리대금까지도 기독교인이다. 평북에서 선전을 기독교국이라 함과 가티 황해도에서는 재령을 기독교천하라고 한다. 황해도뿐 아니라 전선(全鮮, ‘전조선’을 의미함)에서도 재령이상으로 기독교가 치성(熾盛)한 곳은 아직 발견할 수 없다.”⁹⁾



1910년 재령에서 열린 여성 사경회에 참석하는 여성들,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사진 출처: 평양대부흥 홈페이지)

재령 교회의 성장을 이끈 것은 사경회 문화이다. 재령선교부가 개설되기 전인 1905년에 재령에서는 평양의 사역자들이 인도하는 사경회가 64번 열려 연인원 3천 명이 참석하였다.¹⁰⁾ 1911년에는 6-9 일간 진행되는 사경회가 6번이나 열렸고 각 사경회마다 1,2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였다. 전교인 대상의 사경회 이외에도 여성사역자 사경회, 여자 주일학교 교사 사경회 등의 소규모 사경회도 활발하게 열렸다. 한 해에는 여선교사 맥쿤(McCune Katharine Ann, 윤가태)이 황해도 북부

지방 480마일을 가마를 타고 여행하며 8번의 사경회를 인도하여 600여 명의 여성을 교회에 등록시켰다. 1910년에는 재령선교부 관할구역에서 총 328번의 사경회가 열려 9,200명이 참석하였으며, 1911-1921년에 이르는 10년간 매년 평균 278회의 사경회가 열려 매년 2만 명의 성도가 사경회에 참석하였다. 191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 총계표에 보면 황해도회 내의 사경회 수는 총 239회로 전국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경회 참여자는 전체의 32%를 차지한다.¹¹⁾ 1918년 후반부 - 1919년 전반부 1년간 사경회 참석자 수는 2만 8천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평양, 선천 선교부의 사경회 참석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1931년 5월 18일 설립 25주년 기념행사 당시 재령선교부가 관할하는 교인 수는 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¹²⁾

9) 유관지, ‘황해남도: 거기 소래교회가 있었다!’, 기독교사상 2017년 12월호

10)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884-1934』 p. 229.

11) 이찬영 『황해도교회사』 pp. 215, 216

12)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884-1934』 pp. 236-230.

재령선교부의 선교사들

미국 북장로교의 황해도 북부 개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헌트(Hunt, William Brewster, 한위럼) 선교사이다. 그는 1897년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897년 10월 14일 내한하여 평양에 정착했다. 이듬해인 1898년 9월 6일 도교에서 약혼녀 버다 핀레이(Bertha Violet Finley)와 결혼하여 10월 5일 아내와 함께 평양으로 돌아왔다.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1892년 조선 북부의 거점을 평양으로 정하고 사역을 넓혀가던 중 1906년 5월 31일 헌트와 더불어 샤프(C. E. Sharp), 쿤스(E. W. Koons), 화이팅(H. C. Whiting)을 재령 선교지부의 개척자로 파송한다. 헌트는 1906년부터 1939년 정년 은퇴까지 재령선교부를 이끌었다. 재령선교부 설립 후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1905년 헌트와 가족들은 선교부 개척을 위한 답사차 재령에서 한 달을 거주하였는데, 이때 헌트의 아내는 병을 얻어 5월 14일 평양에서 소천했다. 헌트는 슬픔을 추스르려 6월부터 한 해동안 안식년을 갖고 재령으로 돌아와 선교부를 개척하고 1936년 10월 은퇴하기까지 일생을 재령선교에 헌신했다.

윌리엄 헌트의 아들 브루스 헌트(Bruce Hunt, 한부선)는 1903년 평양에서 태어나 1906년부터 재령에서 자랐다.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일제 말 조선과 중국 하얼빈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며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했다.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1년 일제에 의해 하얼빈에서 검거되어 단둥과 심양의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1942년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해방 후 조선으로 돌아온 헌트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동지들과 함께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1960년까지 교수로 사역했다.

화이팅 의료 선교사는 1906년 10월 재령으로 이주하여 한국인들과 접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당시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의 외모를 신기하게 여기고 서양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화이팅 부인은 사택을 ‘화이팅 하우스’라 이름 짓고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하도록 했다. 1907년 2월 음력설에는 3일간 1천여 명의 조선인이 화이팅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화이팅 하우스를 통해 여성주일학교, 여성사경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부인



황해도의 교회지도자들과 함께한 헌트 선교사(우측 위가 헌트 선교사, 사진 출처: 평양대부흥 홈페이지)



윌리엄 헌트의 아들 브루스 헌트(Bruce Hunt, 한부선)는 1903년 평양에서 태어나 1906년부터 재령에서 자랐다. (CTS 방송화면 캡처)

차재명, 양전백 외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 (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0-2002);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위 교회중 21 “하느님의교회”는 당시 성결교 내부 갈등으로 분리된 교파로 하나님의교회 혹은 하느님의 교회로 불렸다. 이단으로 구분된 안상홍증인회 하 나님의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을 관리하며 가정성경공부과정을 개설했는데, 그녀가 1915년 개설한 ‘창세기’,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1,300여 명의 여성이 등록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병인 심장병으로 1915년 2월 20일 재령에서 소천하여 평양외국인묘지에 안장되었다. 남편 화이트는 아내의 사망 후에도 재령에 남아 의료선교를 이끌었으며 1919년 3.1운동 직후 급증한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안식년으로 귀국하였다. 미국에 돌아간 후 한국친우회에 가입하여 3.1운동의 실상과 일제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한국 문제에 대한 많은 강연을 이어가는 한편 수 많은 호소문을 자비로 인쇄하여 일제의 만행과 조선인들의 독립 열정을 미국에 알렸다. 그는 미국 귀국 직후 1년간 260회의 강연을 하였으며 1921년 10월에는 한 주 간 덴버에 머물며 한 강연을 통해 덴버한국친우회를 조직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201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화이팅의 딸 해리엇 화이팅(Harriet Whiting)은 선교사 자녀(MK)로서 재령선교부의 중요한 일원이었다. 그가 학업을 위해 1907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선교기지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녀의 긍정적인 성격은 우리가 고립되어 고달프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희망과 빛을 주었다. 한국인 소녀들이 그를 사랑했으며, 일요일이면 한국인 복장을 하며 한 무리의 소녀들과 숨이 막힐 만큼 밀착해 앉아 있는 그녀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어린이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녀에게 반



신원군은 1952년 군면리 대폐합 당시 재령군 신원면, 하성면, 상성면 전체와 은룡면의 일부, 벽성군 나덕면, 금산면의 일부가 통합되어 생겼다. 신원군의 북부는 1952년까지는 재령군에 속했다. 차재명, 양전백 외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 (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0-2002);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했다.”¹³⁾ 해리엇이 떠날 때 선교사들은 “너도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돌아오라”는 덕담을 건넸다고한다. 선교사들의 덕담은 현실이 되어 해리엇은 안셀 길리스(A. W. Gillis)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 1913년 평양에 선교사로 부임한다. 조선에서 자란 해리엇의 조선어 실력은 부부의 조선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해리엇 부부는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왕성하게 이어가던 중 남편인 길리스 선교사가 1919년 3.1운동 당시 송실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배후에서 지원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1919년 7월 부친 파이팅(H. C. Whiting)과 함께 조선에서 철수한다.

황해노회가 앞장선 중국선교

1912년 9월 1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열린 제1회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는 중국 산둥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다. 이 결정은 황해노회의 청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황해노회의 청원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로회를 시작할 때에 제주에 선교사를 보냄으로 신령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깃쁨이 충만한 바이온즉 지금 총회를 시작할 때에도 외국전도를 시작하되 지라(중국) 등디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청원하오며”, 황해노회는 청원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노회의 중진 교역자인 박태



1912년 산둥으로 파송받은 세 명의 선교사 왼쪽부터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13)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884-1934』 pp. 221, 222.

차재명, 양전백 외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 (서울: 기독교 역사연구소, 2000, 2002);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 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로 목사를 선교사로 추천하며 산동선교를 주도하였다. 황해노회의 부노회장 이었던 헌트 선교사는 청원서 제출 1년 전에 산동을 방문하여 현지에 주재한 미국북장로회 선교사들과 협의하는 등 한국교회의 산동선교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¹⁴⁾ 결국 황해도 황주 출신으로 1912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재령읍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박태로 목사가 후배 사병순, 김영훈 전도사를 이끌고 중국 산동성 곡부(曲阜, 취푸)에 선교사로 파송된다. 당시 박태로 목사는 1912년 6월 28일 재령읍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였으나 부임 불과 두 달 만에 선교사로 추대되었다. 박목사는 중국 산동성에서 어학 학습과 중국인 전도를 병행하였다. 1915년 총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교인 총수 40여 명에 이르렀으며 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전한다. 박태로 선교사는 과로와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1915년 일시 귀국하였으나 1916년 소천하였다.

황해노회 목회자들의 정방산 사건

정방산 사건은 1945년 4월에 일어난 황해도 교회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사건이다. 정방산은 사리원, 황주, 재령에 걸쳐있는 산으로 정방산 곳곳에서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산기도 문화가 있었다. 장연서부교회에서 시무하던 박경구 목사는 일제강점기 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교회를 사면하고 정방산에 있는 부친 박태환 장로의 집에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박태환 장로는 박태로 선교사의 동생으로 박경구 목사는 박태로 선교사의 조카이다. 1945년 3월 박경구 목사를 비롯한 황해노회 목사들이 회합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조선의 교회와 시국을 위해 정방산에 올라가 하루밤을 지새며 기도회를 갖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경구 목사를 비롯하여 이승길, 이경울, 방학수, 박기환, 이환수, 김성칠 목사, 그리고 송택선 전도사를 비롯한 몇몇 전도사들이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되었다. 이후 겸임포중앙교회를 시무하던 이승길 목사에게 불만을 품은 한 교인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박경구 목사를 중심으로 한 10여 명의 목사들이 불순한 동기로 정방산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당국에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기도회에 참가한 10여 명의 교역자들 중 급하게 피신한 이환수 목사를 제외한 참석자 모두가 체포되었고 이 중 이경울, 박학수 목사는 수감 2개월 만에 옥중에서 사망했다. 나머지 사역자들은 8.15해방과 동시에 출감하였다. 정방산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박경구 목사는 해방 후 옥중수기인 『옥중천국』을 출간하였고 이후 장연서부교회 담임과 평양신학교 교수로 봉사하던 중 6.25 발발 하루 전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어 옥중순교하였다. 박경구 목사의 가족은 이후 월남하여 박경구목사의 아들 박창환은 목사가 되어 황해노회장, 장로회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박창환 목사의 아들 박호진, 손자 박범까지 목사가 되어 5대째 목사를 배출한 신앙 명문가로 국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¹⁵⁾

감리교회의 황해도 북부 선교

미감리회의 평양선교부는 1900년부터 평양 외곽지역 선교의 일환으로 황해도 서흥, 신계, 수안 등지에 대한 선교를 시작했다. 미감리회는 평양의 충성스러운 사역자 김창식을 1902년 신계에 파송하였다. 김창식은 신계에 주재하며 신계, 서흥, 수안 등을 순회하며 사역하여 이 지역을 신계구역이라 명명했다. 1903년 보고에 따르면 김창식은 부임 후 신계에 3백 냥 하는 14칸 예배당을 마련하였고 배미장에는 소녀매일학교를 운영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는 이 학교가 로라 아너 홈(Layra Arner Home) 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1907년 당시 16명의 소녀들이 출석하여 성경, 찬송가, 국어, 한문, 지리, 대수, 감리



1대 박태로 목사

2대 박경구 목사



2012년 국민일보에 보도된 한국교회 첫 5대 목사 관련 기사. 박태로 선교사의 조카이자 옥중순교자인 박경구 목사의 가족은 월남하여 그의 아들 박창환, 손자 박호진, 증자 박범까지 목사가 되어 5대째 목사를 배출한 신앙명문가로 국내 언론에 소개되었다.

14) 중국어문선교회, “사진으로 보는 산동 선교 100년,” 『중국을 주제로』 2013년 5, 6월호, 통권 137호

15) 노컷뉴스, 2012. 04. 17, ‘개신교 100여 년 역사에 5대째 목회자 가족 탄생’ <https://www.nocutnews.co.kr/news/4253011?c1=262&c2=269>



조선의 사도바울로 불린 감리교의 김창식 목사, 김목사는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황해도 북부에 감리교회를 개척했다.

교 교리를 배웠다.¹⁶⁾ 당시 신계구역은 김창식이 전임으로 담당하였으며 이은승, 황정모, 배니일 등 평양의 사역자들이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서흥군에서는 8년간 천주교에 다니던 2명의 지방 유지가 감리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다. 서흥의 두무골교회는 1908-1909년 크게 성장하여 예배당을 증축하였다 1909년까지 사용되던 4칸 예배당을 헐고 21칸의 예배당을 지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한 성도는 소를 팔아 예배당 건축을 위해 헌신하였다.¹⁷⁾

경의선의 개통과 발전으로 황해도의 사리원, 황주 등이 발전하자 미국감리회 평양선교부는 1923년 사리원에도 교회를 개척했다. 사리원감리교회는 개척 1년 만에 교회는 150여 명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사리원 교회 개척에 앞장선 인물은 당시 평양지방 감리사였던 무어 선교사이다. 그는 평양의 유력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1천 엔, 미국의 후원자들로부터 1천 엔, 이제 막 시작된 사리원교회 성도들에게 5백 엔의 헌금을 작성받아 사리원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했다.¹⁸⁾ 1930년에는 장년 교인 150명과 청소년, 어린이를 포함하여 320여 명의 규모로 성장 했다. 1931년 미국감리회와 미국남감리회와 연합하여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 할 당시 이 지역은 평양지방회에서 분리되어 사리원지방회를 이루었다. 사리원감리교회 성장에는 부흥회가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사리원의 부흥회에 대해 안석준 감리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동안 부흥회는 2차를 하였는데 사리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는 부흥회가 되었나이다. 우리 교회는 물론 사리원 각 교회가 은혜의 비를 맞았나이다. 사면팔방으로 모여드는 사람은 그 수를 헤일 수 없고 목마르고 주린 영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사리원 전체를 흔들었나이다. 예배당 장내는 조금도 틈이 없고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주야로 음식을 잊고 마당이라도 떠나지 않았나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나이다.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됨으로서 새로 믿는 자가 모임마다 많이 생기으며 지난 주일에는 학습인 32인과 13인의 입교인을 받았나이다.¹⁹⁾

16) M. W. Noble, ARKWC, 1907을 김진형, 초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 206.

17) 김진형, 초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p. 207, 208.

18)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10-1950 pp. 166-168.

19) "사리원지방 감리사 안석준 보고," 동부, 중부, 서부 제1회연합회의록, 1931을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10-1950 p. 169에서 재인용.

1930-1933년까지 사리원교회의 담임을 맡아 부흥을 주도했던 안석준 감리사는 이후 남포, 영변 등지에서 사역을 했고 해방 후에는 강서읍교회(현재의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사역을 하던 중 1947년 교인들의 성탄절 가두 찬양 사건으로 공산당국에 체포 되었다 석방된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소천했다. 1939년 감리교의 통계를 보면 황해도 북부의 감리교회로 사리원에 1개, 봉산에 4개, 수안에 4개, 서흥에 8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방 후 황해도 북부에서 일어난 박해와 순교자들

황해도 북부지역은 일찍이 교회가 부흥하여 사회의 주류 세력을 이룬 지역으로 해방 후 38선 이북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교회 박해와 이에 대한 저항이 심했던 곳이다. 또한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6.25 당시 국군의 서울수복 이후 평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남한으로 피난을 왔다. 대다수 성도들은 상황이 안정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휴전과 분단으로 인해 남한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런 이유로 6.25 이후 남한의 교계, 특히 장로교회에는 황해도 북부 출신 지도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의 총회장 중 이환수 목사(47회, 청암교회, 안악), 박찬목 목사(51회, 혜성교회, 안악), 안중섭 목사(71회, 수원제일교회, 황주), 이삼성 목사



은파군에 있던 교회의 위치, 은파군은 1952년 신설된 행정구역으로 이전까지 은파군의 동쪽은 재령군, 서쪽은 봉산군이었다. 차재명, 양전백 외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 (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2002);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77회, 인천제2교회, 황주)가 황해도 북부 출신이며 서대문교회를 개척한 장성칠 목사(인천), 장성칠 목사를 도와 서대문교회에서 사역한 후 도미하여 LA 선랜드한인교회에서 사역한 김창식 목사(장연), 의사 출신으로 1982년 네팔에 파송된 이영훈 선교사(재령) 등이 황해도 북부 출신으로 월남하여 한국교계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다.

북에 남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6.25전쟁 중 순교를 당하게 된다. 특히 국군의 서울수복 이후 공산군의 퇴각 과정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시 황해도 지역에서 극심하게 이루어진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교계의 대응으로 인한 적대적인 상황이 원인이 되었다. 국군의 진격 소식과 함께 나타난 그동안 숨죽였던 반공세력의 활동, 이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대응과 퇴각중이던 공산군의 개입으로 인한 혼란은 황석영의 소설 『손님』에 상세히 묘사되었다. 다음은 황해도 북부에서 순교한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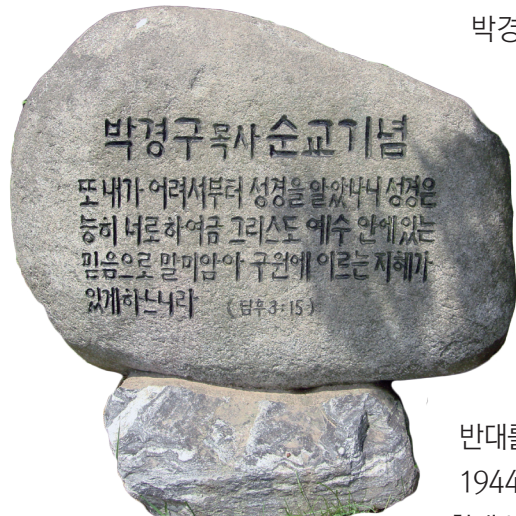
박경구 목사는 최초의 중국 선교사 박태로 목사의 조카로 1903년 황해도 황주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송실중학교와 송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인천 경신학교 교사로 부임했다가 사리원 덕성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임명에 방해를 받아 부임할 수 없게 되어 남포의 덕신학교로 사역을 옮겼다. 193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41년 졸업 후 장연서부교회에 청빙됐다. 박목사는 일제 당국으로부터 신사참배 참여 공문을 받고 제직들과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서부교회를 사임하게 된다. 1944년 검이포중앙교회로 임지를 옮겼으나 검이포에서도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 황주군 정방산자락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들이 함께 산기도를 가진 것을 문제삼아 일제가 목사들을 체포한 소위 “정방산 비밀결사사건”으로 체포되어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해방 후 장연서부교회를 담임하였으며 평양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다. 강량욱이 조직한 기독교연맹 가입을 거부하여 해주감옥에 복역 중, 6.25 발발 후 국군의 황해도 탈환을 앞둔 1950년 9월 28일 순교했다. 박경구 목사는 황해도 노회장과 장로회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한 박창환 목사의 부친이다.

원춘도 목사는 1889년 12월 24일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민족운동에 뜻을 두어 김구의 양산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였고 안악에 순회전도를 온 한위령 선교사의 권유로 1918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33년 졸업

하였다. 그는 황해도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장연읍교회에 부임하여 광진학교와 광진유치원을 설립하였으며 은율군에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농촌교역자 양성에 힘썼다. 해방 후 강량욱의 기독교도연맹 가입을 거부하여 1947년에는 장연교회의 예배당 건축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47년 황해도 목회자들 48명이 비밀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때 원춘도 목사는 반동부르주아라는 이유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949년 출옥 후 풍천읍교회에 부임하였으며 6.25 발발 후 국군의 황해도 수복 직전인 1950년 10월 6일 공산당 내무서에 끌려가 송화군 풍천읍 내무서에 반공포로들과 함께 감금되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⁰⁾

임성근 전도사는 1886년 10월 15일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다. 마을에 찾아온 마포삼열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29세에 동창교회 초대 장로로 세워졌다. 1919년 3.1운동 주도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연도받았으나 1년만에 일본의 황태자 탄생 특사로 석방되었다. 일제 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1943년 만주로 이주하였고 해방 후 인천서부교회에 부임하여 김익두 목사를 도왔다. 1950년 10월 14일 국군의 황해도 수복을 앞두고 김익두 목사와 함께 공산군에 의해 처형당했다.

진학철 목사는 1895년 2월 26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유아세례를 받고 의사인 아버지와 함께 황해도로 이주하여 재령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재령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봉산군 서종면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3월 11일 사리원 장날을 기하여 재령, 사리원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 평양신학교에 진학하여 사역자가 되었으며 1932년 황해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평촌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는 해방 후 강량욱의 기독교도연맹 가입을 거부하였고 신학교 통폐합, 주일선거에 반대하여 공산당의 견제를 받았고 6.25 발발 후 사리원정치보위부에 체포되었으나 탈출에 성공하여 사리원에서 10여 리 떨어진 농장에 기도굴을 파고 숨어 지냈다. 1950년 10월 중순 국군의 황해도 점령 소식에 교회로 내려왔으나 10월 13일 퇴각하는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국



용인 순교자기념관에 세워진 박경구 목사 순교 기념비



용인 순교자기념관에 세워진 진학철 목사 순교 기념비, 진학철 목사는 1950년 10월 13일 퇴각하는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국군 진주 후 황동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2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순교자기념사업회, <https://pck-pcmmma.com/134/?bmode=view&idx=1703365>



기주복 목사는 6.25 전쟁 발발 하루 전 체포되어 평양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령 출신의 김순효 전도사는 이후 신의주에서 사역하던 중 1950년 공산군이 쓴 총에 맞아 소천했다.



김영운 목사는 1950년 6월 24일 안악 정치보위부에 연행되어 해주로 이송된 후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진주 후 황동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²¹⁾

기주복 목사는 1897년 10월 황해도 수안군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주일에 아들을 얻어 이름을 주복이라 하였다. 그는 평양의 송실중학, 송실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만주로 이주하였다가 평양으로 돌아와 송실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다. 송실학교 교사 재직 중 뒤늦게 3.1운동 관련 혐의가 발각되어 1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평양신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졸업 후 수안군 대정리교회, 사리원 계동교회에서 시무하였다. 1940년 정방산 대성사를 방문한 평양 서정리교회 강병석 목사 일행이 천황의 영정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일제 당국과의 갈등이 벌어졌는데, 기주복 목사도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2년의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곡산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1946년 11월 3일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주일선거 반대운동’을 주도하여 11월 8일 사택이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6.25 전쟁 발발 하루 전 체포되어 평양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²²⁾

김순효 전도사는 1902년 5월 5일 재령에서 출생했으며 부친은 재령동부교회 김두한 장로였다. 그는 재령 명신학교와 서울 정신여학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졸업 후 동부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였다. 1931년 장로회 총회 파송 최초의 여성 선교사로 중국 산둥성에 파송되었으며 해방 후 귀국하여 평양신학교 사감, 신의주제2교회의 전도사로 시무했다. 1950년 공산군이 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²³⁾

김영운 목사는 1902년 7월 경북 경산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송실전문학교를 마치고 목포의 정명여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중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38년 졸업 후 황해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안악읍교회에서 사역했다. 해방 직전 안악읍교회 당회장이던 정일선 목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교회를 말지 못하게 된 후 당회장을 맡았으나 김영운 목사도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투옥되었다. 해방 후 1948년 황해노회장에 피선되어 안악성경학교 교장직을 맡았고, 장로회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다. 1950년 6월 24일 안악 정치보위부에 연행되어 해주 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용당포 앞바다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⁴⁾ 김영운 목사의 장남 김정식은 6.25에 군의관으로 복무한 후 도미하여 뉴욕에 정착하여 뉴저지주립대학 교수, 뉴욕한인교회 장로로 활동하며 재미 한인사회와 한인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1) <https://pck-pcmmma.com/134/?bmode=view&idx=1703536>

22) 황해노회 80년사 p. 237

23) 황해노회 80년사 p. 239

24) 황해노회 80년사 p. 240

이창실 목사는 1890년 황해도 송화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송천교회에서 설립한 해서제일학교에 입학하였고 소래에 위치한 금세학교를 졸업한 후 풍천 양재학교, 광선학교의 교사를 역임했다. 1918년 평양신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이듬해인 1919년 3.1운동 당시 고향 은율의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금당하였다. 이후로도 독립운동에 매진하여 옥고를 치렀으며 해창교회, 재령읍교회, 재령군 거실포교회 등에서 전도사로 시무하였다. 1935년 평양신학교를 18년 만에 졸업한 후 거실포교회에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해방 후 사리원 남부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기독교도연맹 가입을 거부하고 강단을 지키다가 1949년 4월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공산당 내무서에 의해 연행되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⁵⁾

김익두 목사는 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났다. 1900년 스왈렌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1901년 스왈렌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김익두는 말씀 읽기와 기도, 전도에 열심을 내어 1901년 10월에 재령읍교회 조사로 청빙되었고 1903년에는 신천으로 임지를 옮겨 신천에 교회를 개척했다. 신천읍교회 개척 당시의 상황을 김익두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내가 내 이야기 해서 미안하지만, 한마디 하자. 내가 신천에서 전도인으로 있을 때, 장날마다 전도했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나 몹시 욕을 하는지, 그 욕 한마디가 쌀 한 알씩이라면 쌀이 몇 섬 될지 모르겠다.....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이 떡살을 잡고 때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욕만 했지 열 달 동안이나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아니 믿었다.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세 사람만 믿게 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 이튿날 전도하는데 어떤 총각이 믿겠다고 했다. 또 눈가죽이 뒤집힌 여인이 예수 믿겠다고 했다...또 상투쟁이 네 사람이 믿겠다고 했다. 또 다섯 사람, 열 사람 ... 하나님께 세 사람 달라고 기도했는데 30인이나 주셨다. 20-30인이 300명이 되고 지금은 8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²⁶⁾

김익두는 1906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10년 졸업 후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로 그는 부흥강사가 되어 수많은 사경회를 인도하였고, 치유, 축귀 등 수많은 기적이 그를 통해 일어났다. 장로회 제9회 총회 당시 황해노회의 보고

25) 김중희, “하나님과 거례를 함께 사랑한 애국애족의 순교자, 이창실 목사,” 새가정, 2009 pp. 68-71.

26) 김익두, ‘기도의 종교’, 이성호, 『김익두 목사 설교 및 약전집』



이창실 목사는 사리원 남부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기독교도연맹 가입을 거부하고 강단을 지키다가 1949년 4월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공산당 내무서에 의해 연행되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두 목사는 1950년 10월 14일 국군의 황해도 점령을 앞두고 패주하는 공산군에 의해 살해당한다.

에 따르면 김익두 목사의 부흥집회에는 보통 3-4천 명이 모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일제 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1942년에 목사직을 박탈당하였고 해방과 동시에 복권되었다. 해방 후 북한지역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가운데,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의 회장을 잠시 맡기도 하였으나 어용단체인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실체를 발견하고 연맹을 탈퇴한다. 6.25 전쟁 발발 후 1950년 10월 14일 국군의 황해도 점령을 앞두고 패주하는 공산군에 의해 살해당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춘근 성도는 남한으로 도피하여 김익두 목사의 일대기와 최후를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를 통하여 기록했다.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사리원의 기독교 관련 증언들

황해북도는 북중국경과 거리가 멀고 바다와 연결되지 않아 탈북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황해도에 대한 비공식 정보들은 타지역에 비해 외부로 많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황해도 북부의 기독교 소식은 자주 외부로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황해도 지방의 교세가 워낙 강성했고 공산정권 수립 후 지하교인들과 그 후손들이 건재하여 이들에 대한 박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선교사와 탈북민들이 발표한 회고록과 인터뷰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사리원의 지하교회 관련 소식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초, 86명의 지하교회 집단이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북한의 사회안전부는 남한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성경을 밀수하는 경로를 파악하려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회안전부의 한 여성 요원이 그녀의 27세 딸을 비밀요원으로 지하교회에 침투시켰다. 보위부원의 딸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몇 사람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끝에 지하 교인들의 예배장소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교인들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예배 전에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다. 비밀보위부원은 이 이야기를 모두 머릿속에 담았다. 86명의 이름을 전부 외울 만큼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녀의 보고로 비밀 교회는 무너졌다. 이 사건은 사회안전부 출신 탈북민 이민수의 증언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²⁷⁾

이반석은 2004년 국내에 입국한 지하교회 성도 출신 탈북민의 인터뷰를 소

개한다. 그 탈북민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서 성경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던 중 체포되어 심문 과정에서 보위부원을 통해 들은 사리원의 지하교회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나는 1998년 3월 중국에 있는 이모 댁에서 성경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국경에서 체포되었다. 그때 심문을 받던 중 보위부원이 1995년 사리원 지역에서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그렇게 큰 규모의 그리스도인을 체포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 보위부원은 나에게 그런 사람들과 섞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 이 사건은 동천 사리원에서 일어났는데, 그 모임 안에 간첩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보위부가 들어닥쳐 성도들이 비밀 예배를 드리던 장소를 둘러쌌다.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나 또한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내 생각엔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 그곳에 자주 갔었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와 예배를 위해 모인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 같다.²⁸⁾

위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다른 탈북민의 증언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북한종교자유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탈북민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북한에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비밀강연이 있습니다. 1998년 가을에 한 비밀강연에서 들었는데, 황해도 지방에 한 기독교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전국적으로 선이 퍼졌답니다. 그런데, 지구 책임자 회의를 ○○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국가보위부에서 30대 초반의 여자를 그 모임에 집어넣었답니다. 김일성종합대학까지 나온 여자를 교회에 침투시켜서, 거기서 완전히 신임 얻고 잘하고 하니까, 그 여자가 중앙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책임자들이 와서 중앙 회의를 함남도 어디에서 했는데, 그 여자도 그 회의에 들어갔고, 그 사실을 보위부에 알려줘가지고 몽땅 다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몽땅 다 잡아서 처형했다고 강연했습니다. 그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보위부에서 잡아, 정치범으로 취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데는 관리소박에 없습니다. 그 사람

27) “기독교인 86명 비밀 예배보다 ‘수난’” NK조선, 2001. 06. 15

28) 이반석,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

들 관리소 가면 다 죽입니다. 가기 전에 총살한 것도 있었겠죠. 중국에서 마약을 철저히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를 마약처럼 철저히 제거합니다." ²⁹⁾

위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들이 각각 별개의 사건인지, 동일한 사건이 보위부원과 북한정권에 의해 각색되어 사용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리원에서 대규모의 지하교회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이다.

국내 한 언론사는 1996년 ‘북한 지하교회 1백개 살아있다’라는 르포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중국에서 만난 사리원 출신 성도의 이야기를 전한다.

나의 부친은 해방 전부터 황해도 사리원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던 장로였고, 모친은 권사였다. 해방 전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월남하면서 교회의 기물과 짐을 아버지에게 맡겼던 일도 기억난다. 가족은 7남매였는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모두 신앙생활을 했다. 아버지는 밥상을 받으시면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기회가 날 때마다 우리 남매에게 주기도문을 외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성경책과 찬송가도 몰래 숨겨놓고 꺼내보곤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가족에 헤어날 수 없는 불행이 찾아든 것은 1965년이였다. 우리 식구 중 셋째 오빠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도가 지나쳤는지 오빠는 20여 명의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며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던 것이다. 누군가의 밀고로 이 교회가 발각돼 오빠는 밤에 끌려가 행방불명됐다. 오빠와 접촉했던 20여 명의 교인들도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이 와중에(1970년) 부모님이 연이어 강제노동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다. 눈을 감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다. ³⁰⁾

기사는 위의 성도와 별개로 당시 중국 길림성에 거주중이던 탈북자 김용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황해북도 출신으로 해방 전부터 신앙을 유지한 김용순 할머니는 80년대 중반에는 28명 규모의 지하교회를 이끌었으며 주변

에 있는 30여 개의 지하교회와 교류를 이어갔다. 지하교회 간의 교류 과정에서 교회가 발각되었으나 김용순 할머니는 보위부 고위 간부로 근무중인 조카의 도움으로 탈북하여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³¹⁾

2018년 국내 한 선교단체를 통해 사리원 지하교회의 지도자 차덕순에 대한 북한의 반종교 교육 영상이 공개되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제작된 동영상에 따르면 차덕순은 중국에 살고 있는 삼촌을 만나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나 삼촌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홀로 고생하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요녕성(遼寧省) 심양시(瀋陽市)에 위치한 서탑교회에 들어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 이후 북한에 돌아가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여러 물질을 제공하는 한편, 그루터기 성도들을 찾아 함께 예배를 드렸다. 다음은 북한의 보위부가 제작한 반종교 교육 영상의 내레이션 전문이다.

사리원시의 어느 동에 살고 있는 차덕순은 대학생으로서 종교미신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일시적인 생활난이 제기되자, 요행수를 바라면서 미신에 빠져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차덕순은 한 점쟁이로부터 서북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되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허황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교활한 점쟁이가 차덕순의 삼촌 한 명이 이웃나라에 산다는 것을 알고 차덕순을 비법월경으로 부추기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덕순은 점쟁이가 바라는 대로 이웃나라의 삼촌한테 가면 도움을 받는다. 몰래 갔다와도 별일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어느 해 겨울 날 국경을 몰래 넘어 이웃나라로 비법월경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삼촌은 나이가 많아 이미 전에 사망하였고 삼촌의 자식들은 돈 벌이하러 어디론가 떠나가서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게 된 차덕순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눈내리는 이국의 거리를 헤매었고 천대와 멸시 속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 어느 날 차덕순의 귓가에 어디선가 들리는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덕순은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종소리는 서탑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서탑교회는 목사의 위장된 신분을 가진 남조선 괴뢰 정탐기관 놈들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이곳은 놈들이 갈 곳 없어 찾아오는 비법월경자들에게 반공화국 종교교육을 주어 간첩으로



북한의 반종교교육 영상에 등장하는 지하교회 사역자 차덕순 (사진 출처: 한국 기독교일보)

29) 탈북자 송OO, 2008년 8월 면접,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백서 2012』172

30) 북한 지하교회 1백개 살아있다. 월간조선, 1996년 5월호 p.282

31) 북한 지하교회 1백개 살아있다. 월간조선, 1996년 5월호 p.262

전략시키는 정탐 모략 소굴이었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념이 확고치 못했던 차덕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놈들로부터 북조선에 다시 들어가 지하 종교망을 조직할 데 대한 간첩 임무를 받은 차덕순은 다시 조국으로 나왔으며 법 기관에 찾아와 거짓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는 죄과를 따져 묻지 않은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고맙게 여길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악용하여 간첩 임무 수행에 광분했습니다. 그는 생활 곤란을 내세우고 장사의 미명하에, 함흥, 청진, 혜산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치면서 신념이 없는 불평불만 자들과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시기 종교와 미신을 믿던 자들과 그 자녀들을 찾아내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고 종교 교리를 선전했습니다. 그는 사리원시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종교를 믿어 오던 사리원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리기창, 재령교회 집사의 딸 김순녀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 종교망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일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차덕순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경암산의 구석진 곳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일요일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자료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종교 미신에 빠져 허황한 하나님의 세상을 세운다고 책동하던 종교 광신자 차덕순의 정체는 경각성 높은 군중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습니다.³²⁾

위의 내용은 북한 당국에 의해 악의적으로 각색된 것으로 특정 임무자들에게 대한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오히려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지하교회와 그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의하면 2016년 사리원 길성포항에서 지하교회 관련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원시 신흥동에서 순대파는 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토대가 아주 안좋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 엄마가 옛날에

사리원에 5월 1일 방직공장에 여공으로 있으면서 일을 그렇게 잘했대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70년대에 김일성이 현지지도왔을 때 김일성한테 대표로 꽃다발을 증정했어요. 보통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꽃다발 증정하면 그 증정한 사람은 온 가족이 출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토대를 파보니까 워낙 안좋아서 꽃다발 증정해도 신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죠. 그만큼 토대가 안좋은 집안이었던거죠.

2016년도에 사리원에서 필체 조사를 아주 세게 하는 거예요. 보위부인지 안전부에서 3일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게 하고 왼손으로 글을 쓰게 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소문이 돌기를 ‘시내에 체제 비판하는 낙서를 누가 써놔서 범인 색출하러 필체 확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사리원 사람들 자필 받아가느라 시내가 들썩였어요. 사람들도 괜히 잘못걸릴까봐 별별 떨었죠. 그런데 몇 개월 즈음 지났을까? 그 범인이 잡혔다는거예요.

그 때부터 잡힌 여자 소문이 돌았죠. 신흥동에 순대 파는 여자인데 그 엄마가 김일성 꽃다발 주고, 토대 안 좋고, ...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저도 알고 있는거죠. 그 여자가 연애하던 남자한테 버림받아서 화김에 체제 비판하는 낙서를 써서 붙였다고 소문이 돌았죠.

얼마 있다가 길성포 항구에서 공개 처형을 했어요. 가기 싫어도 참관해야죠. 가보니까 순대파는 여자랑 식당 지배인 하던 여자랑 둘이서 입에 재갈을 물은 채로 묶여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재갈이 물려 있으니까 말을 못하죠. 공개처형 하기 전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존엄을 모독했다. 자필로 체제를 훼손하고, 성경책, 미신책을 집에 숨겨놓고 읽었다. 안기부의 검은 돈을 받아먹었다....” 그런 판결문을 읽더라고요. 판결문 내용 낭독하는건 공개처형에 참관한 사람들 다 같이 들었죠. 그 뒤로 그 여자 가족들도 다 추방됐어요.³³⁾

상술한 내용 이외에도 전 조선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민에 의해 전해진 1959년을 전후하여 황해도 재령군 재령면에서 송목사가 재령, 안악, 신천에 200여 개소의 점 형태로 5천여 명의 신자들을 연계 망라하여 지하교회를 운영하던

32) 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Z1srVAEFceo>

33) 탈북민 이○○인터뷰, 2025년 9월

것이 적발되어 체포, 처형되었다고 전한 사건³⁴⁾, 탈북민 홍성동씨가 1988년 사리원 출장 중 우연히 만난 지하교인과의 대화 중 들은 “사리원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찾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숨어 사는데 더러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더러는 지금 이렇게 추방되어서 살고 어쨌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라는 내용 등의 사리원 지하교회 관련 사건이 국내에 알려졌다.³⁵⁾

나가며

사리원을 비롯한 황해도 북부지방은 서울과 평양의 가운데 위치하여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다. 1906년 재령에 미국북장로회 선교부가 설치된 이후 교회가 부흥하여 재령은 ‘선천은 기독교 왕국 재령은 기독교 천하’, ‘전 조선에 재령만큼 기독교가 왕성한 곳은 없다’는 명성을 얻게 된다. 재령은 조선의 중소도시 중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도시였다.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앞장선 황해도 북부의 목사들 대다수가 옥고를 치렀으며 일제 말 소위 ‘정방산 사건’으로 두 명의 목사가 옥중에서 순교했고 다수의 교역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해방 후 공산주의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재령, 안악, 사리원을 비롯한 황해도 북부에서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했다. 특히, 6.25전쟁 시 9.28 서울수복 이후 혼란한 상황 가운데 김익두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 처형을 당하였다. 전쟁 후 공산정권의 교회 핍박은 더욱 극심해졌다. 그러나 황해도에 남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지하화하여 믿음을 이어 갔으며, 북한당국은 지하교회 적발에 열을 올려 많은 교회들을 적발해 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제작되어 2018년 국내에도 공개된 ‘사리원의 지하교인 차덕순’의 영상에서 알 수 있듯 북한정권은 지금도 지하교회를 경계하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 천하’라 불린 기독교 도시 재령, 재령과 이웃한 교통의 요지이자 지하교회 적발 사건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리원, 두 도시를 포함하는 황해도 북부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34)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월간 북한 1995년 7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p. 57.

35) ‘탈북자 홍성동씨가 증언하는 북한 지하교인들의 실태,’ VOA, 2006.06.02., <https://www.voakorea.com/a/a-35-2006-06-02-voa9-91244329/1303276.html>

“한위럼(William B. Hunt) 선교사의 재령선교와 한국 장로교회”

박응규 명예교수
(아신대학교/ACTS, 역사신학)

여는 말

황해도 재령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교사들 중에 한위럼(William B. Hunt, 1869-1953) 선교사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위럼의 재령선교는 마포삼열(Samuel A. Moffett)을 통해 평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을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으로 파급시키는 데 도관의 역할을 하였다. 재령선교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존 로스(John Ross)와 존 맥킨타이어(John McKintyre)와 함께 성경번역 사업에 동참하고 권서(勸書)로 활동했던 서상륜의 아우 서경조의 전도활동에 힘입어 시작된 한국 교회의 요람, 소래(松川)의 기독교 운동을 보다 강화하고 확산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위럼의 재령선교의 역사적 의미는 지금까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언더우드(Horace Underwood)나 평양에서 장로교 신앙과 체제를 확고하게 정립시킨 마포삼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한위럼이나 그의 아들 한부선(Bruce F. Hunt, 1903-1992)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매우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한위럼의 재령선교가 한국 장로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¹⁾

1) 한위럼의 재령선교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박응규,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 한부선 평전』(서울: 도서출판 그리스, 2004), 26-58; “한위럼(William B. Hunt)의 황해도 재령 초기 선교역사,” 『교회사학』 4:1 (2005): 149-174.



한위령의 조부인 티모시 헌트(Timothy Dwight Hunt)는 하와이 선교에 앞장섰던 인물이며, 샌프란시스코에 최초의 개신교회를 설립한 목회자이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와 샌안셀모신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였다.

1. 재령 선교의 개척자, 한위령의 신앙배경과 한국 입국

1. 1. 미국 청교도 신앙과 선교운동의 계승자

한위령은 1897년에 한국 파송 선교사로 임명받아 그의 첫 안식년을 갖기까지 평양에 활동하였다. 한위령은 1869년 10월 2일 일리노이주의 오타와(Ottawa)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인, 버타 핀리 헌트(Bertha Violet Finley Hunt, 1868-1905)도 같은 주 출신이었다. 한위령은 당시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의 부흥운동이 “1900년까지 세계복음화(World Evangelization by 1900)”라는 표어와 함께 전도와 선교 지향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성장하였다. 시카고 근교에서 자란 한위령은 1894년에 래익 포레스트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프린스턴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한위령은 어릴 때부터 청교도 신앙과 선교적 비전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Mayflower)를 타고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 윌리엄 브루스터(William Brewster)와 존 헌트(John Hunt)의 후손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성경대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열의가 무척 강했으며 언약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그의 조부인 티모시 헌트(Timothy Dwight Hunt)는 예일대학교 출신으로 하와이 선교에 앞장섰던 인물이며, 서부 개척운동이 한창일 때인 1849년에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 최초의 개신교회를 설립한 목회자이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와 샌안셀모신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였다. 또한 부친인 제임스 헌트(James Richard Hunt)도 신실한 신앙인이요 장로로서 시카고 근교 오타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한위령은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자원하였다. 그 당시 미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은둔의 나라” 한국에 대한 선교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열정은 후에 아들인 한부선에게도 계승되었다.

미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는 1892년에 서북 지역의 선교사업 중심지로 평양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복음전도 사업에 돌입한 이래, 이 지역은 이미 만주에서 권서인과 전도인으로 활동했던 한인 성도들의 활약과 마포삼열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선교부는 선천(宣川)에 이어 황해도의 지리적 중심지였던 재령에, 그리고 남부 지역인 청주에 선교본부(mission station)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가 황해도에 새로운 선교본부를 개척하면서 재령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이 좀 더 쉽게 성도들과 거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리적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1. 2. 한위령의 재령선교 개척과 헌신

재령은 당시 도청 소재지이자 정치적 중심지였던 해주나, 교통의 중심지였던 사리원보다는, 선교사들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용이하게 만날 수 있는 조그만 읍이었다. 바로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재령을 선교의 중심지로 선택한 것이다. 재령을 개척한 선교정신은 바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개념” 때문이었다. 1906년부터 본격적인 재령 선교 개시를 위하여 1905년 4월 10일에 한위령과 군예빈(Edwin W. Koons) 선교사 부부, 그리고 의사였던 황호리(Harry C. Whiting) 의료선교사 부부가 여선을 타고 평양 대동강을 떠나 황해도로 주택, 병원, 그리고 성경학교를 건축할 장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한부선과 그의 누이 도로시(Dorothy)도 어린 나이였지만 앞으로 그들의 고향이 될 재령을 부모와 함께 다녀왔다.

그러나 한위령 선교사의 부인이 새로운 선교지 재령을 탐방하며 한 달간 머물다가 평양에 돌아오자마자 수일간 앓다가, 그만 1905년 5월 1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수많은 한국 성도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또한 숭실중학교와 여성들을 위한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이미 몸은 매우 과로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재령을 다녀오면서 후두염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폐렴으로 악화되어 짧은 인생 여정을 마감한 것이다. 한위령은 사랑하는 아내를 첫 선교지 평양에 묻고, 후에는 차남 로이드(Lloyd)마저 잃는 슬픔을 당하면서도, 새로운 선교지 재령을 중심으로 황해도 복음화를 위한 헌신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선교본부를 설치하고 효과적인 선교방법들을 실행해 나갔다.



한위령(William B. Hunt, 1869-1953) 선교사 (사진 출처: 크리스찬타임즈)

2. 한위령 선교사의 재령선교의 특징들

2. 1. 미국 청교도 신앙과 장로교 전통의 강조

평양과 재령은 미 북장로교의 한국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선교본부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위치가 되었다. 평양에 선교부가 설치되면서 선교사업은 예상외로 발전해 나갔으며, 교회는 현저하게 급성장하였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불굴의 기상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평양에서 행한 선교는 가시적인 열매가 맺어졌다. 선교사들은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양육하는 것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시행하였다. 북장로교 선교부는 미국 청교도들과 장로교회가 추구했던 원리를 초기부터 한국교회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1937년 재령 남자성경학교 교사들과 선교사들(앞줄 맨 우측이 한위럼 선교사, 출처: 평양대부흥 홈페이지)

시작된 평양선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로교회의 전통과 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마포삼열은 교회의 주요한 기능인 예배와 성례전, 그리고 교회의 직제(職制)를 설정하여 장로교회 전통을 평양에 든든하게 세웠다. 그는 교회중심의 선교 그리고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교회형성에 있다고 보았으며, 교회의 거룩함과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인은 먼저 교회에 대한 권리보다는 교회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했다. 또한 신앙고백과 신조의 중요성과 언약의 의미를 매우 강조하

였다. 이러한 특징은 평양과 함께 재령에서도 한위럼을 통하여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2. 2. 한국 장로교회의 자립추구: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철저한 적용

장로교회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마포삼열은 자진전도와 자력운동 그리고 자주치리의 세 가지 원리를 한국 장로교회의 중요한 특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선교의 비전을 황해도 재령에 실현되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마포삼열의 동역자인 한위럼이었다. 이러한 선교활동의 결과 한국장로교회는 초기부터 자립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신실한 교역자들이 배출되어 일제 강점기로 치닫는 와중에서도 교회는 성장 일로에 있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자 국가의 정치체제는 와해되어 갔지만, 노회를 비롯한 총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한위럼은 1939년도까지 황해도 재령에 머물면서, 노방 전도와 지방순회 전도활동, 미자립 교회에서의 설교와 사경회 및 성경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교회 개척과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지방 순회전도 활동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일 년의 약 삼분의 일은 집을 떠나 여러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귀가하곤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위럼은 성경과 찬송가와 다양한 전도지 등의 문서들을 권서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황해도 지역 곳곳에 보급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한위럼의 사역에 힘입어 재령 지역의 교회들이 현저하게 성장했는데 황해도에 있어서의 교회 성장은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간주될 만큼 획기적인 것이었다.

재령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1893년에 설립된 신한포교회였다. 그 후 재령읍 교회가 1895년에 설립되어 이 지역의 모체교회 역할을 하였다. 재령읍교회는 한

위럼 목사가 부임한 후인 1906년에 십자가형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교회는 교세가 계속 부흥되어 1922년에 서부교회가 분립할 때 재령 동부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었으며, 재령지역 다른 교회들의 설립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개척 선교 당시에 한위럼 목사처럼 널리 복음을 전파한 이는 없으며,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확고한 제창자로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한위럼은 네비우스 선교방법이야말로 신약성경의 전도원칙이며, 한국교회가 자립하는 첩경이고, 한국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지도자와 전도자, 그리고 해외로 나가 사역할 선교사들까지 양성할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입신자(入信者) 각자가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연구에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격려했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은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성경연구에 근거한 자립, 자치, 자전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국 장로교회의 성경적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 나갔다.

2. 3. 다양한 선교사역을 통한 복음전파

한 작은 읍이었던 재령은 황해도 지역의 교회 부흥과 다양한 사경회, 재령 성경학교 운동, 그리고 명신(明新)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 등을 주도해 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에서 진행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세워진 여러 성경학교들을 통하여 배출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전도와 봉사활동에 헌신하였다. 명신학교는 황해도 유일의 중등학교로 평양의 숭실(崇實), 선천의 신성(信聖)과 함께 민족지도자 양성의 큰 공을 남긴 학교로 일제 말기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심한 감시와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특히 1938년을 전후한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와 학교가 시련을 겪을 때 명신학교도 수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08년에는 재령 제증병원이 설립되어 황호리 선교사가 순회진료와 의료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 선교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 병원은 1920년 황호리 선교사가 사임한 후 스미스(Roy K. Smith) 박사가 1922년부터 1934년까지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인 의사들과 함께 동역하여 재



재령의 지도자들과 함께한 한위럼 선교사(사진 출처: 평양대부흥 홈페이지)

1907년 평양에서 열린 북장로회 선교사 연례 모임, 맨 아래줄 우측 끝에 모자를 들고 앉은 이가 한위럼 선교사(출처: 평양대부흥 홈페이지)



령 지역의 의료사업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렇게 재령선교는 복음전파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의료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전도(Evangelism)와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을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2. 4. 한국교회 해외선교의 효시

“재령선교의 아버지,” 한위림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는 첫 목사인 박태로와 함께 김영훈과 사병순 목사를 1913년에 중국 산둥성의 중앙에 위치한 래양(萊陽, Laiyang)현에 선교본부를 개척하기 위해 선교사로 보낸 일이었다. 중국 산둥성 선교는 한국교회에 의해 외국 땅에서 행해진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역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의 교포 선교가 아닌 현지인 선교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한국교회에 의한 해외선교의 효시였다. 또한 이것은 네비우스 선교방법이 강조하는 자전(自傳)의 원리가 한국교회에 토착화되어 한국 이외의 선교지에 본격적인 전도활동에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산둥성 지역은 이미 미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선교활동을 했었고, 한국교회도 중국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타문화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이었고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므로 선교의 열매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산둥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으며 방효원과 사병순에 의해 선교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산둥선교야말로 일제시대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선교 업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시련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선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의견은 이미 1912년 한국 장로교회 제 1회 총회 때 결의되었지만, 이 결정을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한위림 선교사였다. 당시 총회 선교부 부원이었던 그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선교가능 지역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교회의 지도자들과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과도 협의하여 한국교회의 첫 해외선교를 실현하는 데 앞장섰다. 미 북장로교 선교부는 이미 래양현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한국 장로교회에 선교권을 이양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북장로교 선교부는 그들이 사용하던 시설과 소유지를 한국 장로교회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재령읍교회에 위임목사로 시무했던 박태로는 중국선교의 길을 트기 위해 먼저 산둥지역을 답사하였고 후에 평양의 사병순과 신천의 김영훈과 그들의 가족들이 방문함으로써, “동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복음화”하

기 위한 선교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선교를 향한 한국 장로교회의 복음의 열정은 한위림과 박태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갔다. 1912년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를 결성하자마자, 총회조직 기념으로 중국 산둥선교를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던 피선교국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으로의 발돋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한국교회의 자립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초창기에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된 한국교회는 첫 총회 때 벌써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다. 물론 한국교회의 산둥 선교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전개된 것은 아니었으며, 적지 않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계승되었다. 이 산둥선교야말로 일제시대의 한국 교회가 자기 능력으로 외국에 선교하여 성공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다.

일제의 합방으로 인하여 시련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도 산둥선교를 통한 중국 복음화의 선교적 거보(巨步)를 내딛는 데 한위림의 노력은 매우 중요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교에 대한 타고르는 열정은 한위림으로 하여금 한국 장로교회가 초기부터 중국선교를 품을 수 있는 산파역할을 하게 하였다. 한위림은 한국교회를 통한 중국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적인 안목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지역의 선교는 단순한 복음전도의 차원을 넘어 민족운동의 기지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북간도의 옹정, 훈춘, 서간도의 하얼빈, 안동, 남쪽의 상해는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중국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닫는 말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둔화되고 영적 활력을 상실한 가운데 새로운 활로를 시급하게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승해 왔듯이 우리에게 전해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Unchanging Word)”을 “변화무쌍한 이 세상(Changing World)” 속에서 부단히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면서 성경적 신앙과 장로교 신학적 정체성을 타협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교회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청교도 신앙의 유산과 장로교 신학적 전통의 토대 위에서 포괄적인 선교사역으로 재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프린스턴신학교 출신 한위림 선교사의 사역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한국 장로교회에 남겼다. 



1912년 산둥으로 파송받은 세 명의 선교사 왼쪽부터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황해북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이한복 (정선교회 목사)

황해도

‘황해도’라는 지명은 조선 건국 초기인 1395년 ‘풍천(豊川)’과 ‘해주(海州)’의 지명을 따서 ‘풍해도(豊海道)’로 불리다가 1417년에 ‘황주(黃州)’와 ‘해주(海州)’의 머리글자를 따서 ‘황해도(黃海道)’로 개칭하여 불렀다. 일제강점기에는 행정구역이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구분되지 않고 ‘황해도’였다. 해방 이후 북한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1954년 10월 황해도를 둘로 나누어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구분되었다.

황해도에는 일제강점기 12개의 성결교회가 설립되었다. 황해남도에도 재령성결교회(載寧聖潔教會), 신천성결교회(信川聖潔教會), 연안성결교회(延安聖潔教會), 해주성결교회(海州聖潔教會), 문화성결교회(文化聖潔教會), 해주항성결교회(海州港聖潔教會) 등 6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황해북도에는 사리원성결교회(沙里院聖潔教會), 매양성결교회(梅楊聖潔教會), 신막성결교회(新幕聖潔教會), 곡산성결교회(谷山聖潔教會), 검이포성결교회(兼二浦聖潔教會), 황주성결교회(黃州聖潔教會) 등 6개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지난 호(“황해남도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에서 편집진의 ‘재령성결교회’는 다음 호인 “황해북도 성결교회들의 이야기”편에서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난 호에서 소개하지 못한 재령성결교회(載寧聖潔教會)와 황해남도에 설립된 사리원성결교회(沙里院聖潔教會), 매양성결교회(梅楊聖潔教會), 신막성결교회(新幕聖潔教會), 곡산성결교회(谷山聖潔教會), 검

이포성결교회(兼二浦聖潔教會), 황주성결교회(黃州聖潔教會) 등을 이번 호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사리원성결교회(沙里院聖潔教會)

사리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평양과 개성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 ‘원(院)’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리(沙里)’에 숙박시설인 ‘역원(驛院)’이 설치되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일제강점기 사리원은 경성에서 신의주로 향하는 경의선 철도와 국도가 지나며 황해선(黃海線)과 장연선(長淵線) 등의 철도 기점으로 주변지역으로 통하는 도로가 발달하여 황해도 북부지방의 교통 중심지였다. 또한 주변지역 농산물의 집산지로 1926년 당시 북한 지역에 있는 시장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 시장과 함께 거래규모가 가장 큰 시장으로 경제의 중심지였다.

1912년에는 봉산군의 군청이 사리원면으로 이전하였고 1931년에는 사리원읍으로 승격되면서 황해도 북부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현재에도 평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사리원을 지나고 있다.

1926년 사리원성결교회가 설립될 당시 사리원에는 서부장로교회(1897년,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면 북리), 대원리장로교회(1914년,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대원리), 동부장로교회(1923년,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북리) 등 3개소의 장로교회와 1개소의 감리교회(1920년,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북리)가 세워져 있었다. 당시 사리원의 총인구는 13,700여 명이었고 그 가운데 조선인은 12,300여 명, 일본인은 1,400여 명이었다.

동양선교회는 황해도지역에 성결교회설립을 준비하며 기도해 오던 가운데 1926년 6월 25일에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한 이준수(李峻洙) 전도사를 주임교역자로 변남성(邊南星) 전도사를 부임교역자로 임명하여 8월에 파송하고 사리원성결교회 설립을 준비하게 하였다.

사리원성결교회는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면 북리 4’에 있는 집을 세로 얻어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마침 이때 인천상업은행에서 근무하던 인천성결교회 김석현 집사가 사리원으로 전근되어 교회설립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때마침 1926년 연회의 결정에 따라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시장전도대’의 주재지가 사리원으로 결정되고 사리원지역에서부터 시장전도대의 전도 활동이 시작됨으로 사리원성결교회 설립과정에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11월 28일 밤에 사리원성결교회의 ‘교회설립 감사예배회’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30여 원의 감사헌금이 드려졌다. 12월 20일 밤 7시에는 ‘성탄

기념예배회'를 열고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렸다. 또한 26일 오전 10시에는 유년주일학교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이준수 전도사는 개척 첫해부터 매년 「활천」 1월호에 사리원성결교회의 이름으로 성탄절과 신년을 축하하는 '축성탄하신년(祝聖誕賀新年)'이라는 후원 광고를 내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사리원성결교회는 여러 개의 광고를 내었고, 특히 사리원지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까지도 협력하여 후원 축하광고를 싣고 있다. 이 같은 일은 사리원성결교회가 지역에 있는 타 교파 교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27년 1월 10일~12일까지 '소아전도회'를 열었는데 새로 믿기로 결심한 자가 42명이나 되었다. 또한 2월 3일~7일까지 본 교회 교역자가 인도하는 특별집회를 하루 두 번씩 열었다. 새벽기도회는 임종륜 전도사가 인도하였는데 많은 은혜가 임하였다. 한편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던 학생 10여 명은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취직이 되어 사리원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5원을 교회에 기부하여 4월 3일에 열린 '유년주일학교의 제1회 졸업식(졸업생 1명)'과 '제2회 시상식'의 기념품을 구입하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동양선교회(성결교회) 천막전도대의 사리원집회가 7월 25일~29일까지 5일 동안 이명직 목사를 초청하여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기도회는 이건 목사가 인도하였고 오후 5시부터 열린 소아집회는 천막전도대원들이 재미있게 인도한 결과 100여 명의 신입학생을 얻었다. 오후 7시부터는 대고(大鼓, 큰 북)를 치고 나팔을 불며 사리원을 누비며 당당히 행진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리원지역에 전도활동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모든 교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장쾌한 전도활동이었다. 매일 천막 안에는 입추(立錐)의 여지없이 1,000여 명 이상의 군중이 집회에 참석하였고 미처 천막에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의 청중들이 천막 밖에 모였다. 설교시간에는 비교적 정숙하였고 매일 밤 30여 명의 결심자를 얻어 집회기간 중 모두 160명의 결심자를 얻었다. 이들 가운데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출석하다가 낙심하여 믿음에서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다.

9월 11일(주일)은 '창립1주년기념예배'를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날 20여 원의 월정헌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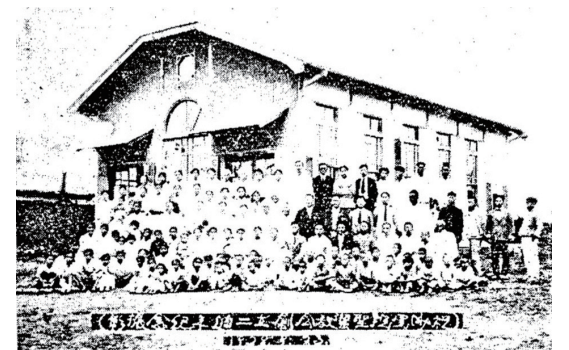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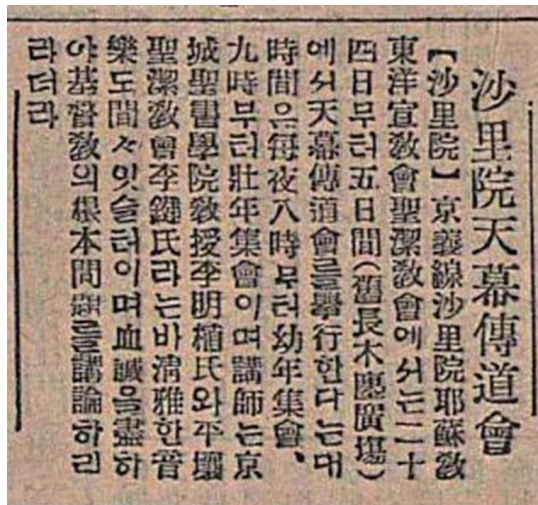
드려졌고 1명의 집사 위임식과 남녀 7인의 학습문답까지 있었다. 9월 30일에는 교회설립 이래 '첫 직원회'로 모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9월 30일~10월 1일에 열린 '양조품 품평회' 기간 동안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함께 연합대전도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동양선교회(성결교회) 시장전도대원' 20여 명은 노방에서 설교하며 전도지를 배포하고 개인전도 활동을 지원하였다.

10월 1일~31일까지 1개월간 청신기도회(새벽기도회)를 열고 신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10월 5일 밤에는 '제1회 간증대회'를 열고 주께 큰 영광을 돌렸다. 또한 11월 2일~6일까지 이건 목사를 청하여 심령부흥회를 열고 청신기도회, 오전 사경회, 밤 구령회 등으로 집회하였는데 신자들과 미(未)신자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동시에 새로 믿기로 결심한 자가 15명이나 되었다. 12월 25일 밤에는 '성탄기념예배회(성탄절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영광을 주께 돌렸으며 26일 밤에는 '유년주일학교 시상식'과 '사무년회'가 있었다. 이날 '사무년회'에서는 매월 10원씩 자금(교역자 사례)하기로 하였다.

1928년 5월 1일 이준수 전도사가 함흥성결교회(북부정성결교회)로 이동하고 후임으로 변남성 전도사가 주임교역자로 부임하였다. 5월 25일~31일까지 청신기도회를 열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 전도활동에 열심하는 신자들은 1년 동안 100명 이상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6월 3일(주일)에는 이건 감리목사의 집례로 세례식(남녀 5명)과 학습 예식(남녀 10명)과 함께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큰 은혜를 받았다. 6월 3일~6일까지 이건 목사의 인도로 대전도회를 개최하고 매일 밤마다 100여 명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새로 믿기로 결심한 자가 9명이나 되었고 신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다.

사리원성결교회는 창립 2주년을 기념하여 100여 원 하는 아름다운 경종과 90여 원의 청아한 소리가 나는 풍금을 구입하고 9월 23일에 '창립2주년기념예배회'로 모였는데 이건 목사의 '년 부년 부흥'이라는 설교에 예배에 참석한 300여 명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11월 18일(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30여 원의 감사헌금이 드려졌다. 12월 23일(주일)에는 이건 목사의 집례로 남녀 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민병순, 변준식, 김준일 3명을 신임 집사로 세우고 동시에 김석현, 유원규, 최덕화 3명의 집사를 유임하였다. 또한 사리원성결교회는 관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남녀 각 1인씩을 구역장으로 세우고 매주 1회씩 구역회로 모이기로 하였다. 12월 30일에는 유년주일학교와 장

「사리원 천막전도 집회」 광고
(매일신보(每日申報) 1927년 6월 29일)



사리원성결교회 창립2주년기념사진(1928년 9월 23일)

년주일학교의 시상식이 있었는데 시상식에서 출석 1등상은 장년부 70여 세의 노인이었다.

1929년 1월 6일(주일)에는 그동안 30여 명의 회원을 둔 성경연구회 모임에 개근한 12명과 성적우수자 9명에게 시상하고 1년을 2기로 나누어 공부하기로 하였다. 3월에는 신자들이 ‘신흥리’라는 마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장년 30여 명(남자 20명, 여자 10명)의 신자를 얻어 10월에 ‘재령성결교회(황해도 재령군 북울면 동신흥리 170)’를 지교회로 설립하였다.

사리원성결교회는 그동안 세를 얻어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으나 갑작스럽게 그 집이 헐리게 됨에 따라 예배처소로 인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1930년 본부 보조금 3,450원과 본 교회 신자들의 헌금 420원, 도합 3,870원으로 ‘사리원 북리 48번지’ 313평의 대지와 와가(瓦家) 4동 30칸을 매입하여 예배당 30평과 남녀교역자의 주택으로 수리하였다. 1930년 7월 변남성 목사가 평양지방 감리목사 겸 평양상수리교회 주임 교역자로 이동하고 후임으로 안형주(安衡柱)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1930년 12월 11일에는 1927년 6월부터 사리원성결교회에서 사역하던 이유겸 전도부인이 65세의 일기로 소천하였다.

1933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안형주 목사는 1936년 변남성 목사와 함께 성결교회의 자치와 자립, 개혁을 바라는 ‘하나님의 교회(1936년 제3회 총회에서 변남성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동양선교회 선교사들이 총회 무효를 선언함에 따라 15개 성결교회가 분립한 성결교회 첫 분열사건이다.)’ 창립에 참여함으로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와 교리불합(敎理不合)”이라는 이유로 12월에 사리원성결교회 주임교역자직에서 사면되었다. 이사회는 사리원성결교회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평양 교구정성결교회 정용현(鄭龍鉉) 목사를 사리원성결교회로 파송한다.

1938년 ‘서부지방회’에서 결의된 ‘사리원구역 연합전도회’가 8월 31일 밤부터 재령성결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대원으로 활동한 교역자는 강태준, 함석진, 김상운, 송계순, 김기삼 등이었고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사경회, 밤 전도회로 세 번씩 집회하였다. 각 교회에서 특별집회를 기다리며 갈망하였던 만큼 교회들마다 큰 은혜가 임하였고 많은 구도자를 얻었다. 집회순서는 재령성결교회, 검이포성결교회, 사리원성결교회, 신천성결교회, 해주성결교회였는데 각 교회마다 5일간씩 집회하였고 9월 26일에 마쳤다. 믿기로 결심한 자의 수는 검이포성결교회가 70명으로 최고였고 헌금은 신천성결교회가 60여 원으로 최고였다. 결심자 총수는 174명이었고 헌금총액은 200원이나 되었다. 당시 상황이 비상시국이었고 호열자가 유행하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

심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집회가 잘 진행이 되었다.

1941년 성결교회 이사장 이명직 목사는 ‘황해구역순회’ 일정으로 6월 24일(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리원성결교회를 방문하였다. 강태준(姜泰楫) 목사와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오후 8시30분에 예배를 드렸는데 50여 명이 출석하여 은혜를 받았다. 다음날인 25일(주일) 오전 11시 예배에는 6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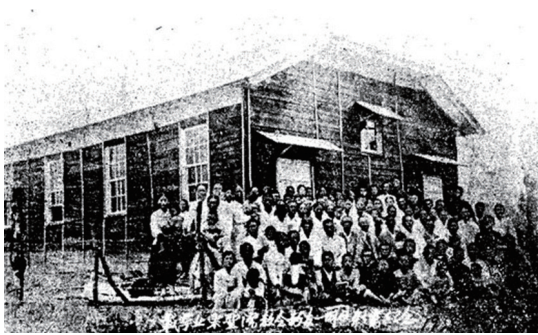
사리원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사리원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해방과 함께 사리원성결교회는 교회를 재건하고 1946년 4월에는 이천영(李泉泳) 목사와 신자 60여 명이 모이고 있었음과 1947년 10월에는 이천영 목사의 월남으로 인해 후임교역자로 강태준 목사가 목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재령성결교회(載寧聖潔教會)

재령성결교회(황해도 재령군 북울면 동신흥리 170)가 개척될 당시 재령군 북울면에는 1,700여 호가 모여 살고 있었다. 이곳에는 이미 매우 큰 건물과 수백 인의 신자와 소학교까지 운영하는 네 개소의 장로교회가 있었다. 재령성결교회는 1929년 3월에 사리원성결교회 신자들이 ‘재령군 북울면 신흥리’라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장년 남자 20명, 여자 10명 합 30여 명의 신자를 얻게 되자 예배처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10월에 사리원성결교회 지교회로 설립되었다.

이 교회는 왕래(往來)하는 도로가 매우 불편한 곳임에도 집회 때마다 원근(遠近)을 불문하고 신자들이 열심히 모였다. 주일학생들도 많았는데 예전에는 그 지방에서 유행하던 잡가(雜歌)만 부르던 아이들 모두가 찬송만 부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재령신흥성결교회’ 또는 ‘재령북울성결교회’라고 불리었으나 1934년 제2회 총회 시에 ‘재령성결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37년 재령성결교회는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으로 날로 부흥됨에 따라 예배당이 비좁아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11월 13일~17일까지 5일간 평양 암정성결교회 김영균 목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하였는데 매 집회에 400~500여 명씩 모여 많은 은혜를 받던 중 장로교인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제4일 밤에 교회 신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였는데 김학주 집사가 150원을 헌금하고 신자들이 최선을 다해 헌금한 결과 총액 600원이 헌금되어 대지 117평을 매수(買收)하였다. 김영균 목사님의 주선으로 ‘제1회 연회’에 건축보조금 500원 청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937년 신축한 재령성결교회 예배당

하고 신자들 전체가 분연(奮然)히 일어나 총공사비 2,700원을 들여 25평의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1937년 12월 19일~23일까지 성진성결교회 김선희 전도부인의 인도로 부인사경회를 열고 매일 세 번씩 모여 큰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낙심 중에 있던 여러 명의 부인들이 돌아왔고 회개와 중생의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았으며 성미를 작정한 신자들도 다수였고 「기쁜소식(성결교회 여성잡지)」을 보기로 작정한 자가 11명이나 되었다.

1938년 2월 8일~13일까지 이성봉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고 대성황 중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결심자가 62명, 중생자 28명, 성결자 23명이나 되었다. 또한 「활천(성결교회 기관지)」구독자와 「기쁜소식」구독자도 78명이나 되었으며 난치병자도 신유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다. 8월 31일 밤부터 서부지방회에서 결의된 사리원구역 연합전도회가 재령성결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전도회를 인도하는 대원은 강태준·함석진·김상운·송계순·김기삼 전도사였고 집회는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사경회, 밤 전도회로 세 번씩 집회하였다. 각 교회마다 전도집회를 기다리고 갈망하였던 만큼 교회마다 큰 은혜가 내렸고 많은 구도자가 있었다. 집회는 재령성결교회, 검이포성결교회, 사리원성결교회, 신천성결교회, 해주성결교회 순서로 각 교회마다 5일간씩 집회하여 9월 26일에 마쳤다. 때가 비상시국이요, 호열자가 유행한 시기였으나 집회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었다.

1939년에는 교역자 주택 5칸 84평을 매수하고 8월 7일~13일까지 평양교구정교회 문이호 전도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타락한 자가 많이 돌아왔고 새 결심자가 15명이나 되었으며 교회에 전도부인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집회에서 은혜 받은 부인들 가운데 8명을 선정하여 구역 심방과 전도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1941년 5월 25일에는 이사장 이명직 목사가 ‘황해구역순회’ 일정으로 재령성결교회를 방문하여 저녁식사 후 7, 80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였다. 7월 29일부터 1주간 조창문 목사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신 결심자가 다수였으며 특별히 앓는 양이던 송영학 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께 영광을 돌렸고 신자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재령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재령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해방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고 1946

년에는 송계순(宋啓淳) 전도사와 함께 신자 50여 명이 모여 매주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1947년에는 열심 있는 송계순 전도사의 활동으로 교회는 여전히 부흥되어 농촌이지만 6, 70명이 회집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중이었음이 전해지고 있다.

매양성결교회(梅楊聖潔教會)

서부지방회(지방회장 변남성 목사)에서는 1932년 한 해 동안 11개 지역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였는데 그 가운데 황해도 서흥군에는 신막성결교회와 매양성결교회(황해도 서흥군 매양면 녹안리 340)가 설립되었다. 매양성결교회는 어느 일본인 형제가 와가(瓦家) 십여 칸을 주께 바침으로 이 집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다. 또한 매양성결교회는 예배당 부지는 준비되었으나 건축비가 없어 건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1934년 2월 26일~3월 4일까지 정룡현 전도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열었는데 중생자 26명과 신 결심자가 24명이나 되었고 학습 받은 이가 11명이었다.

1935년 2월 13일부터 5일간 변남성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하였는데 영적인 기갈을 느끼고 있던 산촌에 있는 교회인지라 시간마다 입추(立錫)의 여지 없이 신자들이 모여들었고 새로 결심자 23명 가운데 중생자 15명과 성결자가 9명이나 되었다.

1936년에 김상운 전도사가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또한 오형률 집사는 자신의 산림 8,970평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드렸다. 하지만 매양성결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1940년에 폐지되었다.

신막성결교회(新幕聖潔教會)

신막성결교회(황해도 서흥군 화회면 신막리 223)는 1932년 서부지방회(지방회장 변남성 목사)에서 11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정용현(鄭龍鉉) 전도사를 파송하여 1932년 4월에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수백 명의 결심자와 수십 명의 아름다운 신자가 있어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었다. 하지만 예배당의 설비들이 구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문광삼 형제는 자기 가정의 풍금을 교회에 바쳤고 박순범 형제도 자신의 가정에 있는 시계를 드렸으며 경성(京城)에서 살고 있던 유응선 여사는 교회의 경종을 기부함으로 신자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1932년 10월 29일~11월 2일까지 장막전도회를 열었는데 신 성결자 20명과 신 중생자 19명과

신 결심자 30여 명을 얻었다.

1933년에는 조정헌(曹正憲) 전도사가 후임으로 부임하여 사역하였으나 9월 13일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하였다. 이후 1935년~1937년까지 김상운(金相雲) 전도사가 사역하였으며 1938년부터는 사리원성결교회 강태즙(姜泰楫) 목사가 신막성결교회를 겸임하여 사역하였다. 신막성결교회는 1940년 3월에 폐지되었다.

곡산성결교회(谷山聖潔教會)

곡산성결교회(황해도 곡산군 곡산읍 남천리 100)는 1932년 7월 1일 김명현(金明顯) 전도사를 곡산읍에 파송하여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곡산교회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곡산교회는 결국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1941년 10월 21일에 교회폐지를 신고하였다.

겸이포성결교회(兼二浦聖潔教會)

겸이포성결교회(황해북도 황주군 겸이포읍 본정 78)는 1932년 7월 김제근(金濟根) 전도사를 파송하여 설립하였다. 김제근 전도사는 1933년 11월 28일 휴직하였고 이어 1934년 2월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후임교역자로 라병주 전도사가 임명되어 사역하였고 곧이어 최헌(崔獻) 전도사가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1938년 서부지방회에서 결의에 따라 사리원구역 연합전도회가 8월 31일 밤부터 재령성결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대원으로 활동한 교역자는 강태즙, 함석진, 김상운, 송계순, 김기삼 등이었다. 집회는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사경회, 밤 전도회로 세 번씩 집회하였고 노방전도도 하였다. 각 교회에서 특별집회를 기다리고 갈망하였던 만큼 교회마다 큰 은혜가 임하였고 많은 구도자가 있었다. 집회순서는 재령성결교회, 겸이포성결교회, 사리원성결교회, 신천성결교회, 해주성결교회 이었는데 각 교회마다 5일간씩 집회하여 9월 26일에 마쳤다. 때가 비상시국이요 호열자 유행으로 많은 지장이 있었으나 집회는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겸이포성결교회는 창립된 지 6, 7년이 되었음에도 교세가 부진하여 1939년 11월 8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폐지한다는 의미로 교역자가 떠났으나, 남은 3명의 신자가 계속 기도회를 하며 교회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노권충, 홍관익, 이학수 성도가 각각 100원씩 합 300원을 헌금하여 예배당건축을 위해 기도하였다.

1940년 겸이포성결교회는 예배당이 없어 홍이관 집사 댁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중 9월 4일부터 강태즙 목사의 인도로 집회를 열고 모든 신자들이 흡족한 은혜를 받았다.

1941년 몇 명의 신자들은 새 힘을 얻고 각 지역의 믿는 형제들의 도움도 받게 되어 ‘겸이포’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예배당을 매수하고 5월 11일(주일)부터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후 새로 믿는 신자도 날로 늘어나 교회가 다시 재생의 봄을 만나게 되었다. 5월 26일(월) 이사장 이명직 목사가 ‘황해구역순회’차 겸이포성결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5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전임(專任)교역자는 없었지만 매주일 3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겸이포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였으나 1945년 해방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고 1946년 3월 말에는 신자 2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었음이 전해진다.

황주성결교회(黃州聖潔教會)

성결교회의 ‘황주읍’에서의 전도 활동은,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 ‘시장전도대(성결교회 전도대)’의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동양선교회 시장전도대는 1929년에 황주읍과 황주삼거리에서 3,0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심자 30명을 얻었고 1930년에는 1,556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심자 40여 명을 얻었다.

황주성결교회(황해도 황주군 황주읍 벽성리 40)는 1933년 이른 봄에 박문익(朴文翼) 전도사를 파송하여 추진하였으나 11월 4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배처소를 정하고 5일 동안 대전도회를 열고 전도하여 11월 12일에 장년 33명(남자 22명, 여자 11명)과 유년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렸다.

1934년에는 박문익 전도사의 후임으로 황경찬(黃景燦) 전도사가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황경찬 전도사의 부임과 함께 3월 8일~11일까지는 ‘순회전도대(성결교회 전도대)’가 와서 집회한 결과 40여 명의 신 결심자를 얻었으며 3월 26일~31일까지 ‘소아부흥회’를 열어 많은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사리원성결교회에 출석하는 김준일 성도는 황주성결교회 예배당건축을 위해 90여 평의 부지를 드렸다.

1935년에는 예배당건축을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신의주동부성결교회와 신의주서부성결교회에서 건축비로 100원을 헌금하여 보내줌으로 예배당건축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36년에는 함석진(咸錫珍) 전도사가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하지만 황주성결교회는 결국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1941년 10월에 폐지되었다. 

황해도 신천학살 사건의 진실

한화룡 (백석대학교 은퇴교수)

황해도 신천은 북한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다. 6·25 전쟁 시기 일시적으로 북한을 점령한 미군이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선전하는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반미교육과 계급교양의 중심지인 신천박물관은 1958년 3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건립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곳에 당시의 사건 자료와 사망자들의 유품 등을 전시하고, 방공호와 창고 등 주요 학살 현장을 보존해 놓았다. 그리고 2014년 11월 말 신천박물관을 방문한 김정은의 지시로 신축 공사를 마친 후 2015년 7월 26일 재개관되었다. 김정은은 2025년 7월 24일 10년 만에 다시 신천박물관을 방문했다.

신천학살 사건의 개요

신천학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쓴 「전쟁의 그늘: 1950년, 황해도 신천학살 사건의 진실」(포앤박스, 2015)을 참조하라.

1. 북한의 주장

북한 당국은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 동안 미군이 신천군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5,383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수백 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강제로 방공호에 몰아넣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 학살했으며, 또 수많은 여성들을 온천 휴양소에 붙잡아 다 놓고 농락한 뒤 연못에 빠뜨리고 수류탄을 던져 무참히 죽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극악무도한 야수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이

박물관을 둘러보는 북한 학생들과 주민들은 미군이 철천지원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는 복수 모임을 갖는다. 전시되어 있는 여자 머리카락이나 찢어진 고무신들, 포승줄과 각종 사진을 보고 흥분한 북한 주민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 높이 외친다. “미제에게 백배 천배의 복수를 하자!”



2015년 신천박물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사진 출처: 연합뉴스)

2. 사실과 진실

전사와 월남자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첫째, 미군이 신천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 당시 미군은 평양을 먼저 함락하기 위해 신천을 그냥 지나쳐 갔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10월 18일 미군이 저질렀다는 군당 방공호 학살 사건은 미군이 도착하면 빨갱이를 살려둘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좌익의 손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나서서 미리 처형해 버린 것이었다. 또 북한 당국이 12월 7일 미군이 했다고 주장하는 원암리 학살 사건 역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우익 치안대가 서둘러 후퇴하면서 저지른 일이었다.

둘째, 좌우익 간에 이념에 따라 많은 학살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10월 13일 재령과 신천에서 일어난 반공 봉기부터 12월 22일 웅진으로 후퇴하기까지 좌우익이 대결하며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차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경남은 그 당시 신천에서 발생한 죽음을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했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신천학살의 피해자 (신천 박물관 전시, 사진 출처: 노컷뉴스)

1) 반공 우익계의 사망자

- (1) 공산기관에 예비 검속되어 학살된 사람들
- (2) 반공봉기에 가담하여 교전 중 사망한 의거대원들
- (3) 퇴각 이동 중이던 인민군, 공산기관원에 살해된 양민들
- (4) 구월산 빨치산의 습격으로 살해된 치안대원과 부락민들
- (5) 1·4 후퇴 철수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
- (6) 공산군의 복귀 후 치안사업 협력자로 색출되어 처형된 사람들

2) 공산 좌익계의 사망자

- (1) 반공의거대 습격으로 사살된 공산기관 요원들

- (2) 퇴각 이동 중 반공의거대의 습격으로 사살된 인민군과 공산당원들
- (3) 반공의거 성공 후 치안사업 과정에서 색출 처형된 공산분자들
- (4) 구월산 빨치산 토벌작전으로 사살된 인민군과 공산분자들
- (5) 구월산 빨치산과 내통하다 적발되어 처형된 사람들
- (6) 치안대가 공산군에 밀려 철수하면서 처단한 공산분자들



북한 당국이 반미선전을 위해 신천 박물관에 전시한 작품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처럼 신천학살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좌우익 간에 벌어진 수많은 학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북한 당국에서 주장하는 3만 5천 명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 현장을 목도한 여러 월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통계도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가 어렵다.

셋째, 신천 봉기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좌익을 학살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 신천 봉기는 처음에 반공우익 인사들이 주도한 거사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것도 사실이다. (재령과 신천은 ‘기독교 천하’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세가 왕성한 지역으로, 필자는 신천의 개신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지역 주민의 10%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게다가 공산당의 예비 검속과 학살로 기독교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과 신천·재령 기독교계의 지도자인 김익두 목사가 10월 14일 새벽 교회당에서 인민군의 총창에 살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후 기독교인들이 보복 활동에 관여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당시 신천군 일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좌익 학살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필자는 기독교인들의 학살 관련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3) 적극적 관여

적극적으로 학살에 관여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50년 가을 신천군 남부면 부정리에 은둔해 있던 신학생 유태영은 기독교청년 중심으로 조직된 우익 치안대에 의해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한다. 그 당시 부정리는 약 100세대 정도의 집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동네의 30여 세대가 공산당이었다.

4) 소극적 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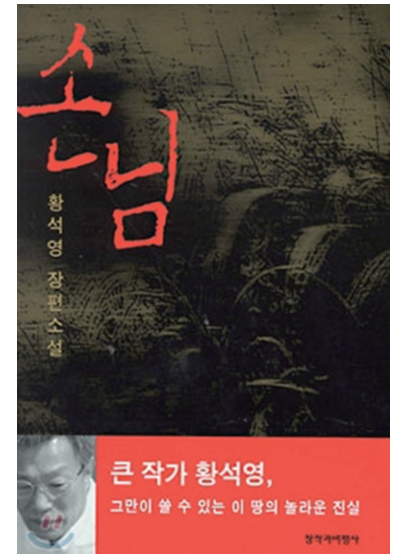
소극적으로 학살에 관여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있었다. 학살을 주도하지는 않고 치안대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학살 현장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 은울 출신의 한 월남자는 기독교인들은 극악무도한 일은 자제했다고 말한다. 복수는 주로 좌익의 손에 비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혈육이 앞장섰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다른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좌익들을 처형했다.

5) 소극적 반대

소극적으로 학살에 반대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있었다. 신학생 유태영과 그의 어머니(고인이 된 목사의 아내)는 우익 치안대가 공산당원과 인민군들을 잡아 죽이는 와중에도 인민군 여자 두 명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며칠간 보호해 주었다. 또 은울군 치안대 조직부장이었던 이춘삼(모태신앙, 당시 20세)도 지나친 보복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가 치안대의 손에 목숨을 잃을 뻔 했다.

6) 적극적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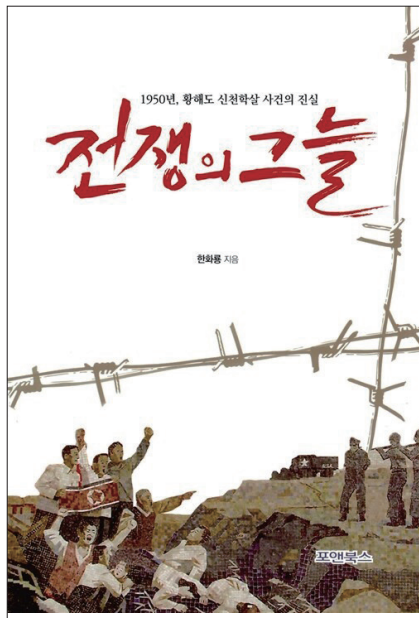
적극적으로 학살에 반대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있었다. 신천읍에서 20리 떨어진 군계라는 마을에서는 치안대원들이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인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 마을은 100세대 중 70%가 공산당인 곳으로 그 당시 치안대장은 교회 장로였다. 그들은 누구를 죽이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다.



2001년, 작가 황석영은 신천사건에서 소극적 반대 입장에 섰던 유태영 목사의 증언을 토대로 쓴 소설 “손님”을 발표했다.

신천학살 사건의 교훈과 과제

6·25 전쟁은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였다. 그리고 6·25 전쟁 시기 발생한 참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마 신천학살 사건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역시 여전히 좌우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민족의 비극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것인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필자는 가슴 아픈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실행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한화룡은 신천학살의 진실을 탐구하여 “전쟁의 그늘”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편집부)

1.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자.

먼저 북한 당국은 1950년 10~12월 신천에서 미군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선전을 중지해야 한다. 또 6·25 전쟁 시기 후퇴하면서 신천에서 우익 인사들과 종교인들을 학살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신천의 우익 봉기군 출신들은 아무리 전시라 할 지라도 포로로 잡은 공산당원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죽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단지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인 잘못도 고백해야 한다.

아울러 6·25 전쟁 시기 신천의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정의와 관련하여 신자다운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신천 봉기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은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이제 와서 누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죄책 고백을 통해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바로 보고 우리의 죄책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남북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일을 지향하고자 함이다.

2. 갈등을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유감스러운 점은 1950년 10~12월 당시 신천에서 발생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분명 신천은 기독교인들이 매우 많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 그 당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나오지 못했을까?

신천 봉기 초기에 신천서부교회의 김익두 목사(당시 76세)와 천주교회의 이복래 회장(당시 50세)과 자치회 회장이었던 김봉선(당시 50세) 등이 인민군의 총칼에 맞아 죽지 않았더라면 신천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까?

한국교회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발생할 갈등 요인들을 예상하여 그것들을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통일을 전후로 해서 남북 간에는 지역 갈등, 빈부 격차, 문화적 차이 등으로 적지 않은 불화와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예상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돌발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비상시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자가 되자.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 유감스러운 점은 1950년 10~12월 당시 신천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 공권력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1950년 10월 12일,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북한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 그 대신 유엔군 사령부가 임시로 통치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군 단위까지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었으며,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행정의 진공 상태나 다름없는 경우도 생겼다.

한국 정부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해 무정부상태에 빠지거나 내전이라도 발생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치안 유지와 위기 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확고한 용의가 있는가?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 정부가 우유부단한 처신을 한다면 오히려 중국이나 유엔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

4.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조성하는 자가 되자.

신천학살과 같은 비극은 전쟁 때문에 발생했고 전쟁 때문에 심화되었다. 집단 학살은 평상시에는 여간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학살은 “보통 전쟁이나 내전, 혁명이나 그 밖의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 교통과 통신이 통제되고, 자연발생적인 루머와 조작된 정보가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공포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에서 일어난다.”(최호근, 『제노사이드』, p.435)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참혹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도 평화를 모색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교회는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을 선도할 수 있는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정립해서 성도들에게 명료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이 민족통일과 북한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봉산탈춤



봉산탈춤은 강령 탈춤과 함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해서 탈춤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특히 1936년 8월 30일(백중날) 사리원 경암산 아래 마당에서 거행한 공연이 경성 방송을 통해 전국에 중계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봉산탈춤이 유래한 옛 봉산군의 중심지는 동선면 조양리, 기양리 일대 (현재의 봉산군 구읍리)이다. 원래 봉산탈춤은 기양리 경수대에서 열렸으나 사리원이 봉산군의 중심지가 되면서 1915년부터 사리원 경암루에서 열리게 되었다.

의 중심지가 되면서 1915년부터 사리원 경암루에서 열리게 되었다.

봉산탈춤은 주로 단오에 놀았고, 그 외에 중국 사신의 영접이나 신임 사또의 부임을 축하할 때 등 관아의 행사로도 연행되었다. 봉산 구읍은 중국 사신의 내왕길 숙소가 있는 곳이었다.

놀이꾼은 관아의 하층 관속, 상인, 마을 주민이었다. 하층 관속의 참여로 인해 가면극의 공연이나 연출이 유리하였고, 연기의 수준도 향상될 수 있었다. 특히 봉산탈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래로 황해도 가면극의 최고봉을 형성한 것은 집사(執事)라는 하급 관속을 지낸 이성구(李聖九), 이장산(李獐山) 부자(父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1900년 무렵까지는 관아의 악사청으로부터 반주 음악을 담당할 악사들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한일강제병합으로 인해 악사청이 해산된 후에는 가창리의 재인 마을에서 악사들을 초청해 공연했다.

예전에는 밤의 가면극에 앞서 오후에 길놀이를 했다. 악사의 반주를 선두로 사자, 말뚝이, 취발이, 포도 부장, 소무, 양반, 영감, 상좌, 노장, 남강 노인의 순서로 열을 지어 읍내를 일주했다.

남북분단 이후 춤꾼들이 월남하면서 남한에서도 그 명맥이 이어져 대한민국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16년에 국가비물질유산 제28호로 지정되어 공연에 쓰이는 탈들도 현대적 미감에 맞춰 복원했으며, 봉산군 현지의 여러 협동농장에서 공연하고 있다. 🐟

참고: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황해북도의 음식

바다와 인접한 황해남도에서는 여러 어류와 게, 김과 같은 식재료가 발달하였지만 산과 평야가 발달한 황해북도에서는 산나물음식이 발전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더덕고추장구이, 동백잎튀김, 구기자나물 등이 식탁에 자주 오른다. 더덕고추장구이는 더덕뿌리의 껍질을 벗겨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 재웠다가 양념장을 바르면서 석쇠에 구워낸 것이고 구기자나물은 구기자나무의 연한 순과 잎을 데쳐서 양념장에 무친 음식이다. 동백잎 튀김은 동백잎에 흰참쌀풀을 발라서 발 위에 펴 놓고 말려 기름에 튀긴 다음 참기름을 발라 만든다. 이 요리는 주로 반찬과 술안주로 쓰였다. 참외장아찌, 고수김치, 마늘도 황해도 지방의 특산이었다. 고수는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향신료로 한반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황해북도에서 재배된다. 고수는 봄에 심어 한해 동안 계속 뜯어 먹는다. 황해도에서는 고수잎으로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배추에 고수잎을 넣어 담그기도 한다.

참외장아찌는 설익은 참외를 쪼개어 씨를 버리고 고추장 속에 넣어 두었다가 맛이 든 후 꺼내 먹는 밑반찬이다. 고추장 대신 된장을 쓰기도 한다. 참외장아찌는 주로 참외를 따고 남은 상품성 없는 참외로 만든다.

황해도 북부에서는 참배, 대추가 특별히 이름났다. 황주, 봉산을 비롯하여 신계, 곡산, 수안, 토산, 서흥 등지는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배산지였다. 특히 봉산의 참배는 맛이 달고 시원하여 조선시대 공물의 대상이었다. 대추도 봉산대추가 유명하였다. 대추는 그냥 먹거나 약재로도 썼으며 밥이나 떡에 넣어 먹기도 하였다. 사리원에서는 미국별에서 나는 쌀이 가장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포도와 미나리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남한에서 유명한 사리원 불고기는 고기를 과일에 재워 구워내는 음식이다. 고기와 함께 황해도에서 생산되는 풍성한 과일이 재료가 된다. 그러나 정작 사리원에서는 특별히 불고기를 별미로 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 남한에서 오랜 기간 냉면으로 사랑받으며 여러 분점을 낸 사리원면옥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사리원면옥은 평양냉면집이다. 사리원 출신의 실향민인 김봉득이 6.25 전쟁 후 대전에 평양냉면집을 차렸는데 본인의 고향 이름을 따서 “사리원 면옥”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



황해도 고수김치



남한 식당의 사리원 불고기(사진 출처: 태종 예프디)

사리원의 사람 사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대에 사리원에서 태어나서 주욱 사리원에 살다가 2010년대 중반에 남한에 온 이○○라고 합니다.

김 저는 어린 시절에는 사리원 주변 도시에 살다가 2002년에 사리원으로 이사와서 2019년까지 사리원에 살았어요.

사리원이 황해북도에서는 대도시인데, 김선생님은 도시로 이사가서 좋으셨겠어요.

김 그렇죠. 당일꾼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황해북도에서는 사리원으로 올라가고 싶어하죠.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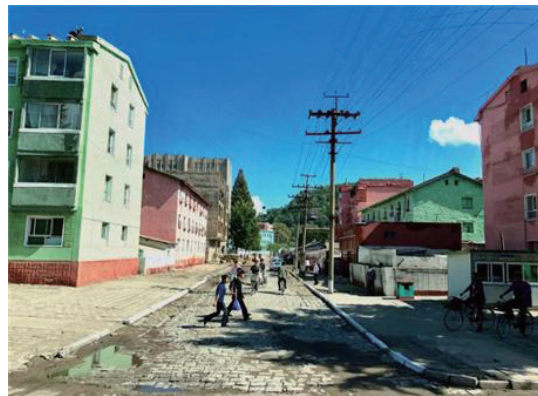
북한사회에서 황해북도나 사리원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나요?

이 황해북도 사람들을 옛날에 물령포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순하고 물령하다고요. 황해도 말이 좀 느린편이에요. 최근에는 ‘피도’로 바뀌었어요. 고난의 행군이 사람들을 바꿔놨죠.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강인해졌어요. 그리고 사리원은 옛날부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바람에 모래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때려서 모래사(沙)를 써서 사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리원이 바다도 없고, 큰 산도 없고 모래밖에 없어서 모래사를 썼는데, 거간으로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구요. 한양에서 평양을 왔다갈 때 사리원을 거쳐야만 갈 수 있잖아요. 해주에서 나는 수산물도 사리원으로 들어오고요.

평양이나 남포, 평안남도에서도 강원도나 함경도를 갈 때 사리원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맞아요. 평양에서 동쪽으로 원산까지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간부들이나 특별한 차량이나 갈 수 있어요. 길이 망가진다고 일반 차량은 못다니게 하죠. 버스도 못다니고요. 그래서 구도로로 가야 하는데, 구도로는 사리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평양, 남포 사람들이 강원도나 함경도 가려면 사리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이 찍은 사리원 시내 모습

그러면 평양사람들이 함경남도나 함경북도 갈 때도 사리원까지 내려왔다가 가나요?

이 그렇죠. 양강도 해산이나 함경도 내륙지역 갈 때는 평성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나을 텐데, 원산, 함흥같이 동해안 도시 갈 때는 다 사리원을 통해서 다녀요. (청진, 라선은요?) 그쪽도 사리원으로 다니는데, 내륙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기차는 다 멈추고 코로나 직전까지 제대로 다니는 노선은 신의주-사리원-개성 노선 하나만 다녔어요. 다른 노선도 있기는 한데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 관심 밖이죠. 기차가 느린 이유가 전기가 없어서 느린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기관차가 모자라서 느린 거예요. 북한에서는 기관차를 기차대가리라고 하거든요. 기차대가리 한 대가 개성에서 평양가는 기차 끌고 가다가, 객차만 떼어 놓고 대가리는 해주에서 평양가는 기차를 끌어다 놓고 다시 개성에서 평양까지 끌어다 놓고 그런 식으로 기차대가리들이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차 없이 객차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차가 늦는 거죠.



사리원청년역

지도를 보면 사리원 시내 중심에 운하가 있죠. 그런데 운하가 강이랑 연결이 안됐더라고요.

이 맞아요. 운하는 시내에 신창동에서 상매천이라는 개울이 들어와서 길성포쪽으로 빠져요. (그러면 운하의 용도는 뭐죠?) 저수지라고 봐야죠. 동쪽으로 구룡리나 서남쪽에 미곡리가 개울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쪽에 과수원이 있는데,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사리원

에 있는 운하가 배가 뜰 규모는 안되고 운송에 쓰이는 일은 없죠.

김 또 작은 줄기가 대성시장, 이계순대학 옆으로 해서 길성포까지 연결이 돼있기는 해요. 그런데 도랑 수준이죠. 운하에서 빨래도 해요. 그런데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걸레나 작업복 정도 빨 수 있죠.

그러면 사리원에서 남포나 평양에 수운으로 연결되는 거는 길성포항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이 맞아요. 길성포항은 1980년대까지는 별 게 없었어요. 조그만 나룻배나 다니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남포에 갑문 만들 때 길성포에 항구가 생긴 거죠. 그때부터는 남포랑 송림까지 배타고 다닐 수 있게 됐고 남포에는 여객선도 다녔어요. 평양까지도 배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남포에서 사리원까지 여객선이 다녔군요?

이 네 초반에는 두 대가 다녔어요. 그런데 기름 사정이 안좋고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다니지는 못하죠. 그냥 부두에 세워뒀다가 단체로 누가 예약하면 다녔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개 사업소나 학교가 기름값을 대고 세를 내면 여객선 타고 남포를 갔다오기도 했죠. 지금은 여객선은 거의 운행하지 않고 화물이 다니는 배에 사람들이 돈내고 타고 다녀요.

김 남포가는 배는 배가 커서 차도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사리원에서 남포를 다닐 때는 주로 배를 타고 다니나요?

이 그렇죠. 배타면 6시간쯤 걸려요. 배가 좋은 게 배는 연착이 없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 하루

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모르는데 배는 제시간에 도착하니까요.

그 배가 평양까지도 가나요?

㉠ 보통 사람들이 배타고 평양까지는 못가는 게, 평양에는 배타고 온 사람들 증명서 검사하는 데가 없어요. 남한으로 말하자면 평양 들어가는 출입국 심사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양까지는 육로가 빨라서 차 타고 다니죠.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이지만 소위 써비차의 등장과 함께 편법으로 다른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평양, 개성, 라선 등의 도시를 방문할 때는 별도의 승인번호와 증명서가 필요하다.

평양에 갈 때는 승인번호가 필요하죠? 북한에서 이동할 때 필요한 증명서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북한은 같은 도내에서 이동할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황해북도를 나갈 때는 통행증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즈음은 소위 써비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써비차를 타면 통행증이 없어도 차주가 통행을 보장하는 거죠. 중간에 초소들이 있고 검문을 하는데, 차주들은 초소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써비차 타고 다른 도시 가다가 검문에 걸려서 못갔다? 그러면 그 차주 차는 아무도 안타죠!

배도 마찬가지예요. 남포는 황해북도 밖이니까 통행증이 필요하지만, 배를 타면 화주가 이동을 책임지죠. 그런데 평양, 개성, 라선은 달라요. 단순히 통행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승인번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갈 때는 화주나 업주가 책임져 주지 못하죠.

㉡ 평양이나 개성 갈 때는 개인이 승인번호를 받는데, 승인번호도 돈만 있으면 다 만들어요. 승인번호를 받으려면 보위원한테 방문이유를 양식에 따라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양식지 밑에 돈을 깔고 그 위에 양식지를 내요. 그러면 다 나오죠.

평양-개성 고속도로는 일반 차도 다닐 수 있나요?

㉠ 네, 평양-원산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보통 차들도 다닐 수 있어요. 고속도로로 사리원에서 평양까지 40분이면 가요. 구도로로 가면 2시간이 걸리고요. 물론 화물차 같이 무거운 차는 못다니게 하죠.

사리원은 개성이랑도 멀지않는데, 개성을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나요?

㉠ 네, 장사하는 분들은 다들 어떻게든 잘 다녀요. 예전에 개성공단 있을 때는 개성공단 물건들이 다 사리원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갔죠. 사리원에서 개성공단 물건 도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어떤 품목들이 많았죠?

㉠ 주로 식료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커피, 라면, 떡국, 과자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구요 그다음에 비누, 화장품 같은 것들도 좀 나왔죠. 옷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 찰떡파이, 초코파이도 많이 나왔고요. 기억에 남는 게 닭으로 만든 소세지에 옥수수나 치즈를 넣었더라고요. 저는 김치라면이 제일 인상깊었어요. 떡국 떡은 봉지에 압축해서 나왔고 오투기카레는 10인분, 50인분 종류별로 나왔죠. 노란색 커피믹스가 인기가 많았죠. 북한에서는 그 노란 커피를 ‘가락’커피라고 해요. 한번은 개성공단에서 나온 도자기 컵을 쓰는데 밑에 보니까 ‘너는 내 생활의 활력소’ 그렇게 이쁘게 글씨가 써있더라고요. 스몹텡, 빨래판, 뭇, 도마, 이불, 장갑, 김치항아리, 알뜨랑비누, 오이비누... 그 물건들을 사리원 상인들이 사놓죠. 그러면 청진, 혜산, 원산, 홍원, 신포 그런 데서 온 대방들 통해서 뿌리죠.

개성공단에서는 옷이나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했는데, 오히려 식료품이 많이 나왔군요?

㉠ 네 맞아요. 생산품들을 빼돌리는 일은 좀 위험 부담이 있을텐데, 자기한테 나온 음식들은 그냥 가지고 나와서 팔면 되잖아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믹스, 초코파이 한두 개씩만 가지고 나와도 그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나온 물건은 공식 시장에서는 못팔았어요. 개



2014년 당시 개성공단에 각종 식품을 반입하는 남한측 근로자. 개성공단에 반입된 남한의 각종 식품은 사리원을 통해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사진 출처: 로이 터통신)

인 집에 쟁여놓고 팔죠.

사리원에는 어떤 시장이 제일 크죠?

㉠ 처음에는 구천동이랑 대성동에만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를 감당을 못하니까 메뚜기 시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메뚜기 시장을 단속을 다 못하니까 당국에서 시장을 허락을 해 준 거죠.

㉡ 옛날에는 대성시장이 더 컸었는데, 2013년 즈음에 구천시장을 산업시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산업시장이 더 커졌죠. 그 두 시장이 제일 크고, 동마다 시장은 다 있어요. 그런데 동마다 있는 시장은 불법시장이라서 검열이 나오면 물건들고 다 도망가야 해요. 그래서 메뚜기장이라고 부르죠.



2022년 사리원 큰물 피해 당시 북한 언론이 보도한 사리원 시내 모습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리원은 지역 구분이 어떻게 되죠?

㉠ 사리원은 큰 도시처럼 구역이 나뉘져 있지는 않아요, 굳이 나누면 동쪽은 도린동 주변부터 동쪽으로는 동사리원이라고 부르고, 서쪽은 미곡리 밖에 서리동부터 서사리원이라고 불러요. 시내에는 그냥 사리원이라고 부르죠. 사리원 시내에는 크지 않아요.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한시간 반, 아무리 멀어도 두시간이면 가요.



사리원의 지역구분, 사리원 출신 탈북민들의 인터뷰에 따라 구성

김 맞아요. 서쪽은 은별동 동쪽은 구천동이 있죠. 은별동은 평양 입구라고 하고 구천동은 동사리원 입구라고 하죠. 은별동쪽으로 100리 가면 평양이고 동사리원으로 나가면 봉산 지나서 개성까지 이어지죠.

사리원에 강건이라는 사람 이름을 딴 거리도 있고 학교도 있죠? 강건이 경상도 출신인데 왜 사리원에서 그렇게 기념하죠?

이 맞아요. 강건이 사리원에 살았었나 봐요. 철산동에 강건이 살던 집도 있고 그 앞에 동상도 있고 그 앞에 안내판도 써있어요. 그래서 강건이 사리원사람인줄 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김 강건이 백두산줄기 가족 아닌가요? 김일성



북한군 초대 참모장 강건, 사리원에는 강건을 기념하는 거리와 각종 기관이 존재한다.

오른팔이었다고 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잘 몰랐네요.

사리원 주변에도 곡창지대가 있죠?

이 미곡리 주변이 미곡벌이 유명하죠.

재령에 나무리벌 정도는 아니래도 꽤 커요. 사리원은 쌀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고난의 행군도 다른 지역 보다는 1, 2년 늦게 시작한 거 같아요. 남한에 와서 다른 지역에서 온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1994년부터 배급이 안나오기 시작했

다는데, 사리원은 1995년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꽃제비들도 황해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1996년부터는 사리원도 배급이 끊겼죠. 미곡벌은 중앙에서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소문에는 미곡벌 농장 책임자가 김일성 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황해도에 협동농장이 많은데 이상하게 미곡벌에만 김일성이 현지지도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곡벌은 중앙에서 밀어주는 협동농장이구나’ 하고 생각하죠.

황해도에서 과일도 많이 나죠?

이 네, 사리원은 포도가 많이 나죠. 도림동 밑에는 다 포도밭이에요. 예전에는 포도를 엄청 많이 먹었죠.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는 예전처럼 잘 못먹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흘러 나오긴 해요.

김: 사리원 포도가 유명한데, 과일은 황해남도가 더 유명하죠. 김일성 일가에 보내는 걸 8호제품 9호제품이라고 하거든요. 1호, 2호, 8호, 9호 다 평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황해남도에도 8호, 9호 생산하는 과일농장은 군인들이 총 메고 지키



사리원 포도농장에서 포도를 따고 있는 노동자들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고 거름도 좋은 거름을 아낌없이 써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8호 9호로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사리원에 풀리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품종개량을 많이 해요. 최근에는 ‘황금배’라고 재배하고요. 포도도 예전 포도가 아니라 새 품종을 심게 해요. 그리고 사리원은 과일이나 쌀도 많이 하는데, 그것 못지 않게 미나리를 많이 키워요.

사리원에 유명한 식당이 있나요?

이 경암산 밑에 경암각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평양의 옥류관처럼 사리원에서는 경암각이 유명해요. 요리도 많은데 기본은 국수를 파는 집이죠. 가격이 비싼 편이라서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갈 사람들은 다 다니죠.

사리원에 백화점도 있던데, 활성화가 됐나요?

이 백화점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활성화됐다가 고난의 행군 되면서 텅텅 비었죠. 그런데 2010년 전후로 경영방식을 도별로 자립하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매장을 개인들한테 임대하기 시작했고 백화점이 활성화가 됐죠. 물론 한쪽 구석에는 국영상점도 남아있기는 해요. 국정가격으로 파는 특정 품목은 사람들이 사가니까요.

시장과 백화점의 차별점은 뭐죠?

이 취급 품목은 겹치는 게 많죠. 그런데 시장에서 하는 장사는 완전히 개인장사예요. 매일 내는 장세만 개인이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백화점은 개인은 임대를 못해요. 무슨 사업소 이름으로 임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런 사업소에 어떻게든 소속이 되어야 그 사업소 이름으로 매장을 임대하죠. 그리고 임대료도 장세처럼 매일 내는 게 아니라 달별로 임대료를



사리원 백화점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ironmank/221290909334>)

내요. 시장 매대는 좁은데 백화점은 매장이 훨씬 크죠. 시장 장사를 하다가 적자가 나면 쉽게 접을 수 있는데, 백화점 장사는 적자가 나도 규모가 크고 크게 망하죠.

사리원에도 예술극장이 있죠?

이 네. 도 예술극장도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극장에 소속된 배우들은 극장에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다 개인 레슨으로 먹고 살죠. 공연을 해도 배우들이 돈을 모아서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해야 자기가 계속 배우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현직 배우 타이틀로 레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예술가로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는데 극장에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번 돈으로 공연하는 거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휴양지가 있나요?

이 사리원에서는 경암산이랑 정방산을 제일 많이 가죠. 음식 싸가서 펼쳐놓고 먹고 옛날 녹음기로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해요. 북한에서는 그게 재미죠. 10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놀지 모르겠네요. 시내에 민속거리가 있어요. 이쁘게 꾸며놓고 연못도 있고요. 남한에 와보니 민속마을이 있던데 그렇게 꾸며놓고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명절 같은 때는 주민들이 경암산, 민

속거리에 나오고 돈 있는 사람은 정방산 가서 놀죠. 정방산에 있는 성불사는 관광지예요. 스님도 있는데, 화교나 외국인들이 오면 불공도 드리고 종교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사람은 종교활동을 못하죠. 그리고 정방산 성불사는 김일성 시절에는 김일성 별장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못들어갔죠. 정방산성이 있는데 그 성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위로는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김일성 죽고 나서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다니기 시작했어요.

김 정방산 같은 데 놀러가려면 몇 집이 모여서 봉고차를 대여해요. 남한으로 치면 소형 노래방 기계 같은 게 있어요. 화면도 있고 마이크도 있는 기계 챙기고, 먹을 것들 바리바리 싸서 올라가서 먹고 놀고 하다가 내려오죠. 정방산은 하루 통으로 잡아서 놀고 오고 경암산은 잠깐 가서 놀고 오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과일군(황해남도 과일군은 1967년 행정구역 조정 시 과일이 많이 난다 하여 지역의 명칭을 ‘과일군’으로 명명했다) 바닷가에 놀러가요. 15-20가정 모아서 버스를 대절해 가서 놀고 오죠. 요즈음은 부자가 아니라도 마음만 먹으면 여름에 한 번씩 바닷가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양에도 관광가요. 버스타고 한 시간 걸리는데, 가서 옥류관 국수도



사리원 민속거리

먹고 대동강에서 배도 타고 오죠.

사리원에 외국인들이 머무는 3.8호텔도 아시나요?

이 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관광으로도 오고 했던 거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없어서 거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도 돈 있는 사람들이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3.8호텔에 사리원 출신 남한 사업가가 가구를 기증하고 공장도 지으려고 했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이 가구 기증은 모르겠고, 그 분 얘기는 들어봤죠. 사리원 출신 사업가가 남한에서 크게 성공을 해서 사리원 방문도 했고요. 사리원 도로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사리원 도로가 형편없었거든요. 그걸 보고 그 회장님이 사리원에 도로 포장하라고 피치를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기증한 피치가 70%는 다 평양으로 빼돌리고 30%만 사리원에서 썼대요. 그래도 덕분에 길이 많이 좋아졌죠. 그런 일이 신문에는 안나와도 소문은 다 나요. 3.8 호텔이 신양동에 있어요. 신양동에 강건의대 병원이 주변에 있죠. 그리고 신양동에 간부촌이 있거든요. 신



사리원 38호텔 (사진 출처: 트림어드바이저)

양동에 도당이 있어서 도당 간부들이 신양동에 살아요. 그리고 시당 청사는 유경동에 있어서 시당 간부들은 유경동에 살죠. 유경동은 시내 중심부이기도 하고요. 두 동네에 권력자들이 사니까 그 동네들은 잘사는 동네 이미지가 있어요.

사리원에도 제1 고등학교가 있죠?

이 네 맞아요. 도 제1고등학교도 있고 시 제1고등학교도 있어요. 원래는 황해북도 제1고등학교만 있었는데, 1990년대에 사리원시 제1고등학교도 생겼죠. 두 학교 다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아야 갈 수 있는 학교들이죠. 특히 도 제1고등학교는 황해북도 전체에서 모이니깐 더 가기 힘들어요. 토대가 안좋아도 진짜 천재 같은 아이들은 평양에서도 데려가고 도 제1고등학교도 갈 수 있기는 하죠. 도 제1고등학교는 다른 도시에서도 오니까 기숙사 생활을 해요. 시 제1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없어요.

북한에서 남한 영화나 음악을 접해보셨나요?

이 네. 사리원은 남한이랑 가까워서 남한 TV가 잘 잡혔어요. 원래 남북한이 TV신호 체계가 달라서 남한 방송은 안잡히거든요. 그런데 TV를 개조하면 남한 정규방송이 나와요. 제일 잘 잡히게 MBC였어요. 남한 정규방송 말고 강화도에서 북한사람들 위해 쓰는 방송도 있거든요? 그건 북한 사람들 위해서 쓰는 방송이라 TV개조 안해도 잡히죠. 다들 몰래 강화도에서 싸주는 TV를 봤을 거예요. 잡혀가기도 많이 잡혀갔죠. 저도 시집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시집을 가보니까 시댁 식구들은 80년대부터 남한 방송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2012년인가 사리원 전역에 남한 전파 방해하는 안테나 같은 걸 세우더니 그때부터 실시



사리원의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남한 방송을 보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남한 녹화물이 확산되었다.

간 TV는 못보게 됐죠. 90년대 후반에 CD알판이 들어왔죠. 그때는 남한 드라마 20부작 30부작이 돌아다니고 단속도 없었죠.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밤새도록 봤죠. 2000년대 후반부터 단속이 심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 몰래 보죠.

김 저는 2017년에 남한 드라마 처음 봤어요. 이선생님처럼 TV를 본 거는 아니고 친구네 집에서 녹화된 드라마를 봤죠. 북한은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집은 핵심계층에 아무래도 당성이 있는 집이니까 누가 저희한테 같이 보자고 권유하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가세가 기울고 나서 2017년 즈음에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서 지냈죠. 드라마 보면서 남한에 가고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리원에도 마약 문제가 심하죠?

이 그렇죠. 주사로 맞는 마약은 소수인데, 빙두라고 부르는 마약은 아주 보급이 다 됐죠. 김정 은정권 들어서 단속을 엄청 세게 하기 시작했죠. 원래 마약은 함흥에서 생산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리원에서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내 운송 수단은 어떻게 되죠?

이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죠. 오래 걸려도 시내내는 한 시간 30분이면 다니고, 아무리 멀어도 걸어서 두 시간, 자전거로 30분이면 다 다녀요. 시내버스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없어졌는데 다시 생겨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김 맞아요 자전거 주로 타고 다니고 버스도 많이 타요. 원주동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노선도 있고 시안전부 통과하는 노선도 있고, 신흥동 상매동을 거쳐 시안전부, 예술극장, 문화회관, 대성시장, 서리동, 유경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노선이 있고요. 버스 노선은 5-6개 즈음 있어요. (버스는 얼마나 자주 있죠?) 한시간 안쪽에 한 대씩 있어요. 요금은 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올랐어요. 요금은 한정거장을 가든,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든 1,000원 똑같아요. 사리원에서 봉산까지 가는 버스는 60리 길을 가니까 좀 비싸서 5,000원이고요.

2009년도에 화폐개혁 끝나고부터 택시가 생겼어요. 처음 생길 때 사리원 시내 안에서는 북한돈 5,000원씩 내고 탔어요(중국돈이 아니라 북한돈으로 계산하나요?) 사리원은 내륙이라서 중국돈보다는 달러가 많이 쓰여요. 그런데 택시비는 1 달러가 안되니까 북한돈 5,000원으로 했죠. 달러로는



외국인 유튜버가 1919년에 찍은 사리원 시내,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유튜브 화면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y-z8StaGW-6w&t=1076s>)

0.7-0.8달러 됐을 거예요. 환율도 많이 바뀌어서 2019년도에는 1달러에 8,500원으로 올랐어요. 물론 택시는 가난한 사람들은 못타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타고, 사기꾼들이 택시를 많이 타요.

제일 유명한 산업체는 어떤 곳이 있나요?

이 산업동에 5월1일 방직공장이 유명하죠. 방직공장에서 실도 짜고 천도 만들죠. 직원이 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방직공장 다니죠. 그리고 상매동에 타월공장도 유명해요. 대성동 위에 금속공장도 있거든요. 그 주변은 환경이 엄청 안좋죠.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니까요. 타월공장이 유명한 게, 타월을 만드는 좋은 기계가 사리원 공장에 있는데 그 기계를 예전에 제일교포가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산업동에 기계공장이 있는데, 기계공장은 실제로는 군수공장이예요. 사리원에서 전기 제일 잘 들어오는 데가 기계공장이예요 하루 18시간씩 전기가 들어오니깐요. 신흥동에는 군대가 가까워서 군부 동네예요. 그리고 신흥동에 교도소가 있어요. 7교화소라고 불러요. 간판도 기계공장이라고 하고 일반 주민들은 다 기계공장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군수공장이예요.



북한 언론에 보도된 사리원 방직공장(사진 출처: 뉴스1)

사리원에도 북송재일교포나 화교들이 많이 있나요?

이 네 있어요. 십몇 년 전 즈음에는 화교가 스무집 정도 있었을 거예요. 재일교포는 더 많았죠. 화교는 따로 모여 사는 데는 없는데, 재일교포는 원래 역 주변에 모여 살다가 서리동 지질대학 앞에 엘리베이터 있는 12층 고급 아파트가 생겨서 그 쪽으로 다들 이사갔어요.



사리원의 화교 가정을 방문한 주북한 중국대사 왕야진

사리원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나 보네요?

이 네 그렇죠. 18층 되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아파트인데 12층, 10층 되는 아파트들은 많았어요.

김 신흥동, 상매동은 좀 못사는 동네라서 아파트가 많이 없고요. 신양동이 가장 잘사는 동네예요. 간부들은 신양동에 살죠. 북한에는 엘리베이



러시아 관광객이 찍은 사리원 시내 모습

터가 있기는 한데 운행을 안해요. 평양에 잘 지어 놓은 아파트들도 출퇴근시간때만 전기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전압이 약해서인지 전기는 들어오는데 운행은 못하는 날이 많았죠. 평양이건 사리원이건 아파트는 3, 4층이 가장 인기가 많죠. 1, 2층은 시끄럽고 도둑 들고, 더 높은 층은 걸어서 올라가기 힘들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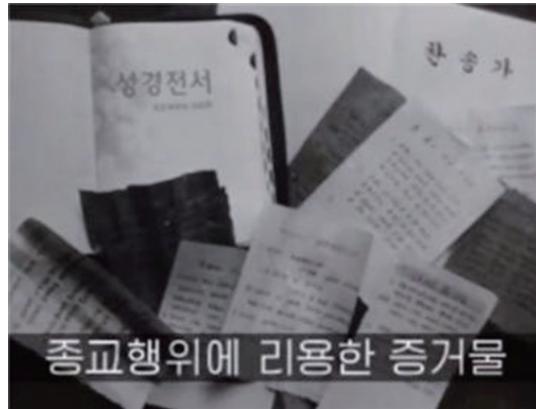
사리원에 경제적으로 잘사는 동네는 어느 지역 일까요?

이 시장 있는 동네가 집이 비싸죠. 유경동 선경동 쪽에 시장이 하나 있어서 그 주변에 집값이 비쌌어요. 그런데 대성동에 또 큰 시장이 생기고 대성동 주변이 집값이 비싸졌죠. 원래 대성동은 시골이었었는데, 시장이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죠. 아무튼 시장이 생기면 집값은 올라요.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못들어봤어요. 아까 MBC 방송 보는 것도 밖에 나가서 절대로 얘기 안했다고 했잖아요. 기독교는 더 하죠. 들기면 생명이 왔다갔다 하니까 다른사람들 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하겠죠.

김 신흥동에서 순대파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토대가 아주 안좋은 집이었어요. 그 여자 엄마가 옛날에 사리원에 5월1일 방직공장에 여공으로 있으면서 일을 그렇게 잘했대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70년대에 김일성이 현지 지도 왔을 때 김일성한테 대표로 꽃다발을 증정했어요. 보통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꽃다발 증정하면 그 증정한 사람은 온 가족이 출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토대를 파보니까 워낙 안좋아서 꽃다발 증정했어도 신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죠. 그만큼 토대가 안좋은 집안이었던 거죠.



북한의 반종교 선전영상에 등장하는 사리원 지하교회 성도 차덕순의 성경과 메모

2016년도에 사리원에서 필체 조사를 아주 세게 하는 거예요. 보위부인지 안전부에서 3일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게 하고 왼손으로 글을 쓰게 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소문이 돌기를 시내에 체제 비판하는 낙서를 누가 써냈다고 범인 색출하러 필체 확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사리원 사람들 자필 받아가느라 시내가 들썩였어요. 사람들도 괜히 잘못역일까봐 벌벌 떨었죠. 그런데 몇 개월쯤 지났을까? 그 범인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잡힌 여자 소문이 돌았죠. 신흥동에 순대 파는 여자인데 그 엄마가 김일성 꽃다발 줬는데 토대가 워낙 안좋아서 출세못하고...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저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연애했던 남자한테 버림받아서 화김에 체제 비판하는 낙서를 써서 붙였다고 소문이 돌았죠.

얼마 있다가 길성포항에서 공개처형을 했어요. 가기 싫어도 참관해야죠. 가보니까 순대 파는 여자랑 식당 지배인 하던 여자랑 둘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묶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재갈이 물려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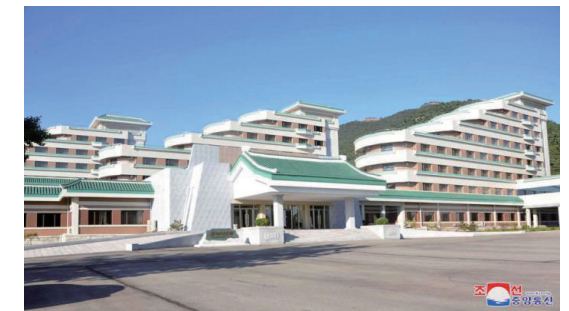
으니까 말을 못하죠. 그때 공개처형 하기 전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존엄을 모독했다. 자필로 체제를 훼손하고, 성경책, 미신책을 집에 숨겨놓고 읽었다. 안기부의 검은 돈을 받아먹었다...” 그런 판결문을 읽더라고요. 판결문 내용 낭독하는 건 공개처형에 참관한 사람들 다 같이 들었죠. 그 뒤로 그 여자 가족들도 다 추방됐어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사리원은 이런 도시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리원 사람들은 경암산과 정방산을 자랑스러워해요. 정방산은 역사가 있는 산이고, 경암산은 우리가 아름답게 꾸민 산 이고요. 정방산은 김일성 별장도 있고, 중요한 행사도 많이 했거든요. 1호 행사도 하고 89년도 세계청년학생축전 때 임수경도 왔었어요. 언젠가 저도 그렇고 여러

분들도 사리원을 자유롭게 가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저는 사리원 떠난지 몇 년이 됐지만, 참 불쌍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요. 북한이 다 그렇지만 사리원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예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특히 어린이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사리원 정방산호텔

언론에 비친 사리원

북한, 사리원에서 미사일 실험

북한이 2024년 11월 5일 오전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대선 본격 시작을 앞두고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 도발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미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나카타니 겐 방위상을 인용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최소 7발이 최고고도 약 100km로 약 400km를 비행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참조: 2024. 11. 05)

재령-해주 도로 현대화공사 진행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025년 5월 24일 "황해남도에서 재령-해주도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현대화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공사 시작 한달 남짓한 기간에 총공사량의 47%에 해당하는 수십km의 1단계 공사가 일정보다 앞서 완료되었으며 2단계 공사를 최단시간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령-해주 도로 현대화공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해남도는 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을 중심으로 2025년 3월 하순 공사에 동원된 설비들의 출동식에 이어 여러 곳에서 일제히 도로포장공사에 착수했으며, 여러 시,군에서 수십km의 도로포장구간에 있는 10여개의 다리를 확장하고 좁은 구간들에 대한 '곡선폐기'와 도로폭 확장공사, 옹벽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황해남도 농산물 집산지인 재령은 사리원-해주를 잇는 1급도로를 비롯해 가로세로로 뻗은 여러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황해남도 소재지인 해주와의 거리는 약 52km이다.

재령과 해주는 주요 간선도로인 2등도로도 연결되어 주민 이동이 가능하며, 사리원에서 해주까지 13~17개 역이 있는 황해청년선의 기착지인 재령역이 있다. 철도는 황해남도의 농수산물, 광산물을 평양으로 수송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참고: 통일뉴스, 2025. 5.24)

사리원에서 남한영상물 발각 후 사상투쟁회 진행

2025년 2월 초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청년들에 대한 사상투쟁회의와 함께 '반동사상문화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2025년 2월 12일 "사리원시 청년동맹은 지난 1일 불법적인 행위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에 걸려든 2명의 청년에 대한 사상투쟁을 진행하고 '적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습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 영화 등 북한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영상물이 담긴 USB나 SD카드를 소지하고, 이를 유포하다가 발각돼 체포됐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예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투쟁회의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이들이 초범자이고 또 예심 단계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앞선을 털어놓으면서 교양처리로 관대하게 처벌됐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시 청년동맹은 '적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습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이어갔다.

연초부터 외부 문화와 정보 유입 차단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사상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는데, 여기서 남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황해북도 사리원시는 외부 문화와 정보 유입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기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 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했다.

(참고: 데일리NK, 2025. 2. 12)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사리원 관광 홍보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은 2025년 5월 2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방산에 목란꽃(함박꽃)이 피다'라는 글에서 박해운 황해북도 관광국장이 "현재 조선(북한)은 정방산 및 주변 여행 노선·시설 정비와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 많은 중국 유커(遊客·관광객)가 이곳에 와 관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방산은 평양에서 50여km 떨어진 황해북도 사리원과 봉산군에 있는 산이다. 높이는 해발 500여m다.

정방산성에 대해선 "고려왕조 때 건설돼 현재까지 가장 잘 보존된 산성 가운데 하나"라며 "조선 임진왜란 시기에 산성은 왜구에 대항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근대에 조선 인민은 이 곳에서 일본 식민 침략자와 유격 투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박 국장은 "정방산은 풍광이 수려하고 옛 유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특히 좋다. 평양과 사리원에 가깝고,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길목에 있다"며 "전염병(팬데믹) 전에 정방산은 매년 많은 국내외, 특히 중국에서 온 관광객을 맞이했다"라고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2025. 05. 27)

사리원시 무역회사 책임일꾼을 대상으로한 강연회 열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무역회사 책임 일꾼(간부)들을 대상으로 세계 경제 정세에 관한 특별 강연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8월 7일 데일리NK에 따르면 7월 말 사리원시 당위원회 조직부의 주관으로 주요 무역회사 책임일꾼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 강연회가 진행됐다.

강연회는 미국의 무역 패권주의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다뤘는데, 반(反)이민·고율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자체는 물론이고 중국과 유럽, 나아가 전 세계 무역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강연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제, 보호 무역주의를 두고 “결국 세계시장이라는 거미줄을 한 손으로 찢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의 금융 불안, 운송비 급등, 원자재 불균형이 모두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축적된 무

역 질서가 미국으로 인해 삼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등의 언급도 나왔다.

이후 강연회는 북한 당국이 천명한 자력갱생 노선의 의의를 부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강연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출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미국의 일방 조치에 따라 상품 수출이 막히고, 금융결제가 틀어지고, 국가신용등급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계적 혼란 속에서 우리 공화국이 추구해 온 자력갱생의 노선, 특히 무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업과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온 노력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우리 무역일꾼들이 체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촉발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를 설명하면서 김일성의 내부 생산 역량 구축 강조, 김정일의 경공업 육성,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 전략까지가 모두 이 시대의 답안으로 통한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참고: 데일리NK, 2025. 08. 07)

사리원 장세 하루 6만원까지 치솟아

북한 당국이 시장 ‘장세’(시장세금)를 대폭 인상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공식 거래가 확산하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졌다.

2025년 6월 12일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부터 사리원시 시장의 고정 매대 사용자는 하루 최대 북한 돈 6만원에 달하는 장세를 부담해야 하고, 일명 메뚜기 장사꾼이라 불리는 비공식 상인들도 최소 6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루 최대 6만원은 이전 장세(최대 5000원)에 비해 무려 30배 증가한 것으로, 이 때문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장에 나오기가 더 두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모내기 총동원 기간 시장 운영 시간이 축소됐지만, 장세는 그대로 부과돼 상인들의 생계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고 한다.

이는 사리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 시장

장세도 자리당 하루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상승했으며, 일부 고수익 상인들은 하루 1~2만 원을 장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장세 인상은 세외수입 확대라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9차 당대회 전에 주민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을 흡수해서 주요 전략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탈(脫) 시장 행보에 나서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장세를 내야 하는 시장 대신 ‘개인집 매대’, ‘전화 주문’, ‘자전거 배달’ 등을 하며 비공식적으로 돈 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장세를 안 내려고 구루마(수레)꾼에게 부탁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본인 살림집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데일리NK, 2025. 06. 12)

사리원교화소 새 건물 짓고 리노베이션

북한이 사리원교화소 일부 건물을 새롭게 수리하고 신규 건물을 건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용 인원 증가와 작업장 확장 등을 위한 조치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데일리NK는 2024년 11월 17일 “사리원교화소의 수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고 시설 수리도 진행 중”이라며 “내부의 낡은 시설을 고치고 감방을 세분화해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건물 건설은 2023년 초에 시작돼 2024년 중반에 완료됐고, 이로써 수용률이 약 12% 정도 늘어났다.

소식통은 “수용률이 증가한 덕분에 올해 중반부터 현재까지 사리원교화소에 새로 입소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입소자들의 주요 혐의는 경제 범죄, 살인, 강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등이고,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후 다른 곳에서 장기 조사와 고문을 받다가 일반범으로 이관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새로운 감방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며 “국제교화소 표준에 맞춰 감방 천장이 높아지고 창문도 유리로 교체되고 커져서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됐으며, 조리실과 화장실 시설도 새롭게 교체돼 깨끗해져 교화생들의 위생 및 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수감자가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기의 용량, 최소 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의 요소를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소식통은 “새로운 시설 건설 이후 교화생들에 대한 식량 공급이 약간 늘어났다”며 “사리원교화소 내 농업 생산량은 올해 늘지 못했지만, 교화소 자체의 외화벌이 덕분에 식량 자급률이 다소 향상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화생들의 영양 상태에 큰 변화는 없으나 허약방에는 쌀죽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다”며 “영양실조로 소화가 어려운 수감자들을 위한 배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감시 및 보안 시스템 강화를 이번 사리원교화소 시설 개선의 주된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교화소의 감시 및 보안 체계를 현대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새로운 감시카메라와 전자·통신 감시 장치가 설치됐다”며 “이에 따라 교화생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철저해졌다”고 설명했다.

(참고: 데일리NK, 2024. 11. 17)

사리원의 각종 개발 소식

사리원 트랙토르(트랙터) 부속품공장 준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개건현대화된 사리원 트랙토르(트랙터) 부속품 공장 준공식이 2024년 12월 20일 현지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참고: 뉴스1, 2024. 12. 21)

사리원학생소년궁전 준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12월 12일 황해북도 사리원학생소년궁전 준공식이 10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준비해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과외 교양 기지가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참고: 뉴스1, 2024. 12. 12)



사리원즉석국수공장에서 각종 즉석국수(인스턴트 라면) 생산



지난해 12월 준공된 황해북도 사리원즉석국수공장에서 고추장맛, 소고기 맛, 닭고기맛, 후추맛, 지방 특산인 고수맛의 '경암산' 상표 즉석국수를 생산하고 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7일 보도했다. 이 제품들은 올해 봄 평양에서 열린 여러 전시회에 처음 출품됐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수요를 보였다고 전했다.

(참조: 연합뉴스 2025. 07. 07) 

북한지역연구 호별 자료 목록

2023년 여름, 창간호, 평안북도 신의주

- 권두언 - 북한지역연구지 발간의 의의와 연구 방향성,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관문 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징과 도시 구조, 편집부
- 신의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단동-신의주 초국경도시협력에 대한 단상, 예동근 (부경대)
- 북중 접경지역의 두 도시 개발 이야기, 김성배 (송실대)
- 선교를 위한 신의주 연구, 하충엽 (송실대)
- 신의주의 경제 그리고 미래,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북한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신의주, 강동완 (동아대)

2023년 가을, 통권 2호, 강원도 원산

- 권두언 -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분의 열매는 영속적이다. 김성태 이사장
- 해양관광도시 원산의 특성과 공간구조, 편집부
- 원산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관광도시 원산의 과거와 현재, 진희권 (부산대)
- '강원도정신'과 원산의 기업,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신 복음선교의 길, 북한 원산지역에서 찾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원산, 그리고 원산대부흥, 김철성 (목원대)
- 나의 아버지 조희렴 목사, 원산의 순교자, 조응규 (조희렴 목사 차남, 전 국회의원)

2023년 겨울, 통권 3호, 라선특별시

- 권두언 -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김성태 이사장
- 북·중·러 국경도시 라선의 공간구조, 편집부
- 라선(경흥, 경원, 온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라진 하산 프로젝트와 북러협력,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 조선장로교의 블라디보스톡 선교, 정호상 (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
- 사회주의국가 경제특구에서의 비즈니스선교, 이찬욱 (IBA 총무)
- 라선의 산업과 시장,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방후 북한의 동이기독교와 라선의 교회들, 안희열(침신대)

2024년 봄, 통권 4호, 개성특별시

- 권두언 - 개성지역 교회의 신앙적 유산, 김성태 이사장
- 신해방지구 접경 도시 개성의 발전과 공간구조, 편집부
- 개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만남과 교류의 장, 접촉 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성, 백일순 (서울대)
-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친해졌나?, 김유연(한반도평화연구원)
- 개성시 공간구조와 공간 격차, 이시호 (송실대)
- 소망의 언덕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개성협력병원, 김경용(전 개성병원 원장)
-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와 윤치호의 모범촌 구상, 강명숙(역사학 박사)
- 개성의 문화유산 연구 - 박성진(문화재청)
-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개성의 로컬리티, 편집부

2024년 여름, 통권 5호, 양강도 해산

- 권두언 - 여호와 이레와 낫시의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국경도시 해산의 공간구조와 초국경 협력, 편집부

- 해산의 성결교회, 이한복 (서울신대)
- 해산시 기능적 중심지와 부동산 가치,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양강도의 관광자원 현황과 개발 가능성, 강동완 (동아대)
- 해산의 초국경 협력: 북-중 합작 백두산 생태관광특구 조성, 김성배 (송실대)
- 코로나 이후 해산 농민시장의 변화, 강미진 (엔케이투자개발)

2024년 가을, 통권 6호, 남포특별시

- 권두언 -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그분의 인도하심, 김성태 이사장
- 남포특별시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남포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남포의 도시 공간과 일상 - 이시호 (송실대)
- 남포의 산업시설 현황 -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 서해 관문도시 남포시의 개발현황과 전망 - 남근우 (인천연구원)
- 남포는 근현대사의 남포불 -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 남포와 은재 신석구 목사 -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2024년 겨울, 통권 7호, 함경남도 함흥

- 권두언 - 교회설립, 다음 세대 교육 및 의료선교의 모범 함흥지역 선교,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대표화학공업도시 함흥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함흥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1960-1980년대 북한의 함흥시 공간 개발전략, 박학진 (동국대)
-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 흥남의 기원, 형성, 발전, 위영금 (정치학 박사)
- 함흥시 건축물의 공간구조 형성과 산업시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함흥-흥남은 어떻게 마약 생산지가 되었는가? (함흥 출신 탈북민)
- 함경남도 함흥지역의 성결교회 이야기, 이한복 (서울신대)
- 북한 화학산업 대표기업,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김미연 (산업은행)
- 그리스도의교회 중심지 함경남도 북청과 동석기, 전인수 (강서대)

2025년 봄, 통권 8호, 황해남도 해주

- 권두언 -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해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해주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호 (명지대)
- 북한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시의 공간정보,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주의 이 교회들, 있던 곳은 어디일까?,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 황해남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이한복 (정선교회)
- 셔우드 홀과 해주 구세요양원, 김철성 (목원대)

2025년 여름, 통권 9호, 함경북도 청진

- 권두언 - 섭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호(명지대)
-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
-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 백명숙(송실대)
- 달린 문 너머의 청진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 전병길(예스이노베이션)

“위의 모든 자료는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 자료실 - 발행자료 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Mission
Bible
College

선교사들이 개발한 'ABC성경대학'교재

- 셀프 성경 공부 교재
- 교회 소그룹 교재
- 교육 자료가 부족한 해외 선교 현장

본 교재는 국내 교회 및 해외 선교현장에서 성도들이 성경과 신학을 어렵지 않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이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평신도,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 평신도 리더를 길러내고자 하지만 교육자료가 부족한 선교현장에 적극 추천합니다.

ABC성경대학(Asia Mission Research Center - Bible College) 교재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습니다.
2. 개인 및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본문마다 질문, 묵상, 적용에 중점을 두고 집필했습니다.
3. 성경 해석 참고 도서가 부족한 선교 현장에서 한 권의 책으로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습니다.

AMRC 바이블 칼리지 교재는 기본과정, 성경연구과정, 성경신학과정, 일반신학과정 총 40개 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 중국어, 네팔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CLC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하였습니다.

※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라인에서 판매중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CLC사도신경, CLC주기도문, CLC십계명을 검색해 보세요.)

